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協力과 農村指導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 보고서

1983. 10. 12~2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개발도상국간의 經濟 및 技術協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要請되는 때에 開發途上國間の 農業과 農村開發協力方案을 論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983년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당 연구원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AARRO)와 共同主管으로 열린 본 회의에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16개 開發途上國과 FAO 등에서 참석한 學者, 專門家, 그리고 政府關係官 등 32명이 農村指導事業 모델開發과 함께 各國別로 農業과 農村開發을 위한 國際協力の 經驗을 交換하였으며 상호 協力が능분야의 확인과 이의 促進을 위한 建議文 등을 作成하였다.

農業과 農村開發을 위한 開途國間の 國際協力は 비단 經濟協力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제 3 세계를 向한 非同盟外交強化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하다. 農業과 農村開發이 政策的 最優先課題인 아시아·아프리카 開發途上國의 참석자들은 경이적인 經濟成長과 잘 다듬어진 農村모습 그리고 부지런한 韓國人像에 감명을 표하고 繁榮된 한국의 앞날을 豫見하며 한결같이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移轉과 互惠的인 經濟協力強化를 韓國에 要請하고 있었다.

本報告書는 이번 서울 國際會議에서 발표된 主題論文과 討議內容을 要約 整理한 것이다. 특히 이번 會議에서 論議된 開發途上國家間の 구체적인 協力可能分野와 開發途上國이 우리 나라에 協力を 要請한 分野는 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大統領閣下의 巡訪外交를 구체화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나라의 協力方向을 定立시키는데 귀중한 資料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번 國際會議을 버마 사태의 국가적 비극 속에서도 무사히 끝

마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農水産部를 위시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農業振興公社, 農村振興廳 그리고 특히 새마을運動中央本部에 감사드린다. 이번 國際會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하였으며 本報告書의 作成을 담당한 崔洋夫博士, 鄭起煥研究員 그리고 이 會議에 支援을 아끼지 않은 職員들의 勞苦를 다시 한번 치하한다.

1983.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目 次

머 리 말

開 會 辭	1
歡 迎 辭	3
致 辭	5

會議經過와 建議

1. 會議經過	8
2. 建 議	12

開發途上國간의 農村開發의 課題와 戰略	16
----------------------------	----

主題發表 및 討議

〈 國際協力 分野 〉

1.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간의 國際協力 強化	30
2. 農村開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討論을 위한 爭點	41
3. 國際協力分野 討論	58

〈 農村指導事業 分野 〉

4. 開發途上國간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成果 그리고 戰略	65
5. 農村指導와 農民과의 意思傳達	93
6. 農村指導事業分野 討論	120

開發途上國간의 國際協力增進 可能分野

1. 國家間 協力可能分野	127
2. 韓國에 協力を 要請하는 分野	134

附錄 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 1 .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140
- 2 . On Models of Extension and Communic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152

附錄 2

- 1 . 會議日程 167
- 2 . 參加國 및 參加者 173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尊敬하는 朴鍾汶 農水産部長官兼 AARRO 議長, 본회에 참석하여 주신 각국의 代表,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協力을 위한 국제회의 開會를 선언하게 되었음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을 대신하여 국내외에서 참석하여 주신 고명하신 학자와 고위관료 여러분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에 대하여도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의 모임을 갖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開發途上國의 農村과 農業開發을 위한 효과적인 經濟 및 技術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 對話의 窓口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두번째로는 제 3世界의 발전을 위하여는 개발도상국간에 가능한 많은 實踐經驗들을 相互交換하고 나누어 갖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見解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대다수 국민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상당부분이 絶對貧困과 低開發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不確實하고 不安定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가난의 굴레를 벗겨 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긴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회의는 농촌개발을 위한 農村指導

事業 모델과 農村開發協力を 위한 開發途上國들간의 협력분야와 효과적인 協力方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 회의의 개최 의의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농촌주민들의 삶을 質적으로 向上시키고 생활여건의 改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개발도상국간의 국내외 상황에 관한 폭 넓은 相互理解의 바탕위에 협력을 위한 共感帶 形成이 그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국제회의가 농촌의 저개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하나의 礎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이 회의가 成功的 結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祝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회의가 단순히 농촌지도사업과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살고 있는 수십억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합 니 다.

歡 迎 辭

Mr. R. P. S. Malik

Technical Officer, AARRO

(AARRO 事務總長을 대신하여)

尊敬하는 朴鍾汶 農水產部長官, 귀빈, 참석자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사무총장 Dr. B. S. Minhas 를 대신하여
大韓民國 農水產部 후원하에, 韓國農村經濟研究院과 아시아·아프리카 農
村再建機構가 공동주관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회
의”에 환영사를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인도의
델리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시술을 받아 온 事務總長은 본 회의 개최식에
꼭 참석하고자 하였지만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로 본 개최식
에 참석하여 歡迎辭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4일 후에는 사무총
장이 본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AARRO)와 본 회의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朴鍾汶 農水產部長官이 議長으로 되어 있는 AARRO는 지난 22
년간 활동하여 왔으며, 아시아 16개국, 아프리카에 12개국 총 28개국
을 會員國으로 하고 있습니다. AARRO는 일찌기 아시아·아프리카지역
에 설립된 農村開發을 위한 南南協力の 한 標本입니다. AARRO의 주
요 機能은 회원국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호 理解를 增進시키고,
農村住民의 貧困, 질병, 기아, 문맹 등을 일소하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
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AARRO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농촌빈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AARRO의 極東地域 事務所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음은 AARRO의 자랑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

본 회의는 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農村指導事業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協力을 위한 國際協力입니다. 본 회의에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사이에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模型을 개발하고 경험을 교환하는 討論의 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 농촌/농업개발협력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AARRO가 국제기구나 각국의 국내 기관들과 공동노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사무총장이 본 회의의 성공에 거는 期待가 우리들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事務總長은 朴鍾汶 農水產部長官兼 AARRO議長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祝賀하여 주시고 指導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大韓民國政府 특히 外務部에 감사를 드렸고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金甫炫 院長님, AARRO의 극동지역 사무소 李熺逸대표, AARRO의 국내조직위원회 위원장 崔洋夫 박사, 그리고 본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본 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대한민국 정부와 主催측에게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무총장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致 辭

農水産部長官 겸 AARRO 議長

朴 鍾 汶

尊敬하는 大使님, 본 회의 참석하여 주신 각국의 참석자 여러분,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大韓民國의 國民과 政府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를 대신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회의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하여 주신 AARRO
의 Dr. B.S. Minhas 事務總長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金甫炫 院長에게 심
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본 서울 워크샵의 주제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농업
개발에 필요한 協力分野와 효과적인 協力方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
시 말씀드리서 농촌개발을 위하여 농민들과의 대화와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모델에 관한 實務經驗을 交換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회의가 농촌빈곤과 저개발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AARRO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비슷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살고 있
는 사람들끼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福祉農村을 건설하
려는 理想을 품고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대다수 주민
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國民經濟 역시 1次産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농촌과 농업개발이 國家開發目標의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農業開發이 都市開發보다 뒤쳐져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共通된 現實이며, 농촌저개발은 농촌주민의 離農을 促進시켜 都市問題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이 均衡的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농촌주민의 삶의 質的 向上과 생활의 便益性 增進을 위한 종합적인 努力이 필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아래 본인은 韓國이 經驗한 몇가지 事例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간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결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에 비하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더 나은 就業機會와 生活環境을 찾아 도시를 향하여 농촌을 떠나는 離農問題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自助, 自立, 協同의 정신으로 더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촌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接近方法으로 評價되어 왔습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농촌새마을운동은 精神的, 物理的으로 農村社會發展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농촌새마을운동이 외국 전문가들에 의하여 “韓國型 農村開發모델”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濃密한 연구와 농촌지도사업 특히, 多收穫 新品種의 성공적 育成과 普及으로 農家所得은 상당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에 고질적인 빈곤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소득의 均等分配,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의 均衡된 生活環境造成 등에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全斗煥大統領 각하의 領導力 아래 先進祖國 창조를 향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본인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본회의 과정에서 導出되고 相互協力 精神아래 문제해결을 위한 一步의 前進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제안될 건의안들이 진정한 농촌개발목표로 여러분들의 본국 정부에서 채택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貧困과 飢餓를 인류로부터 추방하여야 한다는 大

命題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한국방문을 歡迎하고 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祝賀합니다. 아무쪼록 체한기간동안 이 나라의 많은 분야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會議經過와 建議

1. 會議經過

開發途上國家의 農村 및 農業開發 協力を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 國際會議(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가 農水產部 후원으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과 아시아·아프리카 農村再建機構(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AARRO)와의 공동 주최로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과 아프리카 8개국 그리고 FAO에서 참석한 고위직 정부 관료와 학자 등 32명이 모인 가운데 1983. 10. 12 ~ 10.20 (9일간) 까지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AARRO 사무국은 1983년 1월 AARRO의 82~84사업계획의 하나로 선정된 農村指導事業모델에 관한 국제 워크샷을 韓國 정부에서 주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측 공동개최자로 결정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同研究院의 專門性과 機能을 고려하여 워크샷 주제로 農村 및 農業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を 이번 워크샷 주제로 선택할 것을 AARRO측에 제의하였으며 결국 양기관 합의하에 2개의 주제 즉 農村指導事業모델과 農村 및 農業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を 본會議 주제로 선택하였다. 1983년 6월 20~24일까지 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한한 AARRO측 기술담당관 말리크(R.P.S. Malik)와 당연구원 간에 회의개최에 따른 “理解覺書”가

작성되었다. 本 覺書는 회의 名稱, 회의 主題, 회의 期間, 초청 대상자 및 참석자선정, 발표論文 작성, 재정분담, 회의공식언어 사용 등을 담고 있으며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金甫炫 院長과 AARRO 事務總長 민하스(Dr. B.S.Minhas)를 本會議 共同開催者로 결정하였다.

한편 본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金榮鎮 副院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院內 세미나개최準備委員會를 구성하였고, AARRO와의 대화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國內워크샵組織委員會를 구성하고 委員長에 崔洋夫 首席研究員, 委員에 李壽寧 研究企劃室長, 農水產部 國際協力課 李昌雨 事務官(人事移動으로 李昌雨事務官은 서성배事務官으로 대체되었음)을 위촉하였다.

本會議에는 2개의 主題가 設定되었다. 하나는 農村指導事業 모델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한 開發途上國間의 協力方案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地域國家의 대부분이 農業國家이고 國家經濟가 크게 農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農村住民들은 기아와 질병, 문맹 등 고질적인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 農業과 農村開發은 이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회의의 2개의 主題 즉 農業生産性を 增大시키고 農村住民의 삶의 質的向上을 목표로 하는 農村指導事業과 地域間, 國家間의 均衡的 發展과 이러한 發展努力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정보의 교환, 專門人力의 交換 및 訓練, 共同研究事業의 推進,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과 適用 등에 관한 開發途上國間의 國際協力事業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가나,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는 이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 次官級 고위직을 이 회의에 참여시켰고 특히 아프리카 大陸의 정치·경제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집트가 韓國과 국교가 없으면서도 國際協力 分野의 高位職을 참여시킨 것은 이 회의가 갖는 意義를 대변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本會議가 갖는 보다 중요한 成果는 검증하고 있는 第3世界 및 非同盟國家들과의 經濟協力增進 그리고 全斗煥 大統領각하의 아시아 아프리

카 순방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地域國家들과 구체적인 協力分野 및 協力方法을 協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本 會議의 主要日程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	시	일	정
10월	11일	參加者 입국 및 등록	
10월	12일	(1) 개회식	
	오 전	· 개회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金甫炫 · 환영사 : AARRO Mr. R.P.S. Malik · 축 사 : AARRO 議長겸 농수산부장관 朴鍾汶	
		(2) 농수산부장관 초대 오찬	
	오 후	(1) 주제 I에 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발표자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王仁樞교수 印度 농업연구위원회 K.N. 싱 박사 (2)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자유중국, 인도, 태국)	
10월	13일		
	오 전	(1) 주제 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라이베리아, 가나, 케냐, 모리셔스, 한국, 필리핀)	
	오 후	(1) 주제 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시에라레온, 모로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예멘, 말레이시아, 요르단) (2) 그룹토의를 위한 주제설정 회의	
	저 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초청 만찬 (2) 주제 I에 관한 토의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 회의	
10월	14일		
	오 전	(1) 주제 I에 관한 그룹토의	

일	시	일	정
	오 후	(1)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방문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문	
	저 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초대 가든파티 참석	
10월 15일	오 전	(1) 농업진흥공사 방문 (2) 농촌진흥청 방문 (3) 농촌진흥청장 초대 오찬 참석	
	오 후	(1) 새마을 부락 방문 (경기도 송탄시 도원동 칠원마을)	
	저 녀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事務總長 초대만찬 참석	
10월 16일		민속촌 방문 및 서울 시내 관광	
10월 17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발표자 :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金東熙교수 印度 델리 대학교 S.D. 텐둘카르 교수	
	오 후	(2)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이아) (1)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 (시에라레온, 가나, 케냐, 인도, 한국, 태국)	
	저 녀	시내 관광	
10월 18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계속 (스리랑카, 라이베리아, 모로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요르단)	
	오 후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국가간에 필요한 국제협력분야 및 협력 형태 파악 (2)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주제 설정 (3)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결과 발표	
	저 녀	AARRO 극동지역 사무소 대표 초대 만찬 참석	
10월 19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오 후	자 유 시 간	

일	시	일	정
저	녁	AARRO 사무총장 초대 만찬 참석	
10 월	20 일		
오	전	(1)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결과 발표	
오	후	(1) 회의결과 및 건의문 채택	
		(2) 폐 회 식	

2. 建 議

이번 國際會談의 結果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나라와 開發途上國家와의 協力強化를 위해서 必要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建議事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아프리카 農業 및 農村開發政策의 體系的인 研究體制 構築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資源의 획득과 한국상품의 市場開拓이라는 分業主義的 경제협력에서 뿐만 아니라 제 3 세계 및 非同盟國家들과의 外交強化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이 우리의 國益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 농업 및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農業國家이고 絶對貧困과 기아에서의 해방이 이들 국가가 당면한 政策課題임에 비추어 볼 때 農業과 農村開發을 통한 經濟 및 技術協力은 어느 분야 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하고 설득력 있는 협력분야이다. 발전단계에 따른 적정기술의 이전과 적용에 관한 교육훈련, 각종 경제사회개발계획 특히 미세한 地域單位 農村綜合開發計劃의 수립 기법 및 이의 실천에 관한 經驗 등은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도 긴급한 협력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농

업과 농촌의 構造的인 문제들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체계있는 연구는 곧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제 3 세계에 대한 非同盟外交를 強化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국가들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무역정책, 역사와 문화, 경제사회구조, 산업기술개발 등과 이들 지역국가에 대한 移轉可能的 기술 정보수집 등 폭 넓고 체계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1)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農業과 農村開發政策을 體系的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관계 연구기관의 研究領域을 擴充시켜야 하고 2) 이를 위한 研究費의 投資등이 뒤 따라야 한다.

專門人力 育成 및 專門家 諮問活動 支援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나아가기 위하여는 分野別 專門人力은 물론 國家 및 地域別로 專門人力을 養成하여 분야별/지역별로 專門性을 함양하여야 한다. 또한 점증하는 전문가 파견 요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職務能力의 향상 뿐만 아니라 語學能力, 자문활동에 필요한 資質向上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시켜 대외 자문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국가간의 전문인력 교환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별·지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 국제기구 및 제 3 국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 기관과의 개도국지원 활동 프로그램에의 공동참여 방안 강구 3) 전문인력에 대한 語學 훈련강화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전문가의 해외자문 활동의 강화는 그 동안 인력정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농업 및 농업경제분야의 인력수급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 자문활동의 경험과 여기에서 축적된 기술은 중요한 개발자원으로 한국농업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農水産 관련 海外訓練生の 教育專擔機構의 設置

본 회의에서 한국에 요청한 국제협력분야 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專門家 派遣訓練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適正技術 移轉과 관련하여 이 분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분야 교육 훈련사업은 農水産部를 비롯하여 農村振興廳, 農業振興公社, 水産廳, 農協, 畜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새마을運動中央本部 등에서 散發的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훈련과정도 상설과정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는 訓練課程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韓國의 役割增大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농수산분야의 국제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수행할 常設教育機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자유중국의 토지개혁훈련소, 에집트의 Egyptian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e 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國際協力強化를 위한 行政力 補強

농촌 및 농촌개발분야의 국제협력이急増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수산분야 國際協力을 담당하는 行政力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농수산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농수산부의 경우를 보면 1981년 11월 직제개편으로 무역과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국제협력과로 통폐합하여 1) 농수산관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업무의 종합조정 2) 외국차관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의 유치와 기술용역단 및 조사단의 파견 3) 농수산관계 외국 시찰단 초청 안내 및 훈련 4) 농수산물 수출입계획의 조정 및 수출지원 계획 수립 5) 지정수출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 규제 및 해외시장조사 6) 수출입 관계법규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농업에 관한 관세제도의 조사연구 및 조정 등을 담당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업무를 課단위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급증하는 국제무역 및 경제협력 업무에 비하여 볼 때 國際情報蒐集, 研究分析등 깊이 있는 行政力의 機能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협력과를 농수산물 무역, 경제

협력, 기술협력 등의 전문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농수산 관련 국제협력의 종합적인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機能의 專門化와 人力補強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國際協力基金 造成을 위한 民官協力體制 構成

急増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예산을 정부 財政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國際貿易과 경제협력분야에서 관심있는 經濟團體 및 企業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政府 및 全國經濟人聯合會, 貿易協會, 農業團體 그리고 일반 企業體 등의 基金出捐으로 가칭「아시아·아프리카 農業／農村開發協力基金」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協力の 課題와 戰略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국제회의」를 마치고

崔 洋 夫

首席研究員, Ph.D. (農業經濟學), 農村開發研究室

鄭 起 煥

研究員, 農村開發研究室

1. 머리말
2. 開發途上國間の 經濟 및 技術協력과 農村 / 農業開發
3. 韓國과 開發途上國과의 農業 / 農村開發協力
4. 맺는 말

1. 머 리 말

개발도상국가간의 農村 및 農業開發協力の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 國際會議」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 AARRO)의 공동주최로 1983.10.12 -20(9일간)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의 서울 會議는 大統領의 아시아·아프리카 巡訪外交 이후 우리나라의 아시아·아프리카 進

出 및 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나라의 經濟 및 技術協力問題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요르단,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나, 케냐, 모로코, 시에라레온, 모리셔스, 라이베리아) 16 개국의 政府高位官吏 및 學者 등 32 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 스스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가를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개도국간의 대화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의 서울會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개발도상국간의 농촌개발협력방안」이라는 주제와 AARRO가 제시한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모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招請論文 4 편과 國家別 報告書 32 편의 발표, 그리고 4 개의 分科로 나누어 진행된 分科討議를 토대로 한 서울會議 結果報告 및 建議書를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참가 16 개국이 각국이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 그리고 각국이 다른 國家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을 논의함으로써 開發途上國家間의 技術 및 經濟協力이 단순히 理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實踐 가능한 것이라는 확신에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會議의 성과는 무척 큰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서울會議에서 토의된 내용과 筆者들이 평소에 생각해 온 開發途上國家間의 農業／農村開發協力を 위한 과제와 전략 그리고 우리 나라의 아시아·아프리카 進出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아시아·아프리카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協力方案 등을 간추린 것이다.

2. 開發途上國間의 經濟 및 技術協力과 農村／農業開發

1978 년 開發途上國內의 技術協力에 관한 유엔會議(브에노스 아이레스

宣言)¹⁾ 이후 개도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E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은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의 理想實現을 위한 開發途上國의 經濟 및 技術發展을 위한 효과적인 戰略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國際的 關心의 초점이 되어 왔다.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론은 1950년대 이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원조가 개도국의 현실여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러한 기술 및 경제원조가 개도국의 자주적 발전보다는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식민지적 종속성을 오히려 증대시켜 왔다는 비판론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절대적인 食糧不足 속에서 빈곤과 굶주림,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農村人口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의 이들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원조는 이들 국가의 食糧生産能力의 향상에 주어졌다가 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공업원료형 농산물, 즉 고무, 차,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 등의 생산에 주어졌고, 직접적인 食糧援助는 오히려 개도국의 식량생산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식민지형 농업체제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진국의 기술원조는 개도국의 현실여건에 안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술원조는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자재나 부품수입의 확대를 유발, 개도국의 外債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은 자연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비슷한 여건에 처해 있는 인접 개도국가 가운데서 보다 여건에 알맞은 適正技術 내지는 中間技術(appropriate technology or intermediate technology)의 발굴과 국가간 이전 및 적용에 더욱 큰 관심을 쏟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개도국이 식량부족

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echnical Coop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raft Plan of Action, A/CONF. 79/3, 3 August-12 September, Buenos Aires, 1978

속에서 많은 농촌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개도국간의 기술 및 경제협력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번 서울會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다음과 같은 8개 분야가 개도국간의 협력축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 (1) 개도국간의 交易增大
- (2) 農業發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 (3) 에너지분야를 포함한 농촌의 비농업분야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 (4)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경제제도의 혁신
- (5) 토양유실, 한발, 사막화 등과 같은 생태적 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
- (6) 農村의 貧困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사업
- (7) 의료, 교육, 가족계획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농촌전달 체계
- (8) 신기술의 수용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제도의 혁신

가. 開途國間の 交易增大

오늘날 開途國은 이들 國家의 輸出의 주축이 되고 있는 一次商品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와 이로 인한 國際收支問題 등으로 심각한 外債부담문제를 안고 있다.²⁾ 이와 같은 국제경제에 대한 현실인식은 開途國間の 무역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고 있다. 서울會議는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주제의 전문성을 감안, 개도국간의 무역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UNCTAD의 아시아,

2) Dong-Hi Kim,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ARRO/KR EI, October 12-20, 1983 Seoul, Korea.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77 그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토의를 마무리지었다.

나. 適正技術의 開發, 移轉 및 適應

食糧増産을 위한 농업생산기술, 농촌경제의 가내공업과 같은 비농업분야의 기술, 에너지 절약적 기술 등에 있어서 그 동안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협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會議은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간의 협력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表 1>은 이번 서울會議에서 제시된 農業／農村開發을 위해 開途國間の 協力이 요청되고 있는 분야들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개도국들이 地域現實에 알맞는 適正技術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農業／農村開發 研究機關을 설립하여 연구업적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연구기관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가 어떤 연구에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 개발 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연구자료 및 인력의 교류와 공동연구 등의 추진으로 개도국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연구기관간의 직접교류의 확대는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表 1>에 요약되어 있는 분야에 걸쳐서 農村開發과 農業技術革新에 기여할 수 있는 社會, 經濟制度의 革新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다. 開發成果의 均等한 擴散을 위한 經濟制度의 革新

대부분의 개도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經濟成長의 혜택이 農村住民들에게까지 골고루 擴散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農地制度의 改革, 農民協同組合과 같은 自助的인 農民團體의 조직, 육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經濟制度의 革新과 관련된 각국의 制度나

表 1 開途國間の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必要한 協力分野 *

分 野	細 部 內 容
1.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	○ 農業生産技術 (쌀, 양잠, 양계, 사탕수수, 차, 코코아 등의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 비닐 農業技術 ○ 食品加工 및 쌀 도정 기술 ○ 農機具改良 ○ 農村에너지節約(특히 메탄가스) ○ 농촌건축자재 생산
2. 土壤保全 및 用水開發	○ 地下水 開發 ○ 農地開發(개간) ○ 토양유실 방지
3. 農村小規模 工業開發	○ 농촌가내공업(식품가공, 생필품 분야)
4. 人力開發	○ 農業技術者, 地方公務員 및 農村指導者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관리능력향상) ○ 교육훈련기법 ○ 전문가의 파견(농업생산기술 등)
5. 情報, 資料의 交換	○ 農業生産技術 및 適正技術에 대한 研究結果의 교환 ○ 國家間 研究機關間的 協力增大 ○ 전문인력의 교환 ○ 공동연구의 추진
6. 管理 및 計劃 技法	○ 농촌행정조직 및 관리운영 ○ 農村開發事業의 관리기법 ○ 農村地域單位의 미시적 계획기법(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7. 農村指導 및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 農民指導技法 ○ 農民團體의 조직과 육성기법 (협동조합 등)

* AARRO/KREI 국제 워크샵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 16個國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경험들, 특히 이 분야에서 성공한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事例研究를 통하여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교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서울會議는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도국가간의 비교연구, 공동연구를 더욱 활발히 추진시켜야 한다는 데 서울會議는 합의하였다.

라. 農村貧困層에 대한 支援

서울會議는 그동안 개도국에서 추진해 온 많은 농촌개발사업들이 농촌 지역의 貧困階層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거나 이들 계층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政府主導的인 「위로부터의 개발사업」들은 農民들의 자발적인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農村새마을運動이 이루어 온 업적과 경험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農村貧困層을 개발사업에 동원,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의 부여와 정부 및 민간사회단체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별 사례연구와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교류가 역시 강조되었다.

마. 公共서비스의 農村傳達體系

農村住民들의 삶의 質의 향상을 위한 각종 公共서비스의 農村傳達과 관련, 특히 초등 및 성인교육, 직업교육, 의료, 상수도, 영양개선, 가족계획 등의 부문에 있어서 비용절약적인 방안의 모색과 동시에 효과적인 전달체계 (delivery mechanism)의 개발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公共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單位에서의 行政調整能力의 향상과 함께 農村地域의 도로, 교통, 통신망의 체계적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서울會議는 강조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간의 경험의 교류를 촉구하였다.

바. 바람직한 價値觀이나 態度的 변화를 촉진하는 社會制度的 革新

開途國의 農村住民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의식구조, 태도 등은 食糧을 포함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新技術의 수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新技術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통한 수용능력의 향상은 經濟的 變數뿐만 아니라 社會文化的, 또는 성취 동기의 부여와 같은 心理的 變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會議는 개도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社會變動을 유발시키는 社會工學的 技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기구는 물론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이 축적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교류를 촉구하였다.

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食糧不足, 農業의 低生産性, 農村의 低開發, 農村住民의 低所得은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개발을 위해서 요청되고 있는 개도국간의 협력분야도 단순히 생산기술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表1>과 같이 社會 經濟制度, 農村開發行政技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農業/農村 開發도 결국은 이러한 開發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人的 資源의 能力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開途國의 研究, 行政, 指導人力의 開發을 위한 개도국간의 교육훈련협력과 연구협력, 인력교류 등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분야라는 점이다. 특히 開途國間의 개발경험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개도국간의 사례연구, 공동연구는 중요한 개도국간의 협력분야가 아닐 수 없다.

3. 韓國과 開發途上國과의 農業/農村開發 協力

그렇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開途國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

에서 어떠한 형태의 농업/농촌개발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그러한 개도국들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와 開途國間的 農業/農村開發協力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식의 농업/농촌개발협력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서울會議은 우리 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아프리카 15개 會議參加國 代表들을 통해서 농업/농촌개발협력이 요청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이 되었다. 이번 서울會議에 참가한 아시아·아프리카 대표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表 2>와 같다.

開途國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바라고 있는 農業/農村開發協力分野는 (1) 農業技術開發, (2) 農村開發 및 行政, (3) 農村小規模開發, (4)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5) 農村經濟組織의 5개 분야로 집약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分野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방식은 기본적으로 開途國의 農業/農村開發을 담당할 연구, 행정 및 지도인력의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요약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관계전문가의 파견 또는 공동연구의 추진, 그리고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방문, 장단기 훈련 연수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開途國의 우리 나라에 대한 기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對應戰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前提를 바탕으로 구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南北間의 고조되는 긴장이 國際外交에 투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非同盟國家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非同盟國家와의 外交強化라는 국가외교차원에서 農業/農村協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은 둘째로 들 수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開途國들은 심각한 식량부족과 빈곤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고 식량증산과 농촌빈곤 퇴치를 위한 농촌개발이 이들 국가들의 제일의 과제가 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세째는 이와 같은 農業/農村開發協력은 政府次元이 아닌 民間次元, 또는 商業的 次元에서는 크게 제

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輸出業界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진출이 商業베이스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했을 때 農業／農村開發協力은 商業베이스로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를 전제로 할 때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은 결국 外交的 次元에서 그리고 政府次元에서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버마사건 이후 北韓의 非同盟外交에 어떤 공백이 예상된다고 할 때 農業／農村開發協력을 통한 非同盟外交의 強化는

表 2 아시아·아프리카 開發國이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農業／農村開發協力 分野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1. 農業技術開發 -작물재배(쌀, 잡곡, 원예작물 등) -토지 및 용수개발 -농기계 개량 2. 農村小規模工業開發 -식품가공(특히 쌀도정 등) 3. 農村開發 및 行政 -農村開發事業樹立 및 評價 -農村計劃技法 -農村下部構造 및 環境開發(농촌도로, 농촌의료, 가족계획 등) -農村指導 및 農民教育 -農村새마을 運動 -農村指導者 教育 4. 農民團體組織 育成 -協同組合育成 5. 農村經濟組織 -農產物市場組織 -農村金融制度	○ 우리나라의 전문가 개도국파견 (연구전문가 또는 교수 등) ○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내 훈련(한국의 대학원과정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 개도국 지도자에 대한 단기연수 방문 ○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 물자지원(연구, 교육훈련, 농촌지도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지원)

韓國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정된 경제적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途國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국내여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증가가 예상되는 開途國의 훈련생들을 흡수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와 함께 분야별로 이러한 훈련생을 지도할 교육인력의 개발이 시급하다. 農業/農村開發分野에는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그리고 농과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개도국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개도국 훈련사업에 대한 횡적 연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農水産部の 國際協力課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체계화하거나, 또는 에집트의 國際農業센터(Egyptian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e)와 같은 교육 및 훈련 전담기구의 신설도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도국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강화와 함께 지역별 또는 국가별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개도국과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인력 교환,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연구자료 교환 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우리 나라의 農業技術은 開途國의 農業發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 잠업, 농기계, 농업토목, 축산 등의 분야에서 훈련된 전문연구인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기술 인력의 개도국 파견은 국내 농업연구인력 수급의 원활화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째로는 適正技術의 移轉이라는 측면에서 移轉可能한 국내 농업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開途國의 농업발전 수준을 비교할 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농업기술, 예를 들면 인력에 의존하는 반자동식 농기구나 재래식 도정기술 등은 오

히려 근대적인 자동화된 농업기술보다 개도국의 농업／농촌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會議에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대표들이 농촌시찰에서 우리 농촌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반자동식 탈곡기나 가마니틀, 새끼틀 등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은 꼭 의미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재래식 농업기술에 대한 체계화와 함께 이러한 적정기술이전을 商業베이스로, 예를 들면 반자동 탈곡기나 새끼틀 공장 등을 아시아·아프리카의 현지에 합작형식으로 설립하는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거한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들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나, 그렇다고 정부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어떤 획기적인 국제협력예산의 확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기금의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금조성의 한 방안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진출기업 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무역협회와 같은 경제단체와 농업단체 등이 「아시아·아프리카 농업／농촌개발협력기금」조성에 참여케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맺 는 말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갖는 관심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이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인가 개도국의 현실에 맞는 개발경험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도국가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의문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우리 나라의 國際協力事業은 아직도 시작 내지는 준비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가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농업／농촌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역할증대 요구가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制度的, 財政的 基盤을 갖추는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歐美依存的인 外交에서 벗어나 第三世界 國家들을 대상으로 하는 非同盟外交의 強化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들 개도국들이 農業／農村開發分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農業／農村開發協力을 통한 非同盟外交의 強化」가 갖는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國際的 信賴와 國家的 利益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國際外交의 理想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極東의 한국으로서만 安住할 수는 없으며 開途國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시아·아프리카의 開途國들과의 友好的인 經濟 및 技術協力은 韓國의 國際外交가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韓國外交가 成熟段階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國際社會에서의 位置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마事態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이번의 서울會議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는 世界平和를 위해서 진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체계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회의였으며, 착실한 外交的 成果를 쌓은 회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Ⅲ

主題發表 및 討議

國際協力 分野

- ①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間の 國際協力 強化
- ② 農村開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討論을 위한 爭點
- ③ 國際協力分野 討論

農村指導事業 分野

- ④ 開發途上國間の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成果 그리고 戰略
- ⑤ 農村指導와 農民과의 意思傳達
- ⑥ 農村指導事業分野 討論

主題發表 및 討議：國際協力 分野

1.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開發途上國間の 國際協力 強化

金 東 熙

단국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發展 및 農村開發에 대한 挑戰
3.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을 위한 相互協力分野
4. 맺는 말

머 리 말

世界人口의 2 / 3 이상은,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의 解放이 대다수 주민을 위한 제 1의 當面目標가 되고 있는 低開發地域에서 살고 있다. 또 이러한 지역에 있어 가난한 人口의 대다수는 農村에 거주하고 있으며 農業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오늘날 世界人類는 이 地球上에서 굶주림과 가난을 몰아내기에 필요한 技術的, 財政的 手段을 歷史上 그 어느때 보다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사이에 生活水準의 顯격한 不均衡 狀態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南쪽의 開發途上國들의 일부 지역에서는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한 狀態로 蔓延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UNICEF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1978년 한 해에만 5세 미만의 어린이 1,200 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는 西歐式的 産業化가 그 첩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農村部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工業化와 都市開發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왔다. 그 결과, 離農現象이 도처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農村에서 都市部門으로의 資本移動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離農을 통하여 농촌의 剩餘勞動力이 生産的인 새로운 産業에 의하여 원활히 흡수되는 한, 經濟開發의 初期段階에서 農業部門은 農產物市場 擴大, 製造된 農資材의 供給增加와 營農規模擴大가 가능해짐으로써 農業生産性を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당수의 開發途上國들은 경제도약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政治的, 經濟的인 相互依存性이 더욱 더 확대되어 감에 따라 南쪽의 개발도상국들의 農業開發의 과제는 互惠의 원칙에 입각한 國際的 經濟協力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최근까지 國際經濟協力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南北問題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開發途上國間의 보다 밀접한 협력체제의 必要性은 정치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經濟 및 農村開發에 있어서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南北關係의 본질과 農村開發과 관련된 세계경제의 실상을 좀더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發展 및 農村開發에 대한 挑戰

돌이켜보면 第2次大戰 이후 1973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世界經濟는 成長率과 貿易去來의 伸張에 있어서 전례없는 황금기를 누려 왔다. 즉, 세계의 産業生産은 연평균 약 3.5%의 증가율을 보여 왔고, 貿易去來量 역시 연평균 약 8%씩 신장하였다. 그리고 世界産業生産高는 연 3% 가까이 성장을 보여 왔으며, 개발도상국도 이러한 제성과의 혜택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들 개발도상국들의 國民所得은 연평균 5%씩, 1인당 國民所得은 2.5

%의 成長率을 보였던 바, 이는 19세기나 금세기 전반에 金일의 先進諸國들이 이룩한 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이다. 특히, 開途國의 工業生産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7%의 성장을 보였지만, 食糧生産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人口와 所得效果로 인하여 3% 이상씩 증가한 食糧需要에 따르지 못하고 겨우 3% 미만의 증가율에 머물렀다.

이러한 食糧不足 현상은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일련의 다른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많은 開途國들은 경제개발의 初期段階에서 工業化를 촉진하고 동시에 심화하는 식량부족 사태에 대처해야 할 어려운問題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73년 에너지波動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國際經濟狀況이 開途國經濟에 비교적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4년 이래, 世界經濟는 심각한 경기후퇴와 그에 따른 貿易去來의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開途國經濟는 先進工業國들로부터 資本을 도입하고 그들 市場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점점 거센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先進國의 技術革新과 物質經濟의 변화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반면에 開途國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의 期待와 慾望이 경제능력의 成長을 앞질러 가는 상반되는 狀況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世界經濟秩序를 변화시킬 必要性에 관한 명확한 理解와 行動意志가 결여된 것 같이 보인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전례없는 好況期에서조차도 그들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援助(즉, 국민소득의 0.7% 이상)을 제공하려 하지도 않았다.

北쪽의 先進國들은 이제까지 南쪽의 開途國들에 대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 및 技術情報 등을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開途國으로부터 一次產品과 공업제품을 보다 많이 수입하도록 市場을 開放하는 데에는 계속 주저하여 왔다. 이러한 수입상품들이란 다름아닌 先進國들로부터 도입한 資本과 技術을 밀천으로 하여 생산해 낸 것들이다.

만약 開途國들이 借款을 도입하여 아무런 償還手段(外貨)를 창출할 수 없는 산업에만 투자하고 만다면, 이러한 開發借款은 借入國의 外債만 누

表 1 全開途國에 대한 資金流入純額, 1) 1970~90

단위 : 10億 달러 (경상가격)

區 分	1970	1980	1982	1990 年 예 측	
				低 位	高 位
公共移轉	1.2	12.1	13.6	28.3	32.7
民間直接投資	2.5	11.8	15.8	19.4	24.4
中期性, 長期性借款	9.1	57.3	81.0	99.2	151.1
合 計	12.8	81.2	110.4	146.9	208.2
合計 (1980 年價格)	32.7	81.2	102.5	82.1	116.3
輸出純額	- 8.5	- 59.1	- 75.8	- 61.3	- 110.0
經常國際收支 ²⁾	- 10.9	- 75.0	- 109.2	- 124.5	- 182.7
公共開發援助純額 ³⁾	4.1	22.8	25.8	53.6	65.7
外債殘高	63.7	445.2	597.6	1,287.0	1,450.0

1) 中共은 除外.

2) 公共移轉額 除外.

3) 讓與的 公共借款 및 公共移轉純額의 合計.

資料 :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증시키고 말 것이다. <表 1>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開途國들이 지고 있는 外債의 총액은 1982년에 거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그 액수가 倍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각컨대, 開途國들은 先進國들과 貿易去來를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外貨를 벌어들이지 않고서는 外債를 상환할 방도를 찾지 못할 것 같다. 사실 先進國 전체의 工產品輸入 가운데 低開發國들의 市場占有率은 여전히 낮으며, 1980년에는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先進國들의 工產品 총소비량에 대하여 開途國으로부터 수입한 工產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내외로 추정된다.

南쪽의 開途國들은 사실 여러 가지 方法으로 先進國經濟의 發展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高價의 商品 및 資本의 수출시장을 확장시켜 주고 있으며, 先進國의 인플레이抑制에 도움을 주는 低價의 工產品 및 값싼 一次產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高度技術時代에 이르러서는 先進國들의 經濟

的 繁榮이 開途國經濟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끔 된 것 같다. 왜냐하면 化學技術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尖端技術이 발달함으로써 후진국들의 노동집약적인 產業들의 比較優位性을 감퇴시키고 종래 이들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상당히 自體生産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進國 사람들은 先進國經濟에 유익한 것은 궁극적으로 開途國들에게도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國際的 餘澤經濟哲學 (trickle-down philosophy)을 편법으로 가질 수 있다. 또 일부 開途國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餘澤經濟效果를 얻기를 바라면서 先進國들의 경제회복만을 기다려 보자는 態度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는 단지 근거가 박약한 희망일 뿐이며, 만약 이러한 사고를 따른다고 하면 關聯國家들의 經濟政策과 企業活動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近年에 와서 케네디 라운드, 東京라운드와 같은 世界貿易을 촉진시키고자 한 일련의 노력이 先進國 主導下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多國間 무역협상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開導國들의 利害에 관하여 差別的으로 대하려는 先進國들의 態度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東京라운드에 있어서 先進國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품목에 대한 關稅引下率은 33 %인데 비하여, 開途國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품목의 關稅引下率은 25 %에 불과하였다. 더우기, 선진국가들이 開途國으로부터의 農產物과 工產品 輸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規制措置가 확산되어갈 추세에 있는 바, 한 예로서 최근 多種類섬유협정下에 低開發國家로부터의 섬유류와 의류수입에 대하여 포괄적인 輸入쿼타制度를 적용하고 있다.

北쪽의 선진국들의 言論이 低開發國家로부터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農產物과 값싼 工產品의 흐름을 일종의 「범람상태」로 계속 보도하거나 開途國들의 新興產業들이 그들 產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내린다면, 低開發國에 대하여 매우 不公平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산업들이 開發途上國市場에 얼마나 큰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지의 사실

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經濟는 開途國들이 商品을 輸出함으로써 더 많은 外貨를 벌도록 도와 주지 않는 한, 개도국들에 대한 그들의 輸出高를 증대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石油를 제외한 광산물과 農産物의 世界輸出量의 약 60 %는 第三世界 國家들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國民所得과 外貨稼得額은 一次產品의 交易條件과 輸出規模에 의하여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第三世界에 있어서 食品産業을 포함한 近代의 産業開發에 多國籍企業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되어 왔다. 물론 이것은 部分的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多國籍企業들이 많은 分野에서 활약하고 있는 國家들의 경제는 이들 企業들이 어떠한 經營 내지는 貿易政策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汎世界的 繁榮을 위한 균형발전과 모든 국민들간의 世界的인 和合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第三世界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제안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배경을 좀더 明確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79 년 國際聯合食糧委員會의 보고서에 의하면, 第三世界에는 약 8 억에 이르는 貧困人口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또 적절한 食糧供給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饑餓를 하루 빨리 추방해야 한다는 문제는 世界經濟體制에 대한 하나의 挑戰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는 各國別 政策과 國際的 政策이 相互補完의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世界食糧生産이 적절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1970 년대 초반에 겪었던 食糧波動의 회오리는 다시 되풀이될 可能性이 있다. 만약 그러한 食糧危機가 다시 발생한다면 食糧을 수입하는 第三世界の 低所得層과 農村貧民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1970 년대에 低所得 開途國의 1인당 穀物生産은 <表 2>에 나타나 있듯이 감소하였다. <表 2>에 의하면, 1970 년대 低所得 開途國의 1인당 穀物消費는 世界 평균의 약 60 %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改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70 년대 초반의 食糧危機에 앞서서, 많은 開途國들은 工業化에만 주

表 2 1인당 穀物消費量 및 生産量の 變化率 比較

단위 : kg, %

區 分	1인당 穀物消費量			1인당 穀物生産量 年增加率 1970~80
	1970 ~ 1973	1976 ~ 1979	年平均 增加率	
全 世 界	342.8	362.1	0.9	0.5
開 途 國	229.7	239.9	0.7	0.4
低 所 得 國	202.7	202.4	0.0	- 0.3
사하라以南아프리카	151.9	141.3	- 1.2	- 1.1 ¹⁾
東 아시아	211.8	213.5	0.2	0.0
中位所得國	255.6	275.7	1.3	0.9
사하라以南아프리카	150.0	148.5	- 0.2	na ²⁾
東 아시아	271.2	282.7	0.7	na
中南美	244.0	249.1	0.3	0.6
南歐, 北아프리카, 中東	441.0	495.8	2.0	na

1) 아프리카

2) 求하지 못함.

資料 : FAO와 世界銀行의 *World Development Report*, 1981, 1982 에서 인용.

력함으로써 農業開發이 갖는 補完的 諸機能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農業部門을 경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 도처에서 農村發展이 아니라 農村經濟의 停滯를 초래한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經濟開發과 國民福祉向上을 위하여 農業의 역할과 農民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관하여 開途國들의 정책결정자간에 충분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식량생산과 消費趨勢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開途國의 食糧不足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穀物과 畜産物을 輸出할 수 있는 國家들은 주로 北美, 大洋洲,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共同體 (EC)等地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食糧不足國家에서 食糧生産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이러한 食糧輸出國에 대한 低開發國의 食糧依存度는 장차 증대하게 될 것이다.

低所得國들은 그들의 食糧生産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外部援助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農業에 대한 공공개발원조 규모는 <表 3>에 나타나 있듯이, 겨우 10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며, 그중 1/3 정도가 最貧國들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經濟 및 技術 援助額은 低所得國家에 있어서 食糧生産増大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表 3 農業部門에 대한 公共援助(約定), 1978~80

단위 : 1979年價格, 100萬달러

項 目	1978	1979	1980
公共開發援助			
DAC ¹⁾	3,633	4,304	3,773
多國間機關	2,761	2,503	2,969
OPEC	307	243	179
計	6,701	7,050	6,921
其他公式援助			
DAC ¹⁾	403	329	222
多國間機關	3,275	2,319	2,621
OPEC	49	99	48
計	3,727	2,747	2,891
合 計	10,428	9,797	9,812

1)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

資料 :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우리가 만약 開發의 第一目標을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諸生産資源과 人間의 潛在力을 활용함으로써 自己성취와 創造의인 협력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¹⁾ 가난한 農村人力과 農村女性人力도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農業生産성과 農村福祉와 관련된 제반 農村制

1 국제개발 문제에 관한 獨立委員會, *North-South : A Programme for Survival*, 1980.

도와 下部構造를 개선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지체없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世界經濟秩序의 성격과 工業國들의 정책적 制約으로 말미암아, 開途國들은 經濟成長과 農村開發에 필요한 보다 現實的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世界的인 問題의 제원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互惠의 원칙을 지킨다는 자세로 第三世界의 나라들이 相互間에 보다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北쪽의 先進國들도 道德的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지와 원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을 위한 相互協力分野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開途國 相互間에 經濟的, 技術的 協力을 할 수 있는 機會는 많이 있다. 국제적 共同努力이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機會를 살리기 위하여는, 먼저 現代社會의 諸制度와 우리들의 心理에 基本的인 變化를 가져오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新國際經濟秩序는 그를 실현시키는 主體로서 새로운 哲學과 폭넓은 眼目을 갖춘 人間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潛在能力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開發過程을 요구하고 있다. 開途國間の 새로운 經濟秩序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첫째, 開途國間の 貿易去來를 확장하고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農產物交易條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協力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開途國들은 個別商品市場의 전망에 대한 제반 情報를 서로 교환하고, 가능한 한 世界市場의 需給에 있어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로 협조하여 각국의 생산 및 무역정책을 통합,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開途國들은 農業 및 農村開發計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서로 활발히 교환하도록 촉진하여야 한

다. 公共研究機關들은 農業, 에너지, 土木工學, 農村工業, 여타의 下部構造 등에 관하여 農村開發에 적용될 수 있는 技術과 제반 資料를 교환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세째, 開途國들은 灌溉 및 河川유역개발과 같은 2個國 이상이 관련된 地域的 農業資源開發事業, 이를테면 인도차이나의 메콩江 流域開發事業과 같은 大規模事業을 촉진시켜야 하며, 그러한 프로젝트의 財政的인 보조를 계획하고 조달함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네째, 食糧確保를 위하여는 食糧非常事態에 대비한 共同穀物備蓄計劃이 모든 당사국들에 대하여 유익한 것이다. 1974년 世界食糧會議가 로마에서 개최된 이래, 食糧穀物備蓄을 위한 汎世界的 計劃案은 많은 會議를 가졌으나 아직껏 아무런 結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汎世界的인 計劃 대신에 穀物備蓄을 위한 地域的 計劃이 보다 實現性이 있어 關係國間에 받아들여질 可能性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맺 는 말

아시아, 아프리카의 開途國들은 날로 증가하는 不確實性和 科學과 技術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그들의 經濟를 보다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問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굶주림, 貧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機會와 物質의 手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國民과 國民間에, 國家와 國家間에 人類全體의 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相互信賴와 協助精神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맺는 말에 대신하여 빌리 브란트(前 西獨首相)의 *North-South*란 책 서두에 쓴 귀절을 인용코자 한다.

“貧國과 富國을 나누는 어렵고도 까다로운 주제들은 偏見이나 希望의 人 思考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世界의 위태로운 긴장상태를 克服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나라들, 아니 무엇보다 우선적

으로 全人類를 위하여 意味있고 有益한 結果를 가져오겠다는 굳은 意志力에 의해서만 解決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국제개발 문제를 위한 獨立委員會, *North - South : A Programme for Survival*, 1980.

ILO, *Employment Trade and North - South Cooperation*, 1981.

FAO, *Declaration of Principles and Programme of Action*, WCARRD 보고, 1979.

世界銀行, *World Development Report*, 1981, 1982.

콜롬보計劃局,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Colombo Plan*, 1979.

主題發表 및 討議：國際協力 分野

2. 農村開發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討論을 위한 爭點

수레쉬 D. 텐둘카르

印度 델리大學 經濟學 教授

1. 農村開發에 있어서 國際協力の 理論的 根據와 範圍
2. 農村開發의 概念, 意味 및 制約
3. 農村開發의 經濟的 次元
4. 農村開發의 社會的 次元
5. 結論과 討論을 위한 爭點들

農村開發에 있어서 國際協力の 理論的 根據와 範圍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農村開發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거 30 년간의 經濟開發 經驗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향을 나타내 왔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향이란 첫째, 대규모 産業化에로의 치중은 농촌에 대한 相對的인 소홀함을 낳았으며, 그로 인하여 야기된 도시와 농촌간의 生活水準 隔差의 증가, 둘째, 생산품 소유, 就業機會 및 소득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분배 그리고 농촌 인구의 감소 등에 의한 농촌의 貧困化, 세째, 대규모의 離農 인구를 더 이상 産業部門에서 흡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야기된 都市貧困化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향들은 農業部門의 광범위하고도 전반적인 개발에 의해서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상당한 合意가 이루어져 왔다. 이 合意는 農村社會構造의 再編成과 농촌경제의 再建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活性化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自然資源에 대한 人口의 壓迫, 농촌의 제도적인 구조의 硬直性 그리고 落後된 技術 등은 자원의 低生産性을 초래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시하여야 할 점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農村再建 문제는 그 성격상 현재의 先進國들이 과거에 직면했었던 문제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농촌사회의 문화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接近方法 그리고 그러한 接近方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 등은 개발도상국가들간에 많은 類似性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보다는 다른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간에 농촌 및 농업개발 분야에 있어서 經濟的 技術的 協力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범위는, 국가들마다 經濟成長率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개발과정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 이러한 과정을 制約하는 變數에 있어서도 유사한 개발도상국들간에 조정할 문제다.

AARRO 회원국들의 경제적인 特性들은 다음과 같다.

(1) 21 個國 가운데 11 개국은 1980 년 현재, 總勞動人口 중 農業勞動人口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를 초과하였으며, 總人口 중 農業人口가 60 %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21 개 회원국의 總人口 중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11 개국들은 그 性格上 壓倒的으로 農業的·農村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나머지 국가들은 1 개국만 제외하고, 總勞動力에서의 農業勞動力과 總人口 중에서의 農業人口가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비교적 선진화된 2 개국, 즉 韓國과 日本은 그 성격상 뚜렷이 農業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도 農業人口密度(耕地面積當 農業人口 혹은 農業勞動力으로 나타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발도상국들간의 開發速度(1인당 GNP의 成長率로 측정)는 각기 다르지만, 회원국들간에 그렇게 심한 不一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樣相들이 農業 및 農村開發에 있어서 상호 이익을 얻고자 하는 AARRO 회원국간의 相互協力範圍를 명확하게 설정해 줄 것이다.

農村開發의 概念, 意味 및 制約

農村開發이라는 概念이 農村住民들의 生活水準 전반에 걸쳐 일련의 長期的인 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定義될 때 農村地域에 있어서 資源生産性的의 지속적 向上이란 단지 農村開發의 必要條件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充分條件이 되기 위해서는 生産性的의 향상으로부터 나오는 收益이 경제적 下部階層에까지 골고루 미쳐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는 농촌개발의 최우선 순위를 농촌의 極貧者를 구제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농촌개발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때때로 集團的인 행동이나 정부의 干與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農村開發 과정이 선진국들이 겪었던 농촌개발과 상당한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에 있어서의 농촌개발은, 意識的인 집단적 노력이나 正常市場에의 압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自然的이고도 自發的인 분위기에서 성숙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獨創力이나 市場力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과정에 있어서 집단적인 노력과 정부 개입이라는 附加的인 次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人的 物的(특히 土地와 水資源) 資源의 개발은 농촌개발의 核心이 되는 바, 이것은 공평한 分配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강조는 새로운 에너지資源의 개발과 再生可能한 資源의 개발을 가져 올 수 있는 데, 이는 慣習的으로 石油에 기초한 投入物의 費用上昇이 土地生産性を 감소시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對應策이 된다.

요약하면, 농촌개발에 대한 어떠한 戰略도 첫째, 공평한 분배에 역점을 둔 農村資源 개발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둘째, 市場力, 個人的 獨創力 등

과 집단적인 共同體的 노력과 政府干與 등을 서로 연결시켜야 하며, 세제, 에너지危機에 따른 制約條件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農村再建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의 주요 문제들인 食糧, 營養狀態, 旱魃, 健康, 失業, 不均衡成長 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本稿는 위에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주로 國際協力分野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농촌개발과정은 經濟的인 차원뿐만 아니라 社會的인 차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양상도 이 兩次元에서 相互調整方式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인 차원은 농촌의 人的 物的 資源의 生産性を 提高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構造와 制度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또 사회적인 차원은 농촌부문에서 성장의 潛在力을 충분히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制度와 態度 등에 있어서의 변화 등을 망라하고 있다.

農村開發의 經濟的 次元

논의의 便宜를 위하여 농촌개발의 경제적 차원을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큰 範疇로 나누고자 한다.

- (1) 農村資源의 效果的인 利用 및 生産性 提高를 위한 사업
- (2) 貧困層의 경제적 生活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3) 保健, 衛生 등과 같은 사회적인 公共 서서비스를 통하여 농촌주민의 生活環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첫번째 範疇의 事業은 전반적인 經濟成長을 指向하고, 그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革新을 포함하며, 두번째 範疇의 사업은 특별히 貧困層만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두 범주는 모든 農家の 生産性を 증가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번째 範疇는 농촌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農村資源의 효과적인 利用 및 生産性 提高를 위한 事業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農業部門의 技術分野
- ② 농촌의 非農業部門의 技術分野
- ③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利用技術分野
- ④ 기술변화에 따른 經濟成長의 收益을 擴散시키기 위한 制度의 革新分野
- ⑤ 生態學的인 不均衡의 調整을 위한 地域開發 分野
- ⑥ 기술 혁신에 대한 農村指導事業 分野

1) 農業部門의 技術分野

이 분야는 穀物生産, 家畜, 林業, 漁業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稀少資源의 生産성을 提高시키기 위한 기술 변화란,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성장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推進力이 된다.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주요 資源은 土地, 水資源 그리고 勞動力 등이다. 아시아에서 人口過密國家들(예: 印度)은 토지의 부족이 심각한 반면, 人口過疎國家들은 노동력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집단중 어느 한 쪽에 속하게 되는 모든 국가들은 모두 이같은 문제에 직면한 자원의 生産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技術開發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일반적인 유형은, 前者와 같은 경우 土地擴大와 같은 生物學的 化學的 과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는 勞動力 節約이라는 機械的인 과정을 指向해야 한다.

토지가 부족한 국가들간의 효과적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多收穫인 동시에 生育期間이 짧은 品種의 개발 연구
- ② 相異한 農業 氣候條件에 알맞는 品種 개발 연구
- ③ 相異한 농업 조건에서 單位 栽培面積當 수확을 최대화 하기 위한 일련의 補助的 投入物(水資源, 多收穫品種, 肥料, 殺虫劑, 除草劑 등)에 대한 연구

④ 耕地利用率을 극대화하고 그 결과 單位 播種面積當의 總收穫量을 최대화 하기 위한 土壤保全, 用水管理, 輪作 등에 관한 연구

國際研究機關과 여러 국가들의 많은 農科大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林業, 漁業 그리고 牧畜業 등과 같은 농업관련 부문들도 전반적인 농업개발과 특히 雇傭增大效果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연구와 협력이 期待되고 있다.

- ⑤ 相異한 환경에 적합하고, 繁殖力이 강한 家畜들에 대한 연구
- ⑥ 畜產物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한 家畜飼料用 草地開發 연구
- ⑦ 가축을 효율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醫療서비스 系統體制의 개발
- ⑧ 山林伐採와 荒廢化를 막기 위한 立法措置를 포함한 사회적인 山林計劃

2) 농촌의 非農業部門의 技術分野

이 분야에는 商品生産과 서어비스와 같은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後進農業地域 뿐만 아니라 先進農業地域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며 특히 人口過密國家들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傳統的인 기술과 서어비스業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생산물과 서어비스의 낮은 成長率로 말미암아 농촌지역의 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對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技術向上에 있다. 이러한 기술향상을 통해서만이, 농촌지역의 需要에 맞추어 상품과 서어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로부터 공급되는 상품과 對等하게 競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회원국들은 이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자들에 대한 새로운 流通體系의 敎育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3)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資源의 利用技術分野

얼마 전에 閉會된 「世界 에너지 會議」의 결과 傳統的인 燃料의 부족과 그에 따른 商業的 연료 費用의 상대적인 上昇 등은 “燃料危機”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燃料危機”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燃料危機”는 궁극적으로 산림벌채와 황폐화를 초래하였으며 농촌 생산성의 低下와 生態學的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에너지資源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 이것은 그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土地評價와 많은 技術者, 職工, 弘報要員, 農民 및 消費者들에 대한 특별한 훈련 등을 필요로 한다.

(2) 전통적인 연료로 인식되어 온 석유와 개스를 다른 에너지資源 (석유나 개스보다는 熱容量이 낮음)으로 代替시키는 데 따른 사회적 損益分析: 이러한 代替는 에너지의 效率性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의 自給自足, 供給安定, 支拂均衡의 改善, 雇傭 創出 및 關聯產業 開發 등과 같은 궁극적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4) 技術變化에 따른 經濟成長의 收益을 擴散시키기 위한 制度의 革新分野

이 제도적 혁신은, 경제성장을 促進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적 혁신에 대한 협력이 요청되는 經濟分野는 다음과 같다.

(1) 信用制度 : 物的 投入物의 조달과 생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신용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몇몇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의 出資資產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더욱 성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회원국들이 경제적 정치적 權力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 효율적인 管理技術의 採擇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信用制度의 成功的인 要因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失敗로 이끄는 상황에 대한 연구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地域開發計劃 : 이는 농촌의 下部構造開發에 大衆의 參與를 유도하고자 시도되는 것이다. 이 지역개발계획은 농촌경제를 다양화시키고, 農水產物의 생산확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 土地制度改革 : 이는 富와 농업생산물의 再構造化를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어 왔다. 이 土地制度 개혁은 寄生地主의 廢止와 地代 감소, 賃借期間 再調整, 小作人 保護 및 土地再分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은 농업부문의 效率性和 生産性を 向上 維持시키는 데 있다. 이 토지 제도의 개혁이 농촌개발과 일반적인 산업개발의 균형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韓國과 臺灣의 개발경험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5) 生態學的 不均衡의 調整을 위한 地域開發分野

印度는 지난 70년대초부터 두 가지의 특별한 지역개발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旱魃常習地域開發事業 (DPAP : Drought Prone Areas Programme) 으로 이것의 목적은 旱魃常習 지역에서 토지, 물, 가축 및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科學과 技術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參考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旱魃常習地域을 확인하고, 그 상황만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업은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灌溉開發, 造林, 作物栽培類型의 再構成, 草地開發 등을 통하여 生態學的 均衡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토지와 물에 대한 개발사업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는 사막지대 개발사업 (DDP : Desert Development Programme) 으로서 이 사업도 有用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하여, 주민들의 生産性과 所得水準, 그리고 고용기회를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막지대 개발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援助事業을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荒廢化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① 造林, 草地開發, 모래 언덕의 平坦化
- ② 地下水 開發
- ③ 貯水池의 建設
- ④ 電化사업
- ⑤ 농업, 園藝, 家畜飼育, 酪農業 그리고 養蠶業의 開發 등이 그것이다.

6) 技術革新에 대한 農村指導事業 分野

이것은 弘報를 비롯한 제반 傳達方式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

술을 보급시킴으로써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主題에 대한 논의는 본 회의의 전반부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서는 重複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技術普及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傳達體系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傳達體系는 첫째, 개인적인 獨創力, 둘째, 政府次元의 채널, 셋째, 非公式의인 地域組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貧困層의 經濟的 生活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事業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成長指向의인 사업들은, 그 성장의 혜택을 下層에까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하층계급들은 數的인 면에 있어서 단연 우세하면서도 항상 경제개발에 있어서 “限界的”(marginal)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이들의 경제적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다.

(1) “위에서 아래로”라는 下向式 政府主導型 사업

(가) 自家 雇傭機會 擴大사업

(나) 賃金 雇傭機會 擴大사업

(2) 貧困層을 위한 社會團體들의 사업 : 이는 非公式의 사회단체들이 실시하는 “빈곤층의 組織化” 사업으로서, 집단적으로 조직된 행동을 통하여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下向式 政府主導型 事業

가) 自家雇傭機會 확대사업

이 사업은 빈곤층을 開發對象으로 限定하여 政府 채널을 통하여 실시된다. 일반적인 경제개발계획은 기존의 不公正한 사회 경제적 權力構造에 의한 사회 경제적 제도를 통하여 실시되므로, 빈곤층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特別教育을 받은 要員과 開發對象임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과 제도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印度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대상체의 확인범위를 個人 單位에서 그 家族 혹은 家口 단위로 확대했다. 이 계획은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自家雇傭機會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능력을 증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自家雇傭機會의 확대는 기존의 資產을 소유한 家口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자산이 없는 빈곤층들에게 새로운 자산을 移轉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自家雇傭機會 擴大方案은 기술향상과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채택은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職業轉換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은 기술향상이나 또는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特惠나 補助價格들을 支援해 준다.

印度에서의 초기의 開發對象體들을 위한 많은 계획들은 綜合農村開發事業 (IRDP :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文字 그대로 이 종합개발사업은 여러 차원에 있어서의 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농가를 위한 信用貸付 사업으로서, 多目的이고도 長期間의 信用을 貸付해 주었다. 둘째로는 지역 단위의 脆弱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째는 기술적인 서비스와 생산과정에 있어서 다른 관련부분과 信用統合함으로써 名目所得에 따른 實質所得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小區域, 地域, 州 등의 여러 정부 차원의 相互協力을 요구하고, 政府 行政과 制度 사이의 긴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개발 대상체를 위한 이같은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빈곤층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합한 技術
- ② 專門的인 管理運營
- ③ 社會的 葛藤을 야기시키는 기존의 資產을 再配分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인 뒷받침
- ④ 財政 制度의 整備

⑤ 계획의 公正하고도 自律的인 조정을 위한 合理的인 조직의 설치

⑥ 계획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대담한 推進力을 지닐 수 있는 最高 官僚들의 訓練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集中될 때,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賃金雇傭機會 확대사업

資産없이 賃金收入에 의존하는 家口들이 빈곤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 상당히 流動的이고 不確實하며 支拂되는 賃금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력에 비해 資本과 自然資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資産移轉計劃에 대한 展望은 限定的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소득에 의지하는 빈곤한 가구들에게 높은 임금률의 고용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自由市場의 原理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고용기회와 賃金上昇을 위해서는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하고,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印度에서의 政府主導型 賃金雇傭機會 擴大 사업(勞動 - 食糧사업 : Food for Works Programme, 혹은 全國農村 雇傭사업 : National Rural Employment Programme)은 지역사회의 共同資産을 만들기 위하여, 農閑期 동안의 고용기회 提供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雇傭과 失業에 관한 標本調査에 의하면, 農家口들이 얻고자 하는 고용기회는 位置, 時間, 開發對象體의 特性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건들이 만족한 후에야 公共事業이 그러한 고용기회를 원하는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끔 資産의 생산성이나 다른 일반 개발분야의 희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投資에 있어서의 賃金費用의 壓迫은 資産形成에 逆效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하여 형성된 고용기회들은 全國에 散在해 있게 됨으로써 조직적 행정적인 부담을 주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民主的인 制度下에서 광범위한 資産移轉計劃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인 制限이 가해진다면,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임금 고용계획에 대한 사회적인 壓力이 주어

질 것이다.

몇몇 分析家들은 위와 같은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켜 開發效果를 최대로 하는 동시에, 低賃金이기는 하지만 年中 끊임없이 고용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대규모 公共事業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긴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貧困層을 위한 社會團體들의 事業

여러 非公式的인 社會活動團體들은 빈곤층을 조직화하려 하고 있다. 이들의 조직의 類型을 多樣化시키고, 外部의 活動家들을 맞아들이고, 지역적인 特殊性을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문제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활동 단체들의 목적은 단순히 빈곤층의 經濟的 生存能力만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 안에서 그들의 位置와, 어떻게 하면 集團行動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그들의 利益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 단체들의 活動領域은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部門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인 부문은 기존 社會構造내의 態度, 信念, 葛藤의 形成要因들의 변화문제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하기가 어렵고, 보다 느린 變化過程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성공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책임을 부여받은 社會事業家들이 現地に 머무르면서, 組織을 이용하여 현지의 脆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발 대상체의 능력을 고려한 개발 전략을 樹立 改善하여 현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각 지방의 自體 指導力を 개발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외부의 도움없이 지역 자체만의 노력으로도 개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措置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전혀 전환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貧困層의 生活水準이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개혁을 불러 일으켜, 빈곤층을 위한 조직들이 계속 설립되었다. 또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직들은, 政府主導型 制度的 개혁을 擔當했던 地域開發機構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역개발 기구의 초점은 下部構造 개발에 있어서 전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었던 반면, 사회 단체들의 초점은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취약 부문에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적인 노력이 아무 곳에서나 뜻대로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적인 태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온 이러한 조직적인 노력의 類型과 그 機構들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좋은 示唆點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또 이 機構들은 정부주도형 계획의 실시 결과 생기는 이익을 그 成員들(開發對象體인 貧困層)에게 보장해 주고, 그 이익이 非開發對象體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인 媒介者로서의 역할도 했다.

다. 農村住民의 生活環境 개선을 위한 사업

이 사업에는 國民學校, 技術學校, 成人學校, 保健, 衛生, 食水供給, 營養供給 등을 위한 사회적 서어비스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保健診療는 이러한 사회적 서어비스 體系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서어비스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環境衛生, 안전한 食水供給, 豫防醫學, 營養供給 그리고 家庭福祉計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서어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印度에서는 1970年代 초반 ‘最低社會保障事業’이 실시되어 國民學校 新設, 農村保健, 農業用水供給, 農路, 農村電化사업, 無住宅 농민에 대한 住宅 補助, 營養供給 등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基準을 설정했다. 1970년대말에는 成人教育도 이 항목들에 첨가되었다. 이 계획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위에 언급한 사회적 서어비스들에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분은 쏠

國적으로 균형있고 생활에 필수적인 서어비스網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계획은 “만일 모든 국민의 이같은 사회적 서어비스에 대한 欲求가 충족된다면, 빈곤층도 자연히 사회적 서어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前提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빈곤층의 生活環境을 개선하고 다시 그들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계획들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국제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회적 서어비스의 技術과 傳達體系分野: 이는 각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생산과 사회적 서어비스의 분배에 受惠者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서어비스간의 효과적인 組織 方案: 이렇게 함으로써 서어비스 요소들을 완전하게 개발하고, 그들의 효과를 最大로 할 수 있다.

農村開發의 社會的 次元

生産性 향상에 따른 기술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개발의 潛在力을 創出해 내는 原動力이 된다. 이러한 潛在力의 완전한 실현은 때때로 사회제도와 價值觀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한다. 예를 들면, 농업에 있어서 어떤 資本主義 이전의 소유관계가 농업의 기술적인 변화에 障礙가 된다면, 이러한 관계의 개혁은 농촌개발을 위한 前提條件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階層體系가 社會階層의 移動을 저해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적 성장의 이익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社會構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移動耕作을 하는 遊牧民의 生活方式로부터 보다 안정된 收穫을 얻을 수 있는 農業爲主의 生活方式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적인 緊張과 葛藤으로 인한 社會制度, 社會構造, 價值觀 등의 변화는 실로 어렵고도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社

會工學的인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混亂이나 정치적인 激變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非經濟的인 사회적 변화의 速度와 性格은 각기 특수한 사회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다르다. 앞에 언급한 경제적 차원 하의 모든 주요한 변화는 사회생활의 양식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이와 관련된 각국의 경험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의 사회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확일적으로 논의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經驗 交換이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經濟的 合理性에 입각한 利益創出이 社會的 宗教的인 信念과 상반될 경우, 이익 창출이 優先視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傳統的인 生産方式보다 훨씬 收益性이 높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이 기존의 사회적 종교적 신념과 葛藤을 야기시키는 예는 牧畜業에 있어서의 人工受精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인 信念을 버리도록 하고, 점차 이러한 확산은 경제적 비경제적인 誘因에 의해 기술혁신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용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또 한 가지 경험은 효율적인 用水管理는 물을 관리하는 제도들의 속성 및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水資源을 이용하는 데 강력한 形式主義가 존재하고, 또 물의 割當과 所得分配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市場調節 機能만으로는 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地域社會組織이나 中央集權 官僚制度 등이 물분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처럼 집단적인 조직 형태들을 灌溉體系의 특성과 규모에 관련시켜, 농업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의 相互作用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組織形態들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조정들이 집단의 생존과 개선을 위해 얼마나 強制性을 띠는 것인지, 그리고 그 조정이 어떤 정책들에 의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하는 것 등은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용한 指針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과거에 그들의 階級, 信條, 피부색 때문에, 사회적으로 差別받았던 집단들에 대한 정책이다. 이는 法體系, 教育制度 그리고 政府內에서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政策意思決定制度나 經濟開發 등에 그들을 참여시켜, 그들로 하여금 經營規模에 따라 그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差別集團에 대한 정책의 有效性和 그 정책들이 社會構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結論과 討論을 위한 爭點들

이 글은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가간에 國際的인 協力方案을 마련해 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각 장마다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의 類似性和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接近 方法 및 相異한 接近方法의 실시 경험 등에 관하여 개발도상국가들간의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 2 장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각각의 農村開發 過程의 독특한 樣相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농촌 개발에 대한 어떠한 전략도 농촌지역의 人的 物的 資源의 일반적인 개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개발결과에 이익에 대한 공평한 分配를 강조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集團的인 地域社會의 노력 및 政府干與와 市場機能과 개인적인 創意 등을 결합시켜야 하며, 에너지危機에 의한 사회적 緊張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농촌개발 과정 가운데에서 經濟的 次元을 특히 강조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제 3 장에서 여러 範疇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社會的 次元에 대하여는 제 4 장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과 그 관련 분야에 있어서 多收穫을 위한 技術과 品種開發研

究. 여기서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多收穫 品種의 改良과 新品種 栽培에 따른 各種 技術水準, 農村의 下部構造 등이다.

(2) 農村의 非農業 部門의 生産性 向上을 위한 技術開發

(3) 새로운 에너지 資源과 再生 가능한 資源을 위한 技術開發과 代替燃料에 대한 社會的 損益分析

(4) 協同體와 地域社會 開發과 같은 制度的 革新의 分野에 있어서의 경험과 성장의 이익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한 土地改革法案과 같은 制度的 變化

(5) 사막지대와 旱魃常習地域의 生態學的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지역 개발 계획

(6) 기술의 成長潛在力을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술에 대한知識의 효과적인 傳達體系

(7) 自家雇傭을 創出하기 위한 政府主導型 計劃을 시행한 결과 얻어진 成功과 失敗談으로부터의 教訓

(8) 賃金 雇傭 創出을 위한 政府主導型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점

(9) 貧困層을 조직하는 데 社會團體들의 非公式的인 시도가, 政府主導型 事業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機構로서 얼마나 이용될 수 있는가?

(10) 사회적 서어비스 技術과 傳達體系

(11) 기술 변화에 따른 開發效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社會制度, 社會構造 및 價值觀의 變化에 대한 경험

3. 國際協力分野 討論

가. 討論그룹과 主題

그룹토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主題設定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設定된 主題에 따라 會議參席者 全員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를 가졌다.

○ 제 1 그룹

－ 토의 參席者 : Dr. H. Dawood

Mr. A. R. Mohd Nor, Mr. D. R. Nunez, Mr. B. B. Sharma, Dr. R. N. Tripathy, Mr. A. J. Kiawu, Mr. I. R. Kiiru, Mr. A. R. Soyfoo, 金東熙, 王仁權, 盧健吉, 최문희, 趙在衍, 崔洋夫

－ 討議 主題

- 開途國間의 交易增進에 관련된 문제
-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에 있어서 技術의 開發, 移轉, 適用에 關한 문제
- 生産性 增大에 따른 利益擴散을 위한 새로운 經濟體制에 關한 問 題

○ 제 2 그룹

－ 토의 참석자 : S. D. Tendulkar, Mr. J. K. Amoaku, Mr. C.

Pongsroypech, Mr. S. O. L. Amadi- Nna, Mr. A. A. Qader, Mr. C. Gamage, Mr. L. M. Feika, Mr. M. Mohamed, Dr. K. N. Singh, Mr. C. Y. Liu 董烈模, 金正龍, 姜奉淳, Mr. R. P. S. Malik.

一 토의 주제

- 生態의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地域開發 計劃
- 貧困層에 대한 事業計劃
- 教育, 保健, 家族計劃 등 社會的 서비스의 效果的 침투를 위한 비
용절감技術 및 傳達體系의 開發
- 技術變化의 성장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的 制度, 社
會構造, 態度的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험들.

나. 討論內容

開途國間の 交易增進에 관한 問題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國際收支 문제를 고려할 때 아시아·아프리카 地域 국가들의 교역 증대의 필요성은 당연하고도 강조되어야 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AARRO 워크샷은 이러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고 보며 이러한 일들은 UNCTAD와 그 상임위원회의 아시아-아프리카 地域專門家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그러나 본 회의는 개도국간의 교역이야 말로 國際協力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개발을 加速化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회의는 개도국간의 교역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들을 UNCTAD와 77그룹, 그리고 UNCTAD안에 있는 아프리카 그룹과 아시안 그룹들이 할 수 있도록 AARRO가 要請할 것을 건의하였다.

農業과 非農業 部門에 있어서 技術의 開發·移轉·適用에 관한 問題

생산성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술의 변화는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경제발전과정의 중요한 核心要素라고 인식되어 왔다. 더우기 농업과 농촌부문에 있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의 制限된 役割이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 개발도상국간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으

로 지적되었다.

본 회의는 국가별로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농업과 비농업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전 그리고 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기관들이 있으나 이러한 시험 연구 결과들이 거의 대부분 AARRO 회원국들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거나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試驗研究 結果들을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講究되기를 제안하며 그러할 경우 이것은 개도국간의 국제협력 증진에 決定的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회의는 이러한 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制約點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技術의 移轉과 適用을 擴大하는데 소요되는 財源과 制度的 裝置가 미비하다.

(2) 개도국의 기술개발은 선진국의 빠른 技術開發速度를 따라 갈 수 없으며 따라서 開發意慾이 저지되거나 대개의 경우 그들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외국기술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 기술의 實行段階에서 회원국간의 대화의 장벽

끝으로 본 회의는 기술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情報의 蒐集, 가공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특별기구를 AARRO에 설치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본 회의는 회원국들간에 多邊的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별 상호협력의 폭을 증진시키는 일에 AARRO의 役割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生産性 増大의 利益擴散을 위한 새로운 經濟體制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成長主導 技術을 널리 普及시키고 따라서 經濟成長의 利益을 널리 擴散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協同組合, 農民團體, 耕地整理 등 각종 制度의 革新 및 새로운 사업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회의는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기술의 개발, 이전 그리고 이들의 적용이라는 관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회의는 각종 制度의 革新은 그 사회의 政治 社會的 그리고 文化的인 배경에

알맞아야 된다고 보며 모든 국가의 모든 상황에 適用可能한 모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농민조직 등 制度의 革新이 특수한 여건하에서 무엇이 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요인인가? 그리고 그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각기 상이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불 패 회원국들에게 일종의 힌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가치있는 敎訓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는 經驗의 交換은 각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여건하에서 성공적이고 깊이있는 事例 研究의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전의하였다.

生態學的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地域開發計劃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사막화와 빈번한 旱魃 그리고 土壤 침식 등 공통적인 생태학적 불균형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1) 限界農地에 대한 경작 확대 (2) 循環耕作(아프리카의 일부 농지가 풍부한 지역) (3) 산림 벌채 등 인간의 힘에 의해서도 야기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같은 문제들은 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대책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찰되었다. 長期的 對策은 수자원이 발견될 수 있는 곳에서는 灌溉開發과 農業用水 管理를, 또는 주민들의 활동을 농업 관련활동으로부터의 他分野로 轉換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短期對策으로는 토양에 더 이상 손상을 주지 않고 이용가능한 土壤濕度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作目構成의 개발이다.

長期的인 對策은 旱魃의 빈도와 地表 및 地下水資源탐사에 관한 지리학적 및 기상학적 조사를 필요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기관의 원조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短期對策으로서는 耐旱性 품종의 개발과 습기보존을 위한 영농법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印度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들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도의 국립토양영분연구소(NSSC)와 국제열대준사막작물연구소(ICRISAT) 그리고 인도의 전조지 농업조정사업 등의 연구

결과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작부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유도하는 문제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농민들에 대한 補助金과 정부支援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인도의 산림정책 경험의 논의되었다. 이 산림정책은 농민들에게 습도 필요량을 극소화하고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종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윤작과 영농방법)의 교환과 전문인력의 교환 등의 국제협력이 전의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국가의 財源負擔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들로서 이를 위한 地域間 協力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책수립자들에게 環境的인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貧民層에 대한計劃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 전반적인 成長指向的 計劃들은 성장의 효과를 광범위하게 擴散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이익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경제적·사회적 취약부분을 남겨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만으로는 貧困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貧民層을 위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했다.

본 회의는 빈민층에 대한 下向式 혹은 政府主導的 計劃들을 논의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빈민가구의 顯在資産 또는 새로운 자산의 개발을 위한 信用聯關計劃, 賃金 雇傭創出을 위한 公共事業計劃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계획들이 지닌 일반적인 비능률이 인정되었다. 본 회의는 빈곤층의 集團共同活動을 통하여 빈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民間部門의 底邊 계획들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자유중국과 스리랑카의 유사한 시도가 또한 토의되었다. 본 회의는 이러한 계획들의 效率性을 極大化하기 위해 下向式 計劃들과 底邊의 貧民層의 참여를 결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같은 계획들의 심층 사례연구의 국제적인 교환이 국제협력의 제 1 단계로서 전의되었다. 이같은 국제적 교환은 제 2 단계로서 지도자와 의식화운동자들을 위한 훈련계획의 교환으로 연장될 수 있었다.

住民의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公共서비스의 提供

이 범주의 계획들은 초등교육, 기술교육, 성인교육, 보건, 위생, 상수도, 영양개선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같은 서비스의 보완이 광범하게 인정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개별적 사회 서비스와 일괄된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費用節減 기술과 傳達制度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본 회의는 사회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受惠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土着技術과 地域資産의 활용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과 이같은 서비스의 地域間 調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道路網과 通信網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保健施設과 家族計劃에 있어 경험의 교환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簡易醫療要員과 土着醫療制度 등에 관한 스리랑카의 경험, 農會의 自願奉仕者에 관한 자유중국의 경험, 가족계획에 관한 한국의 경험, 徒步거리 단위로 900 개의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가나의 경험, 지역적으로 만연하는 질병유형에 대한 기초진단 능력과 기본치료를 위한 지방민의 훈련을 추진한 인도의 경험 등이 국제적인 경험교환을 위해 거론되었다.

社會制度·構造 및 態度的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인 변화가 기본적으로 潛在的 開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힘이라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사회제도, 구조 및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사회적 개발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이같은 변화에 內在하고 있는 과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開發途上國家에 있어 社會的 制度와 態度는 經濟的 힘앞에 변화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힘 외에도 사회변화의 과정은 또한 成就動機, 認知要因 등 心理的인 요인에 影響을 받는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본 회의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大衆動員에 관련된 社會工學的 측면을 심층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단체, 교육기관, 정부주도 및 민간자원봉사노력, 현장 방문 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社會變動과정에 관한 심층사례연구의 교환은 국제협력분야에서 기본적인 단계로 건의되었다.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단계로서 본 회의는 국제협력의 沮害要因을 검토했다. 財政問題가 공통적인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國際機關의 支援이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웃 국가간의 經濟的 統合이 다른 하나의 可能性으로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가 효과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은 본국에 돌아가 본 회의에서 제안된 각 제안들을 요약하여 고위층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이 取한 建議文들이 AARRO 事務總長에게 전달될 때에 AARRO 事務總長은 이를 遂行할 것을 본 회의는 제안했다.

主題發表 및 討議：農村指導事業 分野

4. 開發途上國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成果, 그리고 戰略

王 仁 權

서울大學校 教授, Ph.D. (農業經濟學)

1. 머리말
2. 農村指導事業의 定義的 規定化
3. 農村指導事業體系의 國家的 變異
4. 農村指導事業의 役割
5. 農村指導事業의 本源的 性格
6. 農村指導事業의 成果와 拘束要因, 그리고 戰略
7. 맺는 말

머 리 말

農業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低所得國家들의 經濟部門의 主된 構成要因으로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世界銀行(World Bank)¹⁾이 列舉 지적한바 지배적으로 農業的 基盤下의 開發途上國家는 西아프리카, 東南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中立所得國家 南아시아의 작은 國家들, 시하라 砂漠以南의 低所得國家, 그리고 低位所

1)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79, p.105.

得 아시아의 人口稠密한 큰 國家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諸開發途上國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오늘날 可用的으로 되어 있는 획기적인 農業技術의 發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生存水準(subsistence level)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들 生存農民들(subsistence farmers)은 自己家族의 基本的 必要와 農業再生産을 위한 약간의 投入만을 간신히 생산하고 충족할 따름이다.

아논(I. Arnon)²이 적절하게 총괄한 바와 같이 生存農業(subsistence agriculture)은 (1) 극도로 制約的인 生産方法, 傳統的 生産方法의 사용과 生産物의 無變化性, 그리고 土地 및 勞動의 低位의 生産性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이와 같은 諸特性은 現狀을 그대로 존속시키게 마련이므로 生存農業은 단순한 生存조차도 간신히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生産만을 가능케 할 따름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이 의미있는 寄與를 하지 못한다. 이 결과 대다수의 人口가 生存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國家는 開途國이며, 따라서 必須的 내지 重要한 他自然資源을 가지고 있지 않은 國家는 필연적으로 貧困하게 마련이며, 그들의 經濟는 停滯的이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人口壓力과 이에 수반된 潛在失業은 하나의 惡循環(vicious circle)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 生存農業이 低位生産性を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이 惡循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業은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政治指導者들에 의하여 등한히 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짙은 면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 그런고 하니, 先進國은 工業化 되어 있기 때문에 一定水準의 國家發展에 도달하는 것은 기실해 있어서 一定水準의 工業化를 이룩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政治指導者들의 觀察과 結論은 개발도상국의 農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허다한 問題點에 직면하게끔 되어 있는 현실적인 知覺에 의하여 더욱더 보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緣由에서 「農業에 부여된 低位의 報酬」(the

2) I. Arnon,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Resources, Potentials and Problems, John Wiley & Sons, 1981. pp.1~4.

low reward accorded to agriculture)와 「工業의 威光的 地位」(the prestigious place of industry)라는 觀念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상이다.

그러나 國家發展 그리고 工業化의 한 前提條件으로서의 農業開發 또는 農業發展은 마땅히 기획 실천되어야만 한다. 農業部門은 開發途上國의 傳統的 經濟의 基礎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같은 基礎에 優先的 比重을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開發途上國에게 工業化에 버금가는 많은 顯在的 및 潛在的 利點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가 있다.³ 이를 보다 次元을 낮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農業은 첫째로, 食糧生産을 크게 증대 시킴으로써 급속도적으로 증가하는 人口에 대하여 量的 및 質的으로 現存의인 낮은 營養水準을 개선시켜야 하며, 둘째로, 급속도적으로 증가하는 人口에 대하여 生産的 雇傭機會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째로, 外貨稼得源으로서 輸出農產物을 생산하여야 하며, 네째로, 工業發展을 지원, 지지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⁴

Kühnen⁵이 지적한 바와 같이 「農業開發」 또는 「農業發展」(agricultural development)은 「農村開發」(rural development)의 下位概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간 農業・農村開發과의 관련에서 「새로운 技術」(innovations 또는 technological innovations)이 農家的 수준의 農業者雇傭(farmer clients)에게 移轉 傳播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農業者가 實際의인 農業經營狀況에서 새로운 技術 또는 技術革新을 적용하게끔 하기 위하여서인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새로운 農業・農村開發의 技術 또는 革新은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基礎的인 必要條件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3) 예컨대 다음을 참조할 것. Joseph Klatzmann, "Agriculture and Industry in Developing Countries", in Raanan Weitz, ed., Rur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The MIT Press, 1971, pp.113~123.

4) Arnon, op.cit., p.5.

5) Frittrjof Kühnen, "The Concept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農業經濟研究』第19輯, pp.137~146(1977).

그런데 이른바 「技術的 要因」(technology factor)은 包括的 形態이든 分離的 形態이든 간에 農業・農村開發이 조준하는 生産性이나 福祉면에서의 差異性的 한 중요한 源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諸國家에서 加增的으로 인식되고 있는 터이다. 다시 말하면, 技術的 變化(technological change)는 특히 開發途上國의 經濟的 및 社會的 條件을 改善,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中核的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命題的인 一般的 合意를 보고 있는 오늘날이다.

일찍이 Lewis⁶⁾가 매우 강조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科學的으로 開發된바 現地檢定の 潛在的 技術水準과 現實的으로 農業者가 지니고 있는 技術水準, 즉 慣行技術 또는 農家技術 사이에는 間隔 또는 開隔(gap 또는 spread)가 있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技術的 隔差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리고 加 급적으로 신속히 좁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技術的 隔差(technology gap)의 縮少化가 다름아닌 技術的 變化, 技術的 進步, 技術的 改善 등이 될 것이다. 오늘날 技術革新移轉(technology innovation transfer)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한 政策的 計劃이 農村指導事業(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이다. 그의 형태나 가능 등의 면에서 變異를 보이는 것이지만 開發途上國이거나 先進國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國家에서 이와 같은 農村指導事業은 역사적으로 農業・農村開發政策의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로 구현되어오고 있는 터이다.⁷⁾

開發途上國家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效果를 일반적인 次元에서 概觀을 꾀하는 本稿에서는 제 1 차로 農村指導事業을 극히 간명하게 定義할 것이며, 제 2 차로 開發途上國과의 관련에서이지만 個別的 國家에 따른 農村指導事業의 變異性을 음미하며, 제 3 으로 農村指導事業의 基本的 役割을 再吟味の으로 정리할 것이며, 제 4 로 특히 革新 傳

6) W. Arthur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Richard D. Irwin, 1954, p. 177.

7) 技術革新移轉, 또는 技術移轉은 技術研究開發과 흔히 對 概念的으로 論議되고 있는데 (1) 國際的인 것과 (2) 國內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바 農業分野에 관한 (2)가 바로 農村指導事業이 되는 것이다.

播理論 또는 模型(model of diffusion of innovations)에 입각하여 農村指導事業의 本源의 特性의 規定化를 꾀할 것이며, 제 5로 農村指導事業의 效果와 障害 要因 또는 拘束要因, 그리고 發展의 戰略을 기술하고자 한다

農村指導事業의 定義的 規定化

農業・農村開發을 촉진시키는 政策的 計劃을 그 형태와 규모 또는 性狀은 어떻든 간에 企劃 執行하지 않는 國家는 이 地球上에 歷史적으로나 現實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다. 單刀 直入의으로 오늘날의 農村指導事業을 보기로 한다면, 그리고 이른바, “準” 또는 “類似的” 農村指導事業(quasi-또는 like-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이 아니라 “眞” 農村指導事業(“tru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⁸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美國의 農村指導事業, 즉 「協同農村指導事業」(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 CES)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1945년의 제 2 차 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은 많은 自由陣營의 開發途上國家에 이전되어 개별적인 適應化・土着化的 과정을 경과하여 오고 있다.

協同農村指導事業은 기본적으로 말하여 農業과 生活改善 또는 家政分野를 함께 包括, 對象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非正規的이며, 學校外的이며, 實踐指向的(action-oriented)인 教育 및 傳達媒介體系라고 定義되고 있다

8) Roy 가 農業協同組合에 관하여 公認의인 3大 基本原則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眞” 農業協同組合, 적어도 한가지 以上の 原則이 충족되는 것은 “準” 農業協同組合이라고 규정 한바 있는데 (Ewell Paul Roy, Cooperatives ; Today and Tomorrow, Interstate Printers and Publications, 1904, p.192), 筆者는 農村指導事業에 관하여 “民主的이며 教育的 管理原則”이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眞” 農村指導事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準” 農村指導事業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王仁權, “農村社會經濟開發의 規制要因과 發展의 課題 - 農村指導事業의 事例”, 『서울大學校 經濟論集』第 19 卷, 第 3 號, pp.316 ~ 343 (1980)).

물론 農業과 生活改善 分野에서 주로 農村人을 顧客(clients)으로 하는 것이다. 關聯諸文獻을 分析, 研究한 것에 입각하여 金文憲과 王仁權⁹⁾은 農村指導事業의 本源의 特性을 모두 다섯 가지로 일반화하고 있음을 본다. 즉 農村指導事業은 ① 實踐指向의인 非正規的 農業・農村教育의 體系이며, ② 각 水準에 있어서 政府, 公共의 機關, 그리고 民間機關의 協同的 體系이며, ③ 주로 展示方法과 手段에 의한 科學的인 變化促進事業이며, ④ 農村人의 自發的 參與와 自由意思決定에 입각한 技術變化 事業이며, ⑤ 農村人의 개별적인 發展目的과 地域的 및 國家的인 開發目標가 적절하게 조화된 社會經濟開發事業이라고 일반화하고 있음을 본다.¹⁰⁾

9) 金文憲・王仁權, “農村指導事業의 基本的 性格과 發展의 課題”, 『서울大學校 農學研究』第3卷, 第2號, pp.187~204(1978).

10) 이와 같은 5個項의 農村指導事業의 一般化的 特性의 導出을 위하여 참조한 主要 文獻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H.C. Sanders, ed.,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Prentice-Hall, 1966, p.29~30; Edmund de S. Brunner, et. al., *Farmers of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5; Edmund de S. Brunner and E. Hsin Pao, *Rural America and the Extension Service*,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49; Frederick B. Mumford, *The Land-Grant College Movement*, University of Missouri, College of Agriculture Experiment Station Bulletin 419, p.140; Joseph Di Franco, *A Collection of Principles and Guides*, Comparative Extension Publication No.4, New York State College of Agriculture at Cornell University 1958;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Building A Strong Extension Service*, pp.5~6; John A. Hannah, et. al., *Joint Committee Report on Extension Programs, Policies, and Goal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ssociation of Land-Grant Colleges and Universiti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8, pp.3~5; P.A. Miller, et. al.,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Today*, Subcommittee on Scope and Responsibility, 1957 Extension Committee on Organization and Policy, 1958; Herbert R. Albrecht, et. al., *A People and A Spirit*, A Report of the Joint USDA-NASULGC Study Committee on Cooperative Extension, Printing and Publications Service, Colorado State University, 1968, pp.44~72; Bryant E. Kears and O.B. Copeland, eds., *A Guide to Extension Programs for the Futur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North Carolina State College, 1959, p.43; Arthur T. Mosher, *An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Extensio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이들 5 個項의 農村指導事業의 特性은 지배적으로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에 입각한 일반화적인 것이 되는데 美國은 近代의 農村指導事業의 본고장이며 또한 가장 先進된 국가 중의 하나가 되며, 自由主義體制下의 代表的 國家인 것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의 原理의 特性을 다 갖춘 農村指導事業은 “眞” 農村指導事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실제로 美國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더욱이나 開發途上國家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眞” 農村指導事業의 吟味分析과 理解는 開發途上國에서의 農村指導事業의 發展의인 評價와 戰略을 위한 準據基準이 되기 때문이다.¹¹

農村指導事業體系의 國家的 變異

Ensminger 와 Sanders¹² 는 40 여년 전에 農村指導事業을 관장하는 諸機構가 적용하는 組織類型과 方法 면 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土地制度, 信用金融施設과 用役, 文化的 背景, 그리고 農業 및 關聯의 高等教育體系 면에서의 변이에 상대정도로 緣由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새로운 地域 또는 新生的인 開發途上國에서 農村指導事業을 發議적으로 새로이 전개하는데 있어서 직면하는바 挑戰에 관하여 Kelsey¹³ 는 農村指導事

Council, 1978 ; Lincoln David Kelsey and Cannon Chiles Hearne, *Cooperative Extension Work*, Comstock Publishing Associates, 1963.

11) 다른 要因은 그만두더라도 (1)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이 특히 제 2 차 世界大戰 후에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體系를 본받아 農村指導事業을 發議 또는 發展시켜 오고 있는 사실, 그리고 (2) 상이한 國家間에는 外國의 文化複合의 移轉과 受容의 경우 통상적인 適應化的 問題가 있기 때문에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을 準據基準으로 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12) Douglas Ensminger and Irwin T. Sanders, "What Extension is," in Brunner, *et. al., op. cit.*, pp.1 ~ 7.

13) Lincoln D. Kelsey, *The Challenges of Starting Extension Work in New Areas*, Comparative Extension Publication No. 11, New York State College of Agriculture at Cornell University, 1961.

業의 適應化 및 土着化의 必要性을 크게 강조한 바 있다. 農村指導事業이라고 할 때에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만을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본다.

상이한 社會 또는 國家 사이에는 많은 差異性이 인지되는데 아마도 文化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인 性格의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두드러지고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差異性은 한 特定社會에서 成立 發展을 본 農村指導事業과 같은 制度(institutions)를 다른 社會에 移轉 適應하는데 있어서 規制의 要因이 되는데 특히 先進國에서의 것이 開發途上國에 이전되는 경우에 더욱더 크나큰 挑戰과 困難에 부닥치게 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農村指導事業體系가 바로 이와 같은 代表的 보기 중의 하나인 것이다.

두말 할 나위도 없이 農業體系(agricultural 또는 farming systems)의 면에서의 變異性도 크나큰 規制要因이 된다. 그러므로 國際의 技術移轉이 여러 가지의 問題點을 기본적으로 지니게 마련이며, 여기에서 이른바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 중요한 概念이 부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技術」이란 物理的인 것만이 아니라 廣意的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開發途上國을 一般化的으로 한 묶음으로 概念化하기란 매우 어렵다. 特殊 個別的인 差異性을 個別的인 開發途上國은 적지 않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先進國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은 先進國과 다를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家 사이에도 差異가 있게 되는데 農村指導事業의 發展의 경우의 挑戰 또는 困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學者, 社會學者, 기타는 開發途上國을 전체적 또는 一般化的으로 概念化하는 있는데 分析上的 必要에서이다. 예컨대 農村開發社會學者인 Rogers¹⁴ 같은 이는 「傳統的 社會體系」(traditional social systems)와 「近代的 社會體系」(modern social systems)로 二元化 하고 있는데 前者의 範疇는 開發途上國, 後者는 先進國과 概略的으로 일치할 것이다. 傳統的 社會體系는 近代的 社會體系와 비교할 때에 ① 變化性

14)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Free Press, 1962, pp. 59~62.

向의 缺如, ② 後進의 단순적인 技術, ③ 低位의 非文盲性, 敎育, 그리고 科學의 方法의 理解性, ④ 現狀維持性과 表出的인 情誼的 關係, ⑤ 外部體系와의 적은 傳達媒介, 그리고 ⑥ 感情移入(empathy)의 缺如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家間에서 인지되고 있는 農村指導事業體系의 變異性을 이해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이른바 「時間的 및 場所的 留保」(time-place qualifications)의 基本的 考慮下에서 특징의 개별적인 開發途上國의 總體的 國家發展의 水準 또는 단계를 주목하여야만 한다. 總體的 國家發展 水準은 全體論의이며 多次元的인 성격의 것인데, 예컨대 被殖民地化的 경험과 같은 歷史的 先行變數도 매우 중요하다. 總體的 國家發展 수준에 照應한 開發途上國의 農村指導事業을 예컨대 ①先發的인 것, ②開發的인 것, ③後發的인 것의 세 가지 範疇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②와 ③의 範疇의 아시아의 農村指導事業體系를 現地的으로 살핀 藤田¹⁵은 모두 여섯 가지의 局面에 걸쳐서 農村指導事業의 變異性을 比較 분석하고 있다. 즉, ① 農村指導事業의 國家政策上 比重, ②組織構造, ③ 주요 課題, ④方法 및 手段, ⑤ 農村指導公務員의 雇傭前 자격과 수련, 그리고 ⑥關聯機構의 可用性 등이다. 그의 결론은 각국의 개별적 農村指導事業 體系는 크나큰 變異性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開發途上國에만 한한 것은 아니고 先進國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普遍的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單一的 또는 共通的인 體系는 있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模型 또는 準模型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特定の 個別的 開發途上國의 農村指導事業을 발전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社會工學(social engineering)은 매우 복잡하며 또한 挑戰的이라고 보아야만 한다. 自由世界의 여러 나라의 農村指導事業은 대개의 경우 美國으로부터의 國際技術移轉의 產物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바 있는데 그 아무리 적응화 또는 土着化的 挑戰이 크다고 할지라도 移轉受

15) 藤田康樹, 『農業發展 普及制度 - 國際協力のためのアジア諸國現狀分析 - 』, 國際農林業協力協會, 1981, pp.195 ~ 233.

領的인 開發途上國家의 諸國은 協同農村指導事業, 따라서 “眞” 農村指導事業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原理와 實踐事項은 최대한으로 保持되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農村指導事業의 役割

農村指導事業의 가장 기본적인 役割 또는 기능은 革新的인 農業技術을 農業者顧客에게 實際的 適用을 위하여 移轉 傳播시킴으로써 총체적인 國家發展을 위하여 農業・農村開發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극히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命題이지만 革新(innovations)의 傳播와 受容은 人間社會發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必要條件 중의 하나로서의 새로운 投入이다. 따라서 農村指導事業은 特定國家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役割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특히 지배적으로 農業의 基盤인 低位發展 수준의 빈곤한 開發途上國의 경우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보다 現實的 次元에서 본다면 農村指導事業은 食糧穀物과 기타 農產物을 증산하게 촉진시킴으로써 飢餓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크게 공헌한다. Cole¹⁶⁾이 지적하였듯이 開發途上國에서 農村生産이 뒤쳐지고 있으므로, 人間主義的 및 經濟的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政治的인 이유에서 農業增產을 통한 農業開發이 촉진 되어야 하는 것이다.

農業의 產出과 生産性 면에서의 급속한 成長, 즉 農業開發은 특히 總體的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 필수적으로 효과적인 開發戰略(development strategy)으로 인정되고 있는데¹⁷⁾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 農業經濟的 基盤으로부터의 變換을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 經濟發展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農業開發은 總體的 經濟發展을 위하여 기여하는데

16) John Cole, *The Poor of the Earth*, Macmillan, 1976, pp.73 ~ 88.

17) Yujiro Hayami, et al., eds., *Agricultural Growth in Japan, Taiwan, Korea and the Philippines*, East-West Center, 1979, pp.3 ~ 26.

두 가지의 주요한 農業開發의 目的은 ① 총체적 經濟發展의 테두리 안에서 農業의 發展을 위하여 相當比重의 國家的 資源을 投入 하여야 하며, ② 農業生産 특히 食糧増產을 꾀하는 것이 된다.¹⁸ 그런데 農村指導事業은 이와 같은 農業開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農業技術」(agricultural technology)는 物理的 또는 技術學的으로 狹意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전통적일 것이나¹⁹ McInerney²⁰와 같이 農業・農村開發의 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 규제하는 技術的, 經濟的, 制度的, 社會的 그리고 政治的 裝置까지도 포함하는 總體的인 體系라는 廣義的 規定化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農業開發은 農村開發의 下位概念인 것이나 관행상으로 볼 때 農業・農村開發(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本源的 또는 “眞”農村指導事業이라고 보게 되는 美國의 協同農村指導事業에 排他的인 관심을 베풀 때, 農村指導事業은 그의 顧客으로서 ①成人 農業者, ②農家主婦, 그리고 ③ 農村靑少年을 對象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顧客範疇別의 農村指導事業의 課題領域(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 areas)를 지니게 마련이다. 물론 「農業的」인 것이 中核으로 되어 있는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範疇化된 協同農村指導事業의 重點的 比重의 課題領域은 ① 農業生産의 能率, ② 農產物流通의 能率, ③ 自然資源의 保存 使用, ④ 農業 및 家庭經營, ⑤ 家族生活 및 靑少年發展, ⑥ 指導力發展, ⑦ 地域社會 改善 및 資源發展, 그리고 ⑧ 公共的 問題 등이다.²¹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課題領域에서 國家的 變異를 보

18) Arthur T. Mosher, "Research on Rural Problems", in Robert E. Asher, *et. al.*, *Development of the Emerging Countries: An Agenda for Research*, The Brookling Instion, 1962, pp.71 ~ 119.

19) Yujiro Hayami and Vernon W. Ruttan, *Agric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p.2.

20) John P. McInerney, *The Technology of Rural Development*, The World Bank, 1978.

21) Kearl and Copeland, eds., *op. cit.*

고 있으며, 이는 總體的 國家發展의 水準 또는 段階에 照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면은 共通의 된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²²

農村指導事業의 役割, 따라서 그의 필요를 극적으로 예증하는 것은 <그림 1>의 Glomez 등²³에 의한 畝收量隔差 또는 農業生産技術 隔差가 될 것인데 부연의 필요가 거의 없는 自己說明的인 概念化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農村指導事業의 源泉의 源泉을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概念圖式인 것이다. 拘束要因 또는 規制要因을 직접 관련적인 技術的 視角에서 生物學的인 것과 社會經濟學的인 범주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統制 또는 管理的인 관점에서 볼 때 ①內在的 또는 內因的 規制要因(endogenous variables)과 ②外在的 또는 外因的 規制要因(exogenous variables)로 크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매우 크다.²⁴ 요컨대 畝收量隔差Ⅱ를 極大化的으로 縮少 내지 없애는 것이 즉 農村指導事業인 것이다.

農村指導事業이 그 役割 또는 機能을 다할 때 結果 또는 成果를 기대하며 보게 된다. 물론 이른바 順機能(functions)이며 顯在的(manifest)인 것이 期待效果인 것이다. 傳統的으로 農村指導事業의 成果의 測定 또는 推定은 예컨대 農產物의 增收量 또는 生産性的 증대에 의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農業者의 勸獎農業技術事項의 受容(adoption) 또는 不受容(non-adoption)의 把握에 의한 간접적 接近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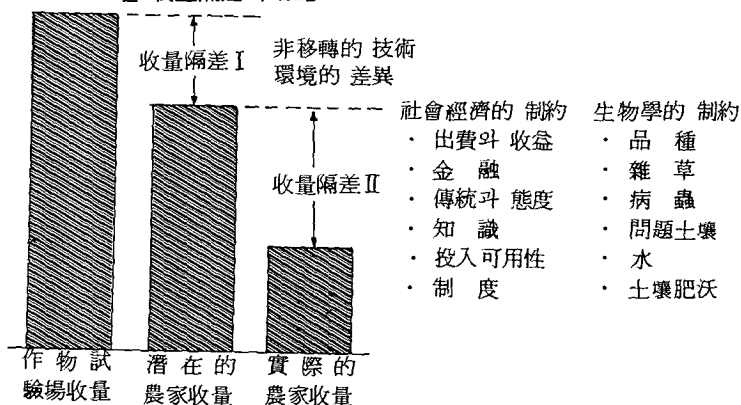
특히 農業經濟學者들은 農業研究開發(agricultural R&D)의 成果의 經

22) 國家發展, 따라서 農業・農村開發의 段階 또는 水準面의 差異에서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固有的인 諸特性에 의하여서도 農村指導事業 體系는 變異를 보이게 마련이다. 極端的인 경우에는 한편에서는 生存을 위한 食糧増産이라는 基本의 水準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水社會教育 또는 生涯 教育이 될 것이다.

23) Kwanchai A. Gomez, *et. al.*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onstraints on High Rice Yields on Farmers' Fields," in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Farm Level Constraints to High Rice Yields in Asia* 1974~77, p. 30.

24) 王仁權, 前掲論文

그림 1 作物試驗場 潛在의 農家收量 및 實在의 農家收量사이의
쌀 收量隔差의 概念



濟學의 分析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에 관한 諸經濟研究 結果는 매우 높은 수준의 社會的 收益(social returns) 또는 經濟的 利得(economic benefit)을 시험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여기서의 農業研究開發의 生

25) 實證的 研究의 事例는 다음과 같은 것을 例示할 수가 있을 것이다. Zvi Griliches, "Research Costs and Social Returns: Hybrid Corn and Related Innov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6, pp. 419 ~ 431 ; Robert E. Evenson and Yoau Kislev, *Agricultural Research and Productivity*, Yale University Press, 1975, pp. 58 ~ 77, 78 ~ 87 ; J. Boyce and Robert E. Evenson,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t Los Banos, 1975 ; Robert E. Evenson and P. M. Flores, "Social Returns to Rice Research", in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New Rice Technology*, 1978, pp. 241 ~ 265 ; Thoma M. Arndt and Vernon W. Ruttan, *Resource Allocation and Productivity in National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1975 ; Vernon W. Ruttan, *The Agricultural Research Poli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Walter L. Fishel, ed., *Resource Allocation in Agricultural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1 ; KiHyuk Park,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of Effects of Green Revolution* (in Korea), Yeon Sei University, 1977 (Korean).

産性は 實際에 있어서는 특히 農村指導事業의 성과를 포괄 또는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農村指導事業의 成果 또는 生産性的의 추출 분리는 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合意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農業増産的인 劃期的인 農村指導事業, 다시 말하면 遺傳工學的인 多收新品種(high-yielding varieties = HYV)의 研究開發을 中軸으로 한 劃期的인 農村指導事業의 成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綠色革命(green revolution)²⁶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綠色革命의 成果에 順機能과 더불어 逆機能인 것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政治的,經濟的 그리고 社會的 性格의 것인바 成果의 不平等的 配分에 기초된 것이며 이는 특히 지나치게 兩極化的인 農村社會에서 問題가 된다.

農村指導事業의 本源的 性格

극히 간명한 吟味가 불가피한데, 기왕에 있어서 應用的인 實踐指向의 非正規教育體系라고 農村指導事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다 發展的인 視角에서 再吟味の으로 農村指導事業의 本源的 性格을 살핀다면, 企劃的 社會變動(planned social change)의 한 事象으로서 위와 같은 基本的 性格을 간직하는 立場에서 ① 社會學을 中核으로 하는 行動科學的인 學際的 또는 多學問的 接近에 의한 分析 對象, ② 傳達媒介(communication)의 시각에서의 農村指導事業의 실체적 認識과 分析接近의 관심과 實제의 比重의 増大, ③ 農業技術

26) 예컨대 다음을 참조할 것.

Lester R. Brown, *Seeds of Change - The Green R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1970s*, Praeger, 1970; Keith Griffin, *The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Change - An Essay on the Green Revolution*, Mcmillan, 1979; Robert S. Anderson, et al., *Politics and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Asia*, Westview, 1982. Andrew Pearse, *Seeds of Plenty, Seeds of Want -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Green Revolution*, Clarendon Press, 1980, (pp. 157 ~ 182).

革新 傳播 移轉의 觀點에서 農業技術革新 研究開發에 대한 連繫的 分析和 關心의 증대, 그리고 ④ 일반적인 革新傳播移轉의 테두리 안에서의 統合的 視角의 증대 등을 지적하게 된다.

그런데 특히 ④의 입장에서 農村指導事業의 本源的 性格을 규정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의미가 클 것인데, 革新傳播移轉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分析 吟味할 경우에 마땅히 고려에 넣어야 할 네 가지의 주요한 要因 또는 變數는 ①革新(innovations), ②傳播媒介經路(communication channels) ③時間的 空間(time), ④社會體系構成員(social system members) 등이 된다.²⁷⁾ 革新의 定義的 規定도 艱難하지만 그의 特性 또는 屬性이 매우 중요한바 흔히 5個範疇의 假說이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受容率(rate of adoption)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傳播媒介經路는 크게 ①情誼的 經路(interpersonal channel)와 ②非情誼的 또는 大量的 傳播媒介經路(impersonal 또는 mass media channel)로 나뉘는데 그 기능에 차이가 있다. 時間的 空間과의 關係에서 이른바 革新意思決定過程(innovation-decision process), 즉 潛在的 受容者로서의 개인이 어느 革新에 관한 최초의 知識을 얻고 受容 또는 排斥의 意思決定을 내리고 다시 확인을 하는 心的 過程(mental process)이 概念되는데 이 과정은 4개의 段階 또는 機能으로 分析上 壓切化된다. 革新性(innovativeness)에 입각하여 潛在的 受容者로서의 特徵의 社會體系 構成員을 분류하는데 5개 受容者範疇 假說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社會體系는 이른바 體系效果(system effects)에 의하여 受容者 行動에 대하여 影響을 끼치며 變化促進的 努力(change promotional efforts)을 正規的으로 행사하는 專門職業者로서의 變化促進者(change agents)와 非正規的 또는 非專門職業者的으로 행사하는 輿論指導者(opinion leaders)가 社會體系內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革新意思決定類型(types of innovation-decision)도 規制要因으로 나타나는데 흔히 세 가지로 範疇化 되고 있음을 본다.

27) Everett M. Rogers with F. Floy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 A Cross-cultural Approach*, Free Press, 1971, pp. 18~38.

이상과 같은 극히 간명한 豫備的 一瞥에 접속하여 革新意思決定 過程의 모형을 역시 간명하게 살피기로 한다. 이것은 「傳播模型」(diffusion model) 또는 「落水波及의 模型」(trickle-down snowball model)²⁸의 것인데 이는 또한 「變換的 接近」(transformation approach)이 아니라 「改良的 接近」(improvement approach)²⁹에 의한 農業・農村開發計劃으로서의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模型인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Rogers와 Shoemaker³⁰에 의한 것인데 상당 정도로 自己說明的이라고 보게 된다. 全過程을 傳達媒介가 縱橫으로 유통하며 꿰뚫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革新一意思決定過程에 기본적으로 입각한 것이지만 革新受容率의 規制變數에 관한 說明圖表를 보면 自己說明性이 더욱더 명확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³¹<그림 3>.

다른 한편, Jedlicka³²는 農村顧客(rural clients) 즉 農業者에게로의 農業技術革新의 傳播移轉은 ① 下部構造, ② 政策, ③ 資源, 그리고 ④ 巨視的 次元에서의 外生的 諸變數의 統制와 微視的 次元에서의 經濟的 및 行動科學的 道具에 대한 配慮 등의 통합적 고려가 요청되는 복잡한 관정이라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技術移轉機構를 다음과 같이 圖示하고 있다 <그림 4>.

이상과 같은 巨視的 農業技術移轉의 기구를 圖示的으로 살핀 연후에 다

28) Kearsall 같은 이는 傳播模型과 더불어, 包括模型(package program model) 그리고 誘導模型(induced model)을 區別하고 있음을 본다. (Bryant E. Kearsall,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William Schramm and Daniel Lerner(eds.),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Last Ten Years and the Next*,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6, pp. 151~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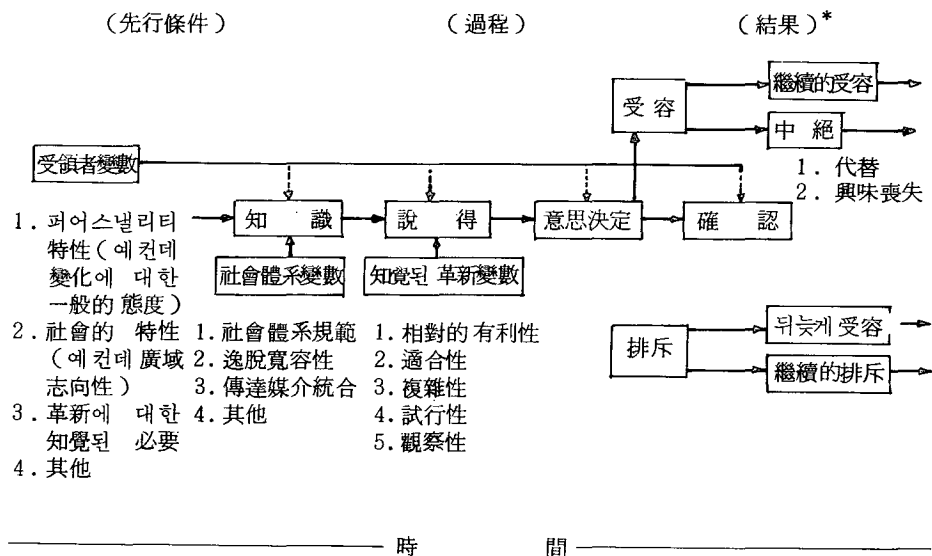
29) Norman Long,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Tavistock Publications, 1977, pp.144~184.

30) Rogers and Shoemaker, *op.cit.*, p.102.

31) *Ibid.*, p.158.

32) Allen D. Jedlicka, *Organization for Rural Development-Risk Tak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Prager Publishers, 1977, p.17.

그림 2 革新 - 意思決定過程의 模型



* 模型의 單純化를 위하여 「革新의 結果」가 아닌 「革新 - 意思決定過程의 結果」만을 表示하였음.

그림 3 革新受容率 規制變數 說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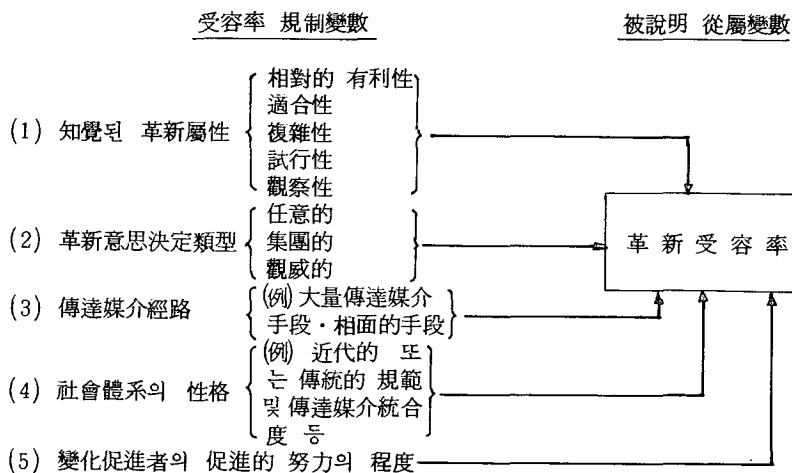


그림 4 巨視的 農業技術移轉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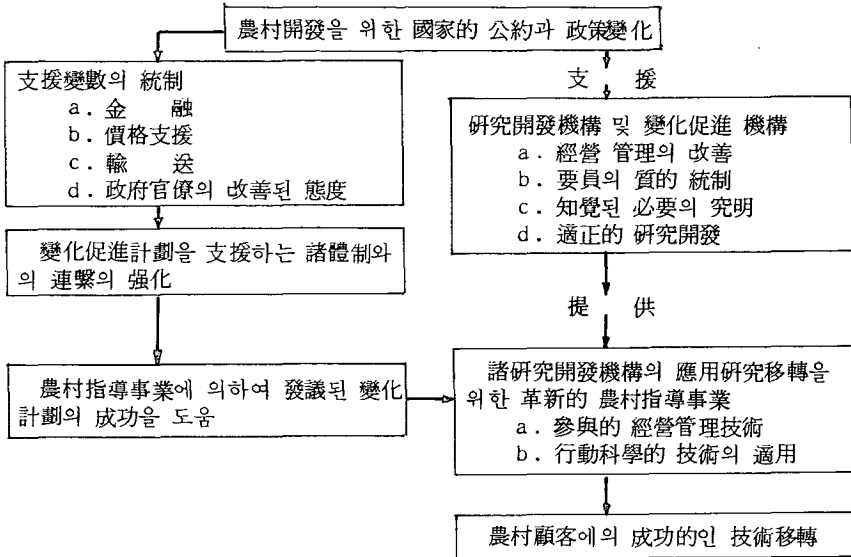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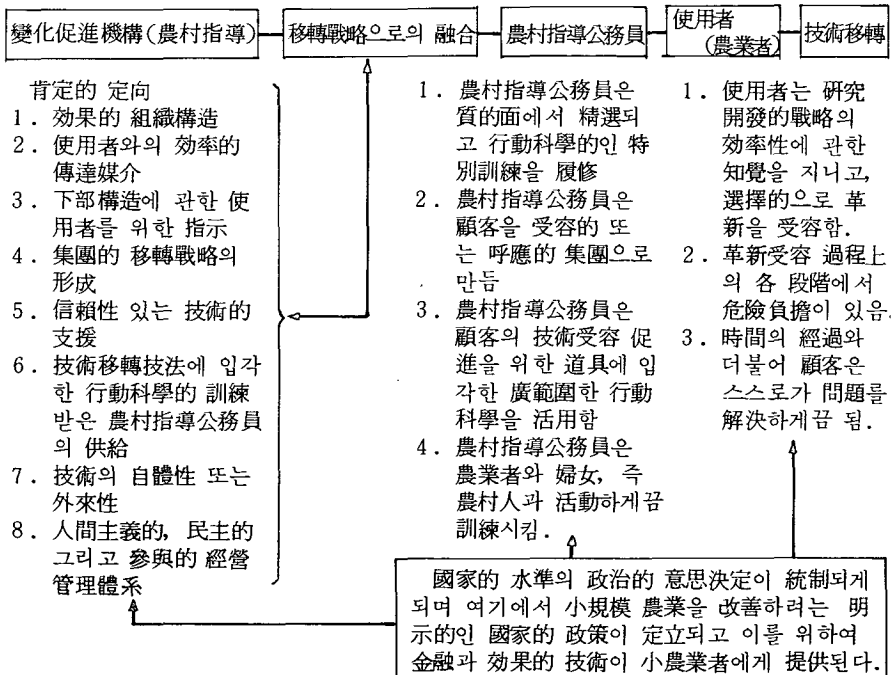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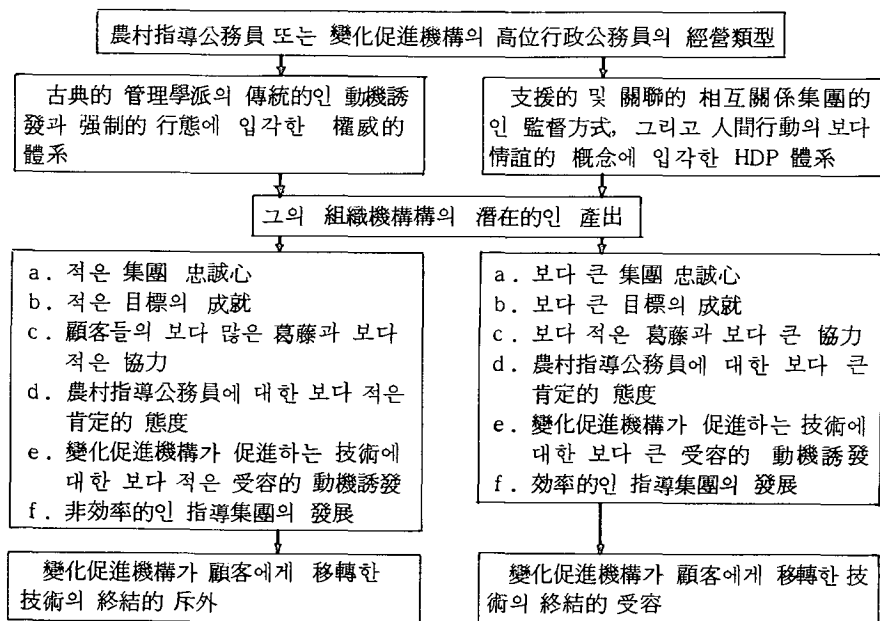
그림 5 小農을 위한 成功的 技術移轉



시 나아가서 Jedlicka³³는 상당 정도로 微視的 接近으로 小農을 위한 성공적인 技術移轉의 戰略에 관하여 圖示化를 시도하고 있다<그림 5>.

Jedlicka³⁴는 農業技術移轉體系인 農村指導事業의 가장 중요한 特性을 「HDP 經營體系」(humanistic democratic and participative management system)의 概念으로 置換代替하여 이에 대조되는 權威的 經營體系(authoritative management system)를 農業技術革新 傳播移轉과의 직접적인 관련 하에서 대비시킴으로써 開發途上國에서 많이 보게 되는 歪曲的 事象을 暗默의 으로 크게 경고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農業技術革新 傳播移轉과 權威的 및 HDP 經營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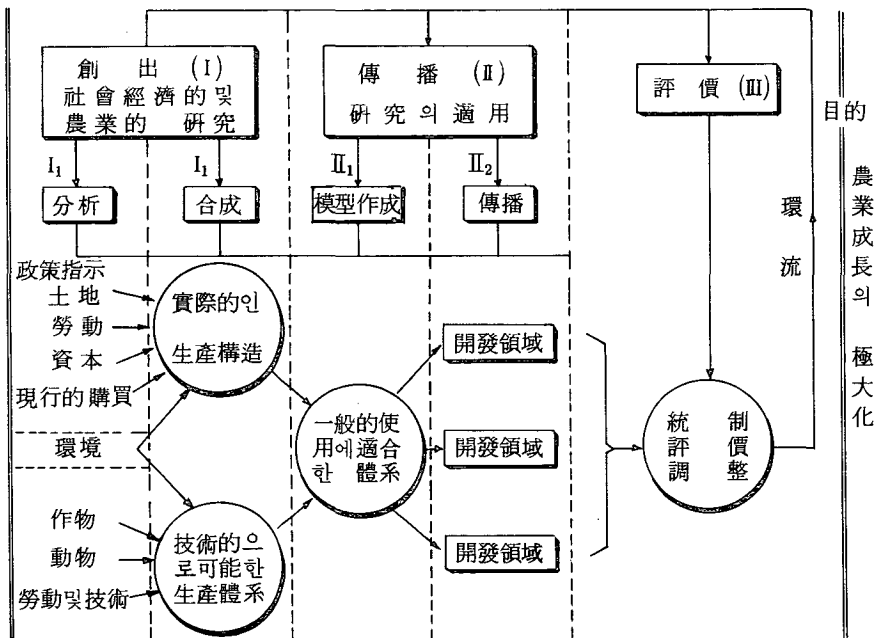


33) *Ibid.*, p.19.

34) *Ibid.*, p.99.

마지막으로 紹介的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은 Malassis³⁵의 이론바「農業에 있어서의 創出-傳播體系」(the creation dissemination system in agriculture)이다<그림 7>. 이론바「사이버네틱制御」(cybernetic regulation)³⁶의 視角에서의 相互調整의이며, 統制的인 過程으로서의 研究

그림 7 農業의 統合的 創出-傳播體系



35) Louis Malassis, *The Rural World-Education and Development*, The UNESCO Press, 1976, pp. 61 ~ 74.

36) “Cybernetic”이란 computer와 人間頭腦에 있어서의 制御(control)와 傳達(transmission)의 作用을 비교 연구하는 이론바「人工頭腦學的」인 것을 두고 말한다. 元來 Norbert Wiener가 이 用語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컨대 모든 종류의 組織에서 나타나는 傳達媒介와 이에 대한 統制를 연구하는 것을「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 하는데 이의 觀點에서는 모든 組織에 傳達媒介로 結束되어 있다고 하는 根本的 特徵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傳達媒介의 特徵은 情報의 傳達에 있고 情報의 傳達은 反應을 가져오며, 自己制御를 可能케 한다는 생각이다. (Karl W. Deutsch, *The Need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Free Press, 1966, pp. 75 ~ 76.

開發과 이의 適用活用에 관심을 둔 것이라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과정 또는 모형은 ① 研究센터, ② 農村指導事業, ③ 農業 및 總體的 開發과 관련된 諸要因, 그리고 ④ 交易組織 및 農民과의 相互의 調整 또는 協同을 本質로 하는 것이다.

農村指導事業의 成果와 拘束要因, 그리고 戰略

농촌지도사업은 農業・農村開發을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총체적인 國家發展, 다시 말하면 工業化에 대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 바 있다. 동시에 농촌지도사업이 특히 開發途上國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매우 挑戰的이라는 것도 살펴 본 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농촌지도사업의 評價를 위한 시도는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물론 이와 같은 理解 또는 認識은 開發途上國의 농촌지도사업의 評價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含意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에누리없이 다시 명심하여야 할 바는 농촌지도사업은 이른바 變換的 接近이 아니라 改良的 接近의 범주에 들어가는 극히 중요한 農業・農村開發計劃 중의 하나가 될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농촌지도사업은 가장 전형적 또는 대표적이며, 또한 보편적으로 배풀어지고 있는 改良的 接近의 農業・農村開發計劃이라는데 異議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성공적 내지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國家에서 농촌지도사업이 크게 目的하는 바에 기여하고 있다고 主張 評價되고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國家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 하게끔 모든 政策的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고 역설되고 있는 것이다.

農村指導事業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업은 改良的 接近의 많은 農業・農村開發計劃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농촌지도사업을 규제하는 要因 중에는 同體系가 스스

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內因的인 것과 外因的인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농촌지도사업을 부정적으로 규제하는 要因, 즉 拘束要因을 究明 抽出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적이지 全體論的인 성격이 되는 경향이 매우 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關聯 規制要因이 거의 모든 것에 직접 간접으로 걸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開發途上國의 경우 농촌지도 사업의 성과 또는 효율성에 관한 만족적이며 결론적인 情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에서 농촌지도사업은 허다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期待效果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일반적 評價가 지배적이다.

藤田³⁷⁾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評價라기 보다는 組織인 觀察을 아시아 開發途上國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現地調查的으로 베푼 바가 있다. 國家的 變異性의 認知와 더불어 많은 域內 開發途上國家에서 크나큰 政策的 配慮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改善點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開發銀行(Asian Development Bank : ADB)³⁸⁾은 제 2 차 아시아 農業調查報告書를 1977년에 발표하고 있는 그의 實質的 命脈과는 달리 농촌지도사업을 獨立的 調查研究 主題로 다루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農村開發에 관한 研究計劃을 담당하여 體系的 報告書를 公刊한 바 있는 世界銀行(World Bank)의 Lele³⁹⁾는 後發的 開發途上國이 집중되다시피 되어 있는 아프리카에 관하여 특히 大衆參與(mass participation)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농촌지도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의 究明事項들은 극히 비관적이며, 農村指導事業計劃만을 역점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으며, 다른 規制的 拘束要因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내다 보고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37) 藤田, 前掲書.

38) Asian Development Bank, *Rural Asia- Challenge and Oppority*, Praeger 1977.

39) Uma Lele, *The Design of Rural Development Lessons from Af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效果的 農村指導事業을 위해서는 거의 全體論的 性格의 問題의 要因을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農村指導事業은 農業・農村開發計劃 中の 한 構成因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하라砂漠 以南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農業生産潛在性과 小農戰略을 연구한 Johnston⁴⁰은 적절한 農業研究의 農村指導事業에 대한 기여를 특히 지적하여 資源中心的 農業(resource-based agriculture)으로 부터 科學中心的 農業(science based agriculture)으로의 전환 없이는 農業・農村開發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經濟的 및 社會的 發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같은 開發的 命題의 提示와 더불어 이의 具現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이면서 몇 가지의 關聯的 規制要因을 지적하고 있다. 이중에서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적절하기 그지 없는 農業研究, 따라서 適正技術의 可用化가 部分的이지만 相當程度로 農業開發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비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인데 이는 Tourte와 Moomaw⁴¹에 의하여서도 지지되고 있음을 본다.

다른 한편, Morss 등⁴²은 절반 가량이 아프리카에 있는 10개 開發途上國의 農村開發計劃에 관한 經驗的 研究에서 小農에의 知識의 移轉關係, 즉 농촌지도사업의 成果를 收益性(profitability)이라는 單一的 指標에 의하여 모든 關聯課題를 等級化함으로써 배운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규명된 사항은 傳統的인 農村指導方法이 小農民에게 行動變化를 가져오게 끔하는 知識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效力이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40) Bruce F. Johnston, "Agricultural Production Potentials and Small Farmer Strategies in Sub-Saharan Africa", in Robert H. Bates and Michael F. Lafchie, ed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frica-Issues of Public Policy*, Praeger Publishers, 1980, pp. 67 ~ 97.

41) R. Tourte and J. C. Moomaw, "Traditional African Systems of Agriculture and Their Improvement", in C. L. A. Leakey and J. B. Wills, eds., *Food Crops of Lowland Tr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 309.

42) Elliott R. Morss, et. al., *Strategies for Small Farmer Development*, Volume, I, Westview, 1976, pp. 116 ~ 145.

성과가 있는 農村指導方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도합 다섯 가지의 事例의인 適正的인 指導技術 또는 指導方法을 地域特化的으로 實證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Westermarck⁴³는 展示指導方法과 手段이 유효함을 구명하였는데 특히 展示農家の 새로운 情報의 傳播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추가적인 지적을 베푼다면 Hunter⁴⁴도 거의 모든 國家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이 農業開發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의 成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실망적이라고 一般化的 評價를 하고 있다. Arnon⁴⁵은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은 失敗의 要因의 범주를 ①組織的 缺陷 및 運營管理上의 脆弱性, ②適正技術의 缺如, ③研究開發과 農村指導와의 連繫的 相互調整의 缺如, 그리고 ④經濟的 및 社會的 拘束 등에 귀속시키고 있다.

Leagans⁴⁶는 지난 수 10년간 100을 넘는 新生國家가 그들의 國家體制 建設(nation-building)의 한 새로운 制度로서 國家의 規模의 농촌지도사업 체계를 발족시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 條件이 이들 開發途上國家에서의 農村指導事業의 성과내지 기여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①필요한 可用的 農業技術과 이와 관련되는 生産投入 供給없이 農村指導事業體系가 발족한 것, ②美國의인 農村指導事業 體系를 적절한 適應化的 수정없이 이전해 온 것, ③ 농촌지도사업의 과제를 원래의 生産 및 關聯의인 것과는 거리가 큰 政治的 統制的 徵稅的 등의 것까지도 포함

43) Harri Westermarck, "Demonstration Farmers" Role in the Adoption of Innovations, in Bruce R. Crouch and Shankarian Chamala, eds., *Extension Education and Rural Development*, Volume I., John Wiley & Sons, 1981, pp. 309 ~ 317.

44) Guy Hunter, *The Administration of Agricultural Development ; Lessons from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60.

45) Arnon, *op. cit.*, p. 223.

46) J. Paul Leagans, "Extension Education and Modernization", in J. Paul Leagans and Charles P. Loomis, eds., *Behavioral Change in Agriculture- Concepts and Strategies for Influencing Trans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pp. 101 ~ 147 (109 ~ 111).

시킨 것, ④知的 및 技術的 能力이 극히 낮은 수준의 일선적 農村指導公務員과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行政的 및 技術的 支援, ⑤農村指導事業 體系의 研究 및 訓練 센터와의 적절한 機能的 調整의 缺如, 그리고 ⑥ 충분한 事前의인 研究와 理解없이 농촌지도사업을 발전시켰으며, 이의 定着化的 發展에 필요한 時間과 忍耐를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開發途上國家,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家의 경우 農村指導事業 體系의 失敗-成功要因의 究明은 아직 적절하게 이룩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全體論的이며 상당정도로 循環論的 性格의 것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구체적으로나 外部者에 의한 研究가 크게 배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연유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西歐, 특히 美國의 關係專門家들에 의한 西歐文化에서의 成功的 要因의인 含蓄에 크나큰 關心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들에 의한 專門的 研究와 觀察의 合成的 生産物인 셈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一般化的으로 전개한 Leagans⁴⁷⁾의 成功的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總括的 性格의 戰略을 要約的으로 훑어 보기로 한다.

(1) 國家指導者에 의하여 農業이 國家의 物理的, 生物學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政治的 發展에 있어서 주된 產業이 된다는 事實의 認定과 理念的 또는 哲學的인 受容

(2) 農業生産増大를 위한 巨視的 政策(macropolicies)의 확립, 예컨대 農業生産物과 農業投入財의 價格水準, 生産金融, 流通施設, 生産投入財, 예컨대 種子, 肥料, 農藥, 灌溉施設 등, 그리고 관련적인 必要財의 可用性.

(3) 지속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실천성 있으며, 사회적으로 적합적이고 또한 必要 또는 要請을 충족할 수 있는바 科學과 技術의 提供.

(4) 農村指導事業은 때때로 잘못되게 農業近代化에 대한 유토피아의인 解決策이라고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며, 農村指導事業은 이를 위한 단지 많은 必要投入 중의 하나일 따름이며, 實質的으로는 近代化들의 한 觸媒의 要因으로 되어 있다는 事實의 認定.

(5) 효과적인 지도사업은 고도로 복잡하고 費用이 들며 또한 時間을 필

47) *Ibid.*, pp.111 ~ 112.

으로 하는 事業이라는 것의 認識이 필요하다. 즉, 農村指導事業의 實質的 對象인 人間의 마음은 복잡하며 機構組織과 규모가 크게 충원되어 있기 때문인데, 특히 行動修正을 가능케 하는 信念代替를 위하여서는 누적적인 學習의 努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적절하게 技術的 專門家, 즉 農村專門指導官, 監督行政官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직업적으로 유능한 一線的 指導公務員의 可用性.

(7) 각종의 主要範疇와 각종 水準의 農村指導公務員을 위한 지속적인 訓練 또는 修練.

(8) 農村指導者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諸裝備과 시설을 위한 適正水準의 財政的 支援.

(9) 農村指導事業機構와 研究機構, 그리고 農科大學과의 協同的 連繫.

(10) 계속적이며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의 評價.

이상과 같은 Leagans의 10개 항에 달하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必要條件인 要請은 물론 그의 性格上 當爲的인 것이며 一般化的인 것이 되며, 相當程度로 「理念型的」인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總體的 國家發展에서 惡循環이 크게 인지되고 있으며 農業・農村開發에서도 역시 惡循環이 인지되고 있으며, 農村指導事業에서도 또한 惡循環이 인지되고 있는 것이 많은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現實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效果的 또는 成功的인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一般的 要請을 開別의 國家가 自己의 實情에 비추어 보아 진지하게 되씌우면서 政策的 努力을 다하지 않으면 惡循環의 斷切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⁴⁸⁾

48) 예컨대 1980년 현재 南阿의 Lesotho에는 총 30여의 國際的 機構 및 先進國 機構가 農村開發計劃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Lesotho 政府의 能力不足은 이들 諸計劃을 거의 다 失敗로 돌리고 있음을 目圖한바 있다. (王仁樞, “南阿 Lesotho 農村開發의 問題와 課題 - 最低開發國 農村開發의 事例”, 『安堂 申泰煥博士古稀記念論文集』, 法文社, 1982, pp.339~368)

맺 는 말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보편적인 改良의 接近의 代表的 計劃인 農村指導事業의 役割과 成果, 그리고 發展的 戰略을 극히 간략하게 살폈는데 暗默의으로 극히 불행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後發的 開發途上國과 最低開發國을 특히 주목하면서 배운 것이다. 총체적인 國家發展 그 자체가 惡循環의이며 따라서 그의 주된 그러나 부분적 構成部門인 農業・農村開發도 惡循環의 늪속에 있으며 이의 促進을 위한 가장 중요한 改良의 接近의 계획인 農村指導事業도 그의 原初的 課題인 食糧増産과의 관련에서도 不發展的(undevelopmental)인 惡循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發展 또는 開發의 惡循環은 그 어느 開發途上國에서도 歷史의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사업은 農村自然科學의인 것을 지배적으로 實質的 內容으로 하거나 그의 本質은 어디까지나 人間變化의 現象形態이다. 따라서 後發開發途上國에서의 農村은 人間資源化, 人間資源化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企劃的 社會變動(planned social change)의 原型(prototype)이라고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農村指導事業은 본질적으로 人間的 相互作用, 그중에서도 특히 開發支援 傳達媒介(development support communication : DSC)를 中軸으로 한 人間の ①態度 價值觀變化 → ②知識, 技術의 變化 → ③行動의 變化를 기함으로써 生活의 質(quality of life : QOL)을 구현하는 終局的 目標을 특히 多數者的인 農村人을 대상으로 하는바 農村社會科學的, 農村行動科學的이며, 學際的(interdisciplinary)내지 多學問的(multidisciplinary)인 것이다.

당장에 飢餓에 신음하는 많은 後發的 開發途上國임으로써 食糧生産의 増大가 가장 중요한 農業・農村 開發의 課題이며 따라서 農村指導事業의 目標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본 바와 같이 農村指導事業은 이들 開發途上國의 發展的 惡循環을 절단시키는 人間開發的인 유일무이한 政策 計劃的

代替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지 없는 挑戰에 가득차 있는 이의 효과적 전개인 것이다. 여기에서 自體的 能力(indegenous capacity)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先發的 開發途上國 또는 中進國, 그리고 先進國에 의한 外部的 援助가 크게 필요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國際的 農業技術移轉」(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⁴⁹의 受領 또는 吸收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韓國이 오늘날 많은 後發的 開發途上國과 同僚的 開發途上國에 의한 農業的 및 非農業的 技術移轉의 源泉(origin)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바, 農村指導事業의 效果的 發展을 절실하게 바라는 開發途上國家들은 韓國과 같은 先發的 開發途上國에 크게 관심을 베풀어 歷史的 教訓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⁰

49) 王仁權, “國際農業技術移轉의 必要와 課題”, 『韓國農村開發研究』, 博英社, 1982, pp.942 ~ 947 ; 王仁權 “새마을運動의 國際的 移轉傳播”, 上揭書, pp. 948 ~ 952 ; 崔勝姬, “우리나라 農業技術의 開發途上國에로의 移轉可能性,” 『韓國農業教育學會誌』, 第14卷, 第1號, pp.79 ~ 89(1982).

50) 先發的 開發途上國 또는 中進國으로서의 成功的인 우리나라로부터의 直接的 移轉(direct transfer)은 상당정도 可能하므로 農業·農村開發을 매우 效果的으로 促進시킬 수 있으나 先進國으로부터의 移轉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바, Malaysia의 “Look-to-East Policy”는 두드러진 보기가 될 것임.

主題發表 및 討議：農村指導事業 分野

5. 農村指導와 農民과의 意思傳達 模型

K. N. 싱

인도농업연구위원회 명예위원

1. 農村指導
2. 農民과의 意思傳達

農村指導

오늘날 農村指導教育은 최신 과학기술의 革新과 知識에 기초해서 농촌주민의 社會經濟的 變化를 초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指導教育 (Extension Education)’이라는 用語는 1873년 영국 캠브리지大學校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教育革新의 하나인 指導教育의 목적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大學教育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으나, 차차 다른 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指導教育의 이념은 農業問題에 관한 공개강의의 형태로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다. 美國의 경우도 대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指導教育運動이 시작되었는데, 農業 및 農家對象 開發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보였다.

指導教育에 대한 定義는 指導教育者에 따라 달라 필자가 본 것만 해도 18개나 되나,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정의만 보면 다음과 같다.

- (1) 指導教育은 지속적인 설득을 특징으로 하는 教育過程을 나타내는

行動科學의 하나다. 指導教育의 目的은 人間行動의 한 부분을 對象住民 (client)과 變化主導體 (change agent system)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신과 對話의 擴散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치는 데 있다 (Da-hama & Bhatnager 1980).

(2) 農村指導教育은 教育過程을 통해 農村住民을 돕는 서어비스 體系로, 이를 통해 農業技術을 普及하고, 生産性を 높이고 所得 증대를 꾀하며, 農村住民의 삶의 질을 높여 그들의 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Maunder 1973).

(3) 指導教育은 農村住民들에게 향상된 技術을 보급시키고, 그들의 지역 여건에 맞게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教育過程이다.

(4) 指導教育은 農村住民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해 주는 지속적인 過程으로, 이를 위한 農村住民에 대한 教育뿐만 아니라 그들이 긍정적인 行動을 하도록 북돋아 주는 일까지 포함된다.

(5) 指導教育은 研究結果와 現地經驗 및 다른 行動科學에서 적용 가능한 원리들을 유용한 技術과 통합시킨 應用科學의 하나로, 指導教育의 원리, 내용 또는 방법 등은 成人教育이나 靑少年教育 등 학교 밖의 教育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6) 指導教育은 人間의 行動體系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應用行動科學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指導教育이란 개념은 教育, 서어비스, 프로그램 등의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共通點을 보면, 첫째, 指導教育이란 계속적인 教育過程이라는 점, 둘째, 指導教育의 목적은 人間이 바람직한 行動變化를 일으키고, 合理的인 決定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점, 셋째로, 이러한 行動變化란 구체적으로 態度變化, 지식과 기술의 變化 또한 최신 과학기술의 革新을 受容하는 것 등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住民全體의 보다 나은 삶과 社會經濟의 發展, 그리고 生産의 증대로 인한 國民經濟의 向上 등을 가리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指導教育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과학이며, 그 기본원리나 개

념 및 方法論이 開發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과 여러 형태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指導教育이 農業生産 프로그램에 사용되면 農村指導事業이라 불리우고, 漁業에 사용되면 漁業指導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족계획이나 영양, 育兒 등의 保健事業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指導教育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指導教育體系를 조직하였다. 즉 國家發展의 정도, 物的 人的 資源, 政府의 政策, 그리고 國民의 기대와 욕구에 따라 各國의 指導事業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 本稿에서는 인도의 指導事業을 例로 설명하겠다.

가. 印度의 農村指導教育

인도의 농촌지도교육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왔다. 영국의 植民地가 되기 이전의 인도에 있어서 농촌지도교육의 목적은 自立・自率의인 村落社會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의 村落會議는 그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주요 기관이었다. 영국식민지 시대로부터 인도가 독립하기까지 주로 개인 혹은 公認된 기관들이 開發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우발적인 성격이었으며 개발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 혹은 정부기관이 간헐적으로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타고르, 브리안, 해치 등이 農村開發에 힘썼으며, 해밀턴과 선교사들에 의한 農村再建運動, 그리고 잔디, 모셔 등의 開發프로그램이 그것인데, 무엇보다도 1948年 메이어(Albert Mayer)에 의해 시작된 에타와(Etawah) 시험사업은 인도의 農村開發과 指導事業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지방의 97개 마을을 對象으로 綜合的이고 集中的인 農村再建事業이 펼쳐졌으며, 마을 單位의 指導士가 變化主導體로 활동하였다. 1952년에 55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1953년 全國으로 퍼진 地域開發事業의 모델이 되었던 것도 바로 에타와 시험사업이었다. 또 다른 主要 프로그램으로 데이(S. K. Dey)에 의해

시작된 닐록헤리(Nilokheri)事業을 들 수 있는데, 양계·양돈 등을 포함한 농업개발과 家内工業의 육성과 工藝學校의 설립 등 農村工業化에 치중하였다.

1) 地域開發事業과 農村指導事業

1952 年の 地域開發事業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적인 地域開發事業은 1953 년에 시작되었다. 地域開發이란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과정 혹은 프로그램이며, 指導教育은 地域開發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필요한 方法이므로, 1953 년에 와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國家指導事業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地域開發事業을 통해 농촌개발은 시작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첫째, 地域開發事業이 經濟發展보다는 福祉施設 등에 치중하였다.

둘째, 事業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事業 초기에 있어야 할 활기나 生動感이 부족하였다.

셋째, 事業에 住民의 참여가 적어 근본적으로 政府主導事業이 되고 말았다.

네째, 사업이 너무 한꺼번에 시행되어 프로그램의 핵심이 없었다.

다섯째, 事業推進方式이 관료적이었다. 관료적인 方式이란 公式的인 規則과 方法에만 의거하며, 주로 下向式의 일방적인 意思傳達이 행해지며, 창의력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용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事業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식량문제의 해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달성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地域開發事業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開發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統合된 開發推進體制를 확립시켜, 農村住民들의 참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농촌지역의 제반 便宜施設은 농촌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육구의 상승을 가져다 주었다.

이 기간 동안 農村指導士의 훈련을 위해 농촌지도교육기관과 各級 水準(구역, 마을 등)의 훈련센터 및 농과대학내 지도훈련원의 설치 등이 대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지도사의 양성은 그 전문성을 약화시켜, 農村指導士가 단지 서어비스部門 종사자로 생각되어지기도 했다.

2) 그밖의 개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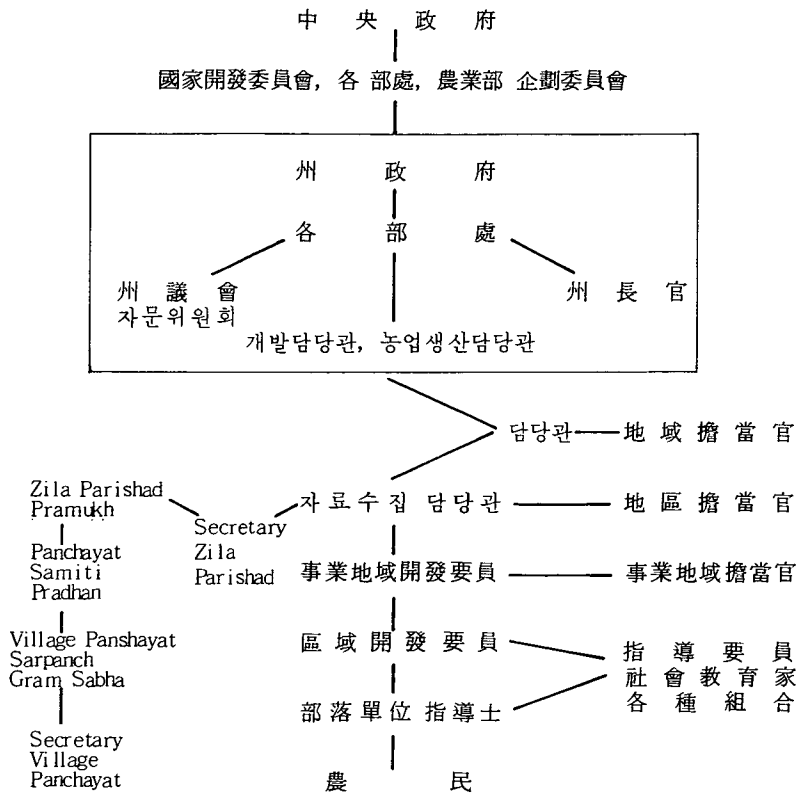
地域開發事業은 식량생산의 증대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集約的農業地帶 프로그램 (1960 ~ 61 년, 1964 년) 등이 행해졌다. 個別 農家單位의 경영계획이 農村指導士에 의해 세워졌지만 경작기술의 미흡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결국 1967 年 쌀, 밀 등의 多收穫 新品種의 보급으로 農業生産量이 늘기 시작했다. 물론 新品種의 보급 이외에도 획기적인 指導方法으로 인한 빠른 技術보급이 이러한 농업생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도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新品種의 도입으로 大農과 小農의 격차가 더욱 커져 갔다. 즉 새로운 農業技術의 혜택이 대농층과 소농층에 똑같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결국 농촌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소농 및 農業勞動者의 조직이 만들어졌고, 綜合農村開發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RDP) 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1980 년 10 월 현재, 5,004 개의 地域開發구역에서 綜合農村開發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나. 指導體系 - 印度의 國家指導事業

農村指導教育은 우선 農業情報를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며, 또한 農民들이 자기 자신의 營農體制 속에서 농업정보를 종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도와주는 일까지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기 위해 州政府와 中央政府가 지도사업을 하나의 指導體系로 조직하게 되었다. 국가 지도사업은 1953 년 시작된 후 지도사업의 조직이 각각 다른 수준 (즉 국가, 주, 구역, 마을 등) 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림 1〉을 보면 각각 다른 수준의 조직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는가를 알 수 있다.

指導體系는 水直・水平관계가 혼합되어 있는데, 州政府에서부터 農民까지는 몇 단계를 거치는 水直的 意思傳達조직을 이루며, 각 단계에서의

그림 1 國家指導事業의 組織體系



여러 開發專門家들끼리 水平的 意思傳達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림 1〉에 보이는 전반적인 指導組織 이외에도 특별 指導組織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小農 및 農業勞働者 開發機構」 「種族開發機構」 「가뭄상습지역 開發機構」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농촌지도사업은 때로는 指導프로그램의 형태로 실시되고, 때로는 指導體系의 형태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指導體系의 가장 큰 문제는 말단의 指導士인 部落單位의 指導士가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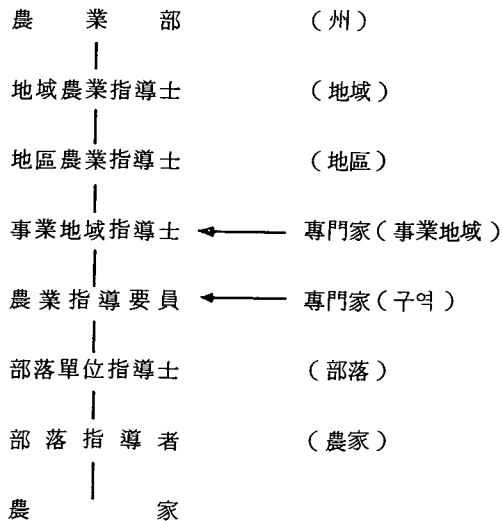
당해야 하는 農民의 數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專門的인 지식 수준이 최근의 농업기술의 발달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部落單位的 指導士는 農業指導 이외에 여러가지 일을 수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世界銀行의 지원을 받아 農村指導事業體系를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조정된 指導體系는 훈련 - 방문체계 (Training and Visit System) 로 불리워진다.

다. 재조정된 農村指導事業(훈련 - 방문 體系)

새로 재조정된 농촌지도사업의 조직체계는 〈 그림 2 〉와 같다.

組織原理는 간단하지만 기존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農民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단계를 크게 둘로 나누어,

그림 2 재조정된 指導事業의 조직



첫째 단계에서는 專門家が 指導士를 훈련시키고, 둘째 단계에서는 指導士가 농가를 방문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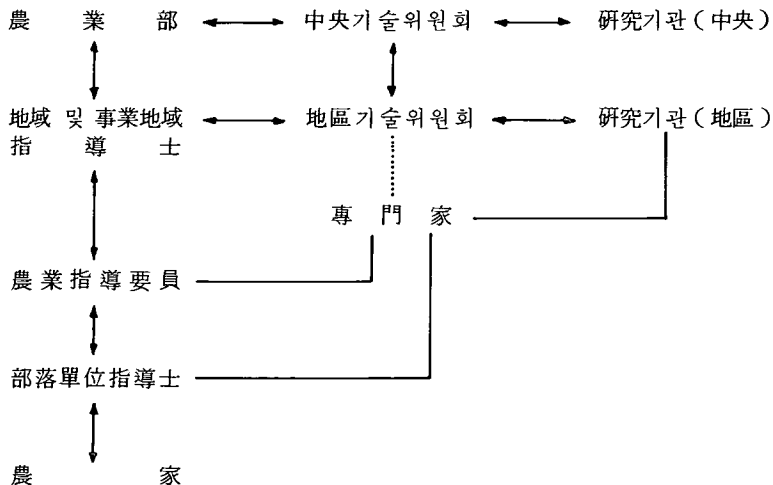
指導士에 대한 훈련과정은 2주간으로 짜여진 계획에 따라 專門家が

담당하고 훈련을 마친 指導士는 일주일에 4일씩 정해진 날짜에 農家를 방문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部落單位의 指導士가 방문해야 하는 農家の 數도 시범지역에서는 500 농가, 다른 지역에서는 800 농가로 전에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한 사람의 農業 指導要員이 8명의 部落單位의 지도사를 담당하며, 3 개구역 내지 5 개구역에서 일하는 80 ~ 100 명의 部落單位의 指導士를 專門家의 도움으로 관장하는 사업지역이 프로그램 시행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指導體系가 현재 13 개 州에서 확립되었고 다른 州에서도 곧 구성될 것이다. 새로운 指導體系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물론 갖고 있다. 예를 들면 部落指導者가 指導士와 農家를 이어주므로 새로운 指導事業의 성패는 이들의 활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研究는 이들의 선정과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예전의 指導事業의 혜택을 받은 부유층 農民이 다시 指導事業의 指導者로 일하고 있다.

기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장점 이외에 새로운 훈련 - 방문체계는 研究事業과 指導事業의 긴밀한 관계를 성립시켰다(그림 3). 專門家

그림 3 指導事業과 研究事業의 연관성



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들은 한달의 1/3은 가까운 연구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農業指導要員과 部落單位指導士를 훈련시키는 일을 한다. 이때 農業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農民이 처한 문제를 들어 다시 研究機關에 전달한다. 部落單位指導者의 정기적인 방문은 農民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는데 특히 部落指導者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 印度에서의 指導事業의 成果

指導教育은 전반적인 농업개발과 특히 農業生産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별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1950 - 51년의 5천만톤에서 1980년에 1억3천만톤까지 농업생산이 증대된 공로는 대체로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지도교육의 역할, 지도전문가 및 지도요원의 공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生産의 增加라는 指導教育의 크나큰 성과 이외에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指導教育은 새로운 教育觀을 심어주었고, 특히 農業部門에 혁명을 가져왔다. 새로운 科學과 技術을 농촌사회에 보급시켰고 農業開發은 물론 다른 開發프로그램도 科學的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農民을 도와왔다. 다시 말해 指導教育으로 말미암아 農民들이 傳統的인 思考方式과 行爲를 버리고 科學的인 思考方式에 입각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2) 指導教育의 실시는 農科大學 및 研究所가 실제 현실에 맞게 研究를 하도록 하였다.

(3) 農業分野에 대한 研究方向이 보다 問題中心的이고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되도록 하였다.

(4) 指導教育은 研究者와 農民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였다.

(5) 指導教育은 農村社會, 특히 農業社會가 갖는 중요성과 價値를 스스로 認識하도록 해주어, 農民들이 自立心과 自尊心을 갖도록 하였다.

(6) 社會經濟發展을 위해서는 技術의 보급뿐만 아니라 社會構造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7) 農村指導教育으로 開發機構간의 協力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8) 農業研究에 대한 諸學問間의 統合된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시도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지도교육의 성과이다. 農業관련 分野에 대한 社會科學的 研究를 예로 들 수 있다.

(9) 農業 관련분야의 人력개발도 매우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많은 수의 碩士와 博士가 배출되었고, 指導要員과 農民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력의 質이 높아졌다.

마. 指導事業의 앞으로의 課題

指導教育은 農民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문제와 과제는 더욱 까다로울 것이고 指導要員은 보다 빨리 이런 과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課題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技術의 專門性이 高度化될 것이므로, 指導要員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이에 맞는 指導方法을 개발해야 한다.

(2) 研究者가 보여준 研究結果와 실제로 農民들이 사용해서 나온 結果간의 격차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개별적인 農業技術의 보급에서 農業技術 전반에 대한 보급이 되어야 한다. 즉 農業技術 보급에 대한 體系的인 接近방법이 필요하다.

(4) 農民간의 所得격차가 두드러지므로 이에 대한 研究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指導方法의 開發이 필요하다.

(5) 農業技術에 대한 패키지(package)의 개발은 항상 강조되어 온 바지만, 최근에는 각종 서어비스와 政策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技術과 政策의 패키지를 각층의 농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指導方法의 패키지도 서둘러야 한다.

(6) 指導事業과 研究事業간의 관계가 아직도 적은 형편이다. 두 事業간의 交流를 위한 制度的 장치기 필요한 때이다.

(7) 指導教育은 科學的 知識의 傳達이므로 이에 맞는 科學的인 指導方法과 指導技術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指導分野의 研究가 더 많아

져야겠다.

(8) 大學과 大學院의 農業教育學科의 교과과정의 改편되어야 한다. 랜드하와 위원회(Randhawa Committee 1976)의 報告書를 참조하여 指導教育, 다른 社會學科, 그리고 主題別 教育內容이 조화있게 짜여져야 한다. 특히, 훈련과 意思傳達 및 관리의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

(9) 指導教育에 대한 研究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개념정립과 방향설정에 치중하면서 수용과 전파에 관한 研究가 행해졌다. 다행스럽게도 차차 研究의 關心이 意思傳達, 指導方法, 훈련 및 開發프로그램의 수행 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 인도의 8개 州에서 실시된 指導教育에 대한 綜合研究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앞으로 이런 종류의 研究가 정기적으로 행해져서 指導教育의 문제와 제약점을 政策決定者나 開發프로그램의 수행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현재 農村指導가 專門的인 서어비스라고 생각되므로 보다 적절한 훈련과 각종 설비로 指導教育이 보다 專門的인 서어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國家나 州를 비롯한 각종 수준에서의 指導事業에 指導教育에 대한 研究者나 專門家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농촌지도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라 7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印度農業教育學會가 구성되어 있어 學會誌도 발간하고 있다. 指導教育은 인도의 개발과 특히 농촌 및 농업개발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바. 指導事業의 制約

대부분의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각기 指導事業이나 補助事業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사업의 형식과 조직의 구조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 目的은 동일하다. 즉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人間生活의 質的 向上과 經濟社會的 變化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지도사업을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組織上의 문제점, 指導要員의 일에 대한 과중한 부담, 專門的 能力의 결여, 研究와 指導事業간의 효과적인 연결의 결여, 事業의 중복, 指導要員에 대

한 社會的인 대우 등을 들 수 있다.

(1) 組織의 問題: 대부분의 指導事業體系에는 명령과 技術的인 지원의 單一化가 결여되어 있어, 部落單位의 農村指導士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며, 또한 여러 명의 감독에 따라야 하므로 農業生産에 관한 指導에 만 전념할 수가 없다. 作物生産에 관한 指導事業은 專門的인 일이며, 農民들 또한 정기적으로 技術指導를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農業指導士는 農業部의 行政的, 技術的인 지원과 감독하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2) 指導人力의 問題: 대부분 現場 指導要員은 많은 수의 農家를 상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2,000 ~ 5,000農家를 한 사람의 指導要員이 담당하고 있어 農家와의 긴밀한 접촉과 적절한 시기의 技術指導가 어렵다. 또한 지도요원의 기동력도 교통수단의 결여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農家の數와 地域이 줄어들어야 한다. 作付體系와 地域의 農業과 生態學的 조건에 따라 대략 500 ~ 700 農家를 한 사람의 指導要員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專門性的의 問題: 現場의 指導要員은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농가를 상대해야 하고, 부적당하고 오래된 교육기재를 갖추고 있어, 專門性이 약하고 農業에 대한 知識이 적다. 指導要員이 최근의 作物生産 技術을 계속 익힐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기관과 농과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훈련 - 방문 체계’의 方法이 효과적인 것이다.

(4) 研究와 指導事業간의 연결문제: 研究와 指導事業간의 연결이 약하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生産技術이 계속적으로 農家에 보급되지 않는다면, 指導事業은 그 의미를 잃고, 農民이 처한 문제를 연구기관이 모른다면 研究는 학문적인 것으로 끝나 실제의 농촌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研究기관과 指導기관간의 효과적인 協力을 위한 확고한 制度的 장치의 필요하다.

(5) 事業의 重複性: 인도를 비롯한 대개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같은 目

的을 가지고 같은 事業對象(즉 農民)을 갖는 여러 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노력과 활동의 중복을 의미하며,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고, 때로는 경쟁과 갈등관계에 있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各種기관 的 役割과 活動을 명백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

(6) 指導事業과 要員에 대한 社會的인 대우문제 : 지금까지의 언급한 제약으로 인해 指導事業은 社會的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要員들의 사기나 급여수준이 낮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指導事業의 성과나 역할에 영향을 미치므로, 指導事業이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이 되도록, 적어도 研究者의 수준까지 指導要員의 社會經濟的 地位를 높여줘야 하고 專門性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農民과의 意思傳達

광범한 의미에서 본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그 성격에 있어 多學問的이며 독특한 社會·心理, 經濟, 文化 行政的 상황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의사전달자들, 특히 科學과 技術에 기초해서 農村의 經濟社會的 變化를 일으키기 위해 농촌의 의사소통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營農制度, 農業生態學的 조건, 發展의 정도가 다양하며, 농민들의 社會心理的·經濟的·教育的 특성과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行動方式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농업기술과 화학비료, 多收穫 品種, 農藥 등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農業生産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민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指導方法과 의사전달 매체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傳達에 달려 있다. 실제로 開發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계획의 핵심은 의사전달의 전략이 되어야 하며, 계획수립자, 입안자, 정책수립자, 研究者, 農村指導 관계자 등 모두가 개발과정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의사전달 전략을 중요한 要素로 인식해야 한다.

농민과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方法과 기술전달 方法을 자세히 論議하

기 전에, 먼저 의사전달의 일반적인 모형과 의사전달 방법의 종류, 그리고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의사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의 概念과 模型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Leagans (1961)의 定義가 指導事業의 概念과 가장 가깝다 하겠다. 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이나, 사실, 감정 등을 교환하는 過程으로 전달내용에 대한 意味와 의도 등에 대한 相互理解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Hovland(1964)는 커뮤니케이션을 ‘送信者(communicator)가 受容者(communicatatee)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傳達하는 過程’이라 하였다. 그밖에도 많은 定義가 있지만, 대개 커뮤니케이션이란 過程, 相互作用, 效果 등을 나타내며 몇 개의 要素로 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個個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공통되는 要素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過程의 일반적인 모형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들 要素들간의 관계이다. 많은 學者들이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 왔는데, 결국 이러한 共通要素에 대한 나열과 說明이 된다. 모형은 다양해서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해 유용하고, 또 어떤 것은 보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재의 지식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모형이란 있을 수 없다. 몇 개를 소개해 보면,

(1) Aristotle (1946)

- ① 話者(the speaker)
- ② 對話(the speech)
- ③ 聽者(the audience)

(2) Shannon 과 Weaver (1947)

- ① 情報源(a source)
- ② 送信機(a transmitter)

- ③ 信號 (a signal)
- ④ 受信機 (a receiver)
- ⑤ 目的地 (a destination)

(3) Schramm (1954)

- ① 情報源 (source)
- ② 記號者 (encoder)
- ③ 信號 (signal, message)
- ④ 전달媒體 (channel)
- ⑤ 解讀者 (decoder)
- ⑥ 受容者 (receiver)

(4) Berlo (1960)

- ① 情報源 (the communication source)
- ② 記號者 (the encoder)
- ③ 메시지 (the message)
- ④ 媒體 (the channel)
- ⑤ 解讀者 (the decoder)
- ⑥ 受容者 (the communication receiver)

(5) Leagans (1963)

- ① 發信者 (communicator)
- ② 메시지 (message)
- ③ 媒體 (channel)
- ④ 정보처리 (treatment)
- ⑤ 受容者 (audience)
- ⑥ 受容者の 反應 (audience response)

(6) Fano (1963)

- ① 情報源 (source)
- ② 情報記號者 (source encoder)
- ③ 媒體記號者 (channel encoder)
- ④ 媒體 (channel)

⑤ 媒體解讀者 (channel decoder)

⑥ 情報解讀者 (source decoder)

⑦ 사용자 (user)

그밖에도 Westlay 와 Maclean (1957), Fearing (1953), Johnson (1953) 등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모형이 있다. 이들의 모형을 비교하면 매우 비슷한 데, 다만 用語의 차이가 있고, 한두 要素의 첨가, 그리고 學者들의 學問的 觀點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模型에서는 意思傳達에 필요한 세 가지 基本要素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말하는 사람, 말의 내용,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것인데 대부분의 模型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형과 비슷하다.

現代 커뮤니케이션 模型으로 잘 쓰여지는 數學者인 Shannon 과 전기 공학자인 Weaver 의 模型은 1947 년에 개발되었다. 비록 그것이 電子의 전달을 말하고 있지만 行動科學者들은 人間의 意思傳達過程에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 模型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情報源은 話者를 말하며, 信號는 對話를, 目的地는 聽者를 가리킨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 이외에 情報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의 두 要素가 첨가되었다.

Berlo 의 모형을 살펴보면, 모든 人間의 커뮤니케이션은 情報源을 갖고 있다. 情報源은 생각, 의도, 意思傳達의 目的 등을 갖고 있는데, 情報源의 목적은 메시지라는 形態에서 나타나게 된다. 情報源의 目的을 부호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므로 세번째 要素인 記號者가 필요하다. 記號者는 情報源의 생각을 符號로 바꾸어 메시지의 형태로 情報源의 목적을 표현해 준다. 네번째 要素는 媒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媒體의 선택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말하면 누군가는 듣는 것이며, 글을 쓰면 누군가는 반드시 읽게 마련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에는 對象인 受容者가 있다. 情報源이 자기의 목적을 부호화하여 메시지로 바꿔줄 記號者가 필요하듯이, 受容者도 記號를 해독하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解讀者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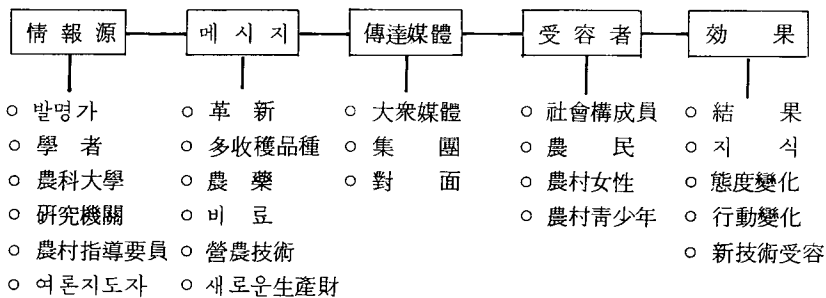
Leagans 의 模型도 Schramm이나 Berlo 의 模型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모형은 指導要員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보다 개념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情報의 처리와 受容者의 반응을 模型에 포함시켰다. Fano의 模型은 符號化와 解讀의 과정을 보다 세분하여 확실히 하였다.

지금까지의 論議로써 커뮤니케이션은 몇 개의 要素 즉 發信者(研究者, 學者, 主要 發信者 등), 메시지(새로운 발견, 革新,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에 대한 처리, 媒體(大衆傳達媒體, 對面 등) 및 受容者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過程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過程을 완결시켜 受容者의 바람직한 반응(예를 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行動變化)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要素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要素의 잘못은 전체 과정을 깨뜨리는 법인데 농촌지역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조화된 과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각 要素가 의사전달의 效果를 결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림 4〉는 農民과의 意思傳達과정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農民과의 意思傳達過程 模型



나. 主要 意思傳達體系

주요 意思傳達體系로는 첫째, 行政體系를 들 수 있다. 中央과 地方의 각종 行政機關으로 구성된 行政體系는 行政機構간의 情報 교환이라는 水平構造와 行政機構와 주민간의 情報교환이라는 水直構造를 갖고 있다.

둘째, 宗教機關, 勞動組合, 協同組合, 婦女會 및 靑少年組織 등의 利益集團간의 意思傳達體系가 있다. 셋째로, 正規教育機關과 成人教育機關을 들 수 있으며, 넷째로, 新聞, 放送 등의 大衆傳達 體系나 극장이나 여가 활동모임 등의 文化的 장치로 구성되는 文化體系, 다섯째로, 變化主導體系를 말할 수 있다. 이는 行政體系 및 利益集團의 體系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變化主導體系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體系網(network)를 갖는다. 예를 들면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人口·保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위한 意思傳達體系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非公式的 傳統的 意思傳達體系가 있는데 예를 들면 部落會議, 市場, 장날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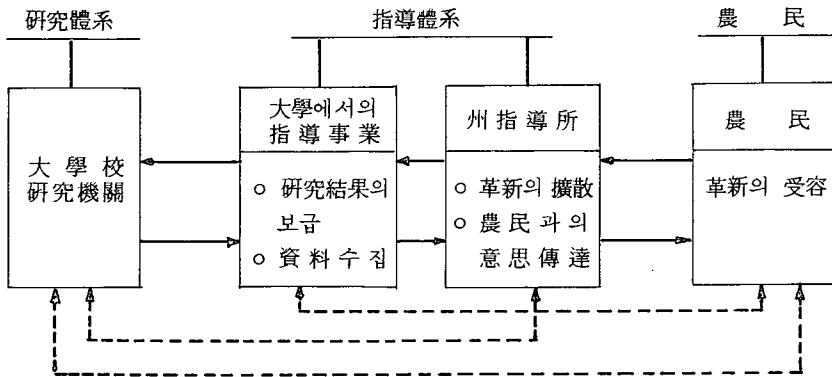
다. 印度의 農業情報 傳達體系

지금까지 論議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模型, 體系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印度에 있어서 農民과의 意思傳達을 보여주는 農業情報 傳達體系를 예로 들겠다.

1) 効果的인 意思傳達을 위한 農業研究, 指導事業, 農民간의 연결관계

農業生産의 증대를 위해서는 科學的인 研究에 의한 經濟的이며 적합한 영농기술의 개발과 시기에 맞는 기술의 빠른 보급이 필요하다. 즉 農業情報와 革新을 창출하고 전파하기 위해 研究體系, 指導體系, 對象住民 등의 세 體系간의 統合이 필요하다. 研究體系는 새로운 農業技術과 革新을 개발하고, 指導體系는 새로운 技術의 보급과 農家가 처한 문제를 研究體系에 알려주는 일을 담당하며, 對象住民인 國民들은 결국 技術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5〉는 이들 세 體系간의 연결관계를 표시한다. 이들 세 體系간의 연결관계의 성격과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과 각각의 體系 속에서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意思傳達過程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거나 變型되고 있다. 이들 세 體系에 대해, 農業開發過程에서의 役割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겠다.

그림 5 研究, 指導事業, 農民간의 연결관계



國家農村指導事業：農村指導事業은 農業情報를 확산시키기 위해 農民을 敎育시키고 그들의 營農體制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담당한다. 指導事業의 組織과 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各급 수준에서의 指導事業體系的 關係망은 水直的·水平的 意思傳達過程을 포함한다. 指導事業은 연구기관이나 농과대학에서 소개된 새로운 營農技術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들의 반응과 現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시 연구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印度의 指導事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재조정되어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빠른 보급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직접 個人面談을 하거나, 集會를 이용하거나, 大衆傳達媒體를 이용하는 등의 모든 指導方法과 媒體를, 보급시키려는 기술의 종류나 農村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印度의 農業情報委員會：인도정부는 1958년 부터 農業 및 水利省(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산하에 農業情報委員會를 두고 있다. 이곳은 農業 및 農村開發部, 州農業部 산하의 기관과 各급 수준의 農村指導委員과 農民에게 意思傳達過程에 필요한 各급 지원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農村指導 關係자료, 시청각교재 등을 만들고 때로는 농업관계의 전시회를 전국규모로 열고 있다.

印度農業研究委員會의 情報體系：산하에 39 개의 연구기관을 갖고 있

는 印度農業研究委員會도 하나의 독자적인 情報體系를 갖고 있다. 印度農業研究所, 印度獸醫研究所, 國立畜産研究所 등의 3개 연구소는 독립된 農村指導課가 있으며, 다른 研究所들도 개발된 農村技術의 보급을 위한 農村指導事業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國家示範(National Demonstrations), 시행 조사研究(Operational Research Project)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농사기술의 보급과 농민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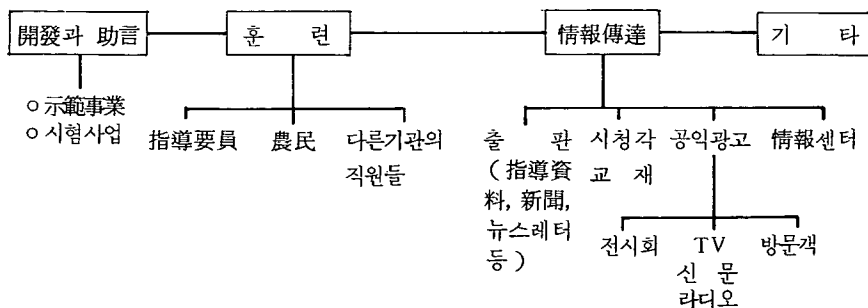
農科大學의 情報傳達體系: 인도의 23개 농과대학은 農業教育學科가 있으며, 소재 지역에서 技術보급을 위해 농민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어떤 學校에서는 독자적인 교육매체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指導教育資料를 만들고 있다. 자신의 農村指導事業이나 農業部가 벌이는 農業示範事業을 원활히하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작까지도 하고 있다(그림 6).

그밖의 機關: 상당한 부분의 農村指導業務는 비료회사, 농약회사, 농기계제작회사 등과 같은 산업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많은 自願集團들이 농촌개발과 농사기술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61개소의 라디오放送 중계소와 31개소의 텔레비전放送 중계소도 農村指導의 한 몫을 담당하고, 250여개의 각종 農民新聞이 情報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기관들이 농사기술의 보급에 힘을 쓰고 있으나 적절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6 기술전달에 있어서의 농과대학의 역할



2) 農業技術 보급의 문제 : 知識과 生産의 격차

인도의 경우, 研究事業과 指導事業의 관계망이 잘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表 1〉에서 처럼 研究者의 실험결과, 示範事業의 生産量과 실제 농가에서의 生産량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인도의 식량생산이 1949 ~ 50 년 약 5 천만 톤에서 1981 ~ 82 년에 1 억 3 천 3 백만 톤으로 증가는 되었지만, 農業生産能力과 실제 生産量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表 1 主要 곡물생산량의 격차, 1977 - 78

作物名	실험결과 (q/ha)	示範事業 (q/ha)	全國平均 (q/ha)
쌀	80	51.77	23.17
옥수수	90	34.30	10.43
수수	40	26.22	4.27
사탕수수	70	42.95	7.26
밀	75	36.65	14.77

이러한 生産량의 격차는 研究, 指導事業간의 연결이 약하고 意思傳達體系가 약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 情報의 손실과 변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表 2〉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表 2 研究機關에서 指導體系로 전달되는 정보의 손실

수준	情報 1	情報 2	情報 3
研究기관 최초의 정보	100.00	100.00	100.00
指導體系			
地區	55.27	70.12	80.77
地域	52.16	62.20	71.24
部落單位指導士	28.74	43.73	56.62

註 : 情報 1 : 밀에 대한 요소 시비방법
 情報 2 : 옥수수의 줄기구멍의 처리방법
 情報 3 : 2·4 - D 제초제의 사용

3) 技術水準과 生産量の 격차를 줄이는 方法

農業技術과 生産者간의 격차는 빈곤, 資源부족, 投入財와 자본의 부족, 投入財의 가격, 수지가 맞지 않는 가격조건 등으로도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농민의 무관심한 최신 농업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업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研究, 指導體系, 對象農民간의 연결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며, 부족한 情報傳達體系와 적절한 指導方法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농사기술의 전달에 있어서 指導方法과 傳達體系의 물이해 때문에 일어나는 現象이다. 따라서 농사기술에 대한 지식과 생산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절한 指導方法과 傳達媒體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몇몇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研究結果, 情報源과 傳達媒體에 대한 신뢰도가 틀리게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效果도 媒體에 따라 틀리게 나타났다(表 3에서 表 5까지 參照).

表 3 情報源에 대한 農民의 신뢰도(Singh 1981) : 全體家族

情 報 源	신 뢰 도 指 數
示範事業	2.09(1)
研究者	1.93(2)
區域農村指導所	1.65(3)
독 농가	1.73(4)
텔레비전	1.27(5)
라디오	0.68(6)
印刷物	0.11(7)
新聞	- (8)

()안은 順位를 나타냄.

表 4 情報源에 대한 農民의 차별적 신뢰도

順 位	발전된 마을 / 독농가	낙후된 마을 / 일 반농민
1	專門家	示範事業
2	라디오	독농가
3	독농가	專門家
4	區域農村指導所	區域農村指導所
5	示範事業	라디오
6	印刷物	印刷物
7	新聞	新聞

表 5 시청각교재의 효과측정

종 류	슬라이드	사 진	수업자료카드	圖 表	영 화
平 均 值	15.30	14.85	10.86	8.95	6.80

4) 媒體의 혼합

어느 한 가지의 傳達方法이나 情報源, 傳達媒體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일 수는 없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당한 傳達媒體의 혼합과 傳達方法의 順次的인 사용이 중요한데 〈表 6〉은 印度農業研究委員會가 조사한 媒體의 혼합 方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가지 例에 불과하며, 상황과 技術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의 傳達媒體의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傳達內容과 제시방법을 바꿔가면서 또 한 여러종류의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5) 意思傳達方法의 統合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대로, 농업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傳達過程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은 점점 증대될 것이다. 意思傳達의 핵심은 농민들이 農業生産에 참여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혜택을

表 6 적절한 傳達媒體의 혼합방법

媒體의 혼합방법	效果度	順位	비고
라디오+슬라이드+現場방문	14.58	1	統計値가 비슷함
벽화+슬라이드+現場방문	14.45	2	
벽보+슬라이드+示範事業	14.25	3	
전시회+집단토의+示範事業	12.96	4	統計値가 비슷함
영화+집단토의+示範事業	12.60	5	
벽화+집단토의+示範事業	11.76	6	統計値가 비슷함
라디오+印刷物+示範事業	11.64	7	
영화+印刷物+示範事業	11.25	8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傳達하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된 意思傳達 方式에 의거한 커뮤니케이션이 農村 및 農業綜合開發의 핵심부분이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과 농업개발의 통합은 農業部, 農村開發部, 公報部 등의 관계부처간의 정식 협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관계기관과 공무원과 指導要員간의 비공식적인 협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협력이건간에 農民의 參與가 요구되는 프로그램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統合方式은 情報의 전달에 있어서 현재의 개별적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統合方式은 첫째 大衆傳達媒體의 정보의 통합과 둘째 個人간의 의사소통, 셋째 조직내의 의사소통과 조직간의 의사소통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의 類型과 정보매체에 대한 差別的인 신뢰도가 對象農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즉 낮은 教育水準과 낮은 技術受容程度의 小農層에게는 示範, 시청각 교육, 部落指導者나 독농가와와의 對話와 面談등이 효과적인 전달방법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농가들에게는 라디오, 텔레비전, 印刷物, 專門家나 研究者 등이 효과적인 傳達方法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어느

한 가지의 傳達方法이 여러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없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절한 傳達方法의 順次的인 사용이 바람직하다.

意思傳達의 方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指導方法과 傳達媒體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한다. 즉 기존의 媒體를 보다 완전하게 하고 새로운 媒體를 개발하기 위해서, 媒體의 개별적인 효과와 혼합 사용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종류의 對象農民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傳達方法의 개발을 위해서 共同研究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農科大學과 研究機關의 역할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새로운 농업기술에 따른 적절한 指導方法과 傳達媒體의 開發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농업기술이 그대로 農村에 보급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Burce R. Crouch & Shankariah Ch, *Extension Education and Rural Development* Vol. 2, (edited) John Wiley and Sons Ltd., New York, Chicago (1981).
- Singh, K.N., *Application of Sciences and Technology in Agriculture : The Indian Experience*, The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Sapru House, New Delhi, India (1983).
- Singh, K.N., C. S. Rao and B.N. Sahay, *Research in Extension Education : For Accelerating the Agril. Development Process*(Edtd) Indian Society of Ext. Edn. Division of Agril. Extension, I.A.R.I., New Delhi (1969).
- Moulder, Addition H. *Agriculture Extension, A Reference Manual*, FAO, Rome (1972).
- Third International Seminar in Extension Education (1977). Department of Extension Education, Agriculture University-Wageningen, The Netherlands.

- Background Papers-Workshop on Managerial of Farm Technology under the T & V System, February 1-8, 1983, N.I.C.D. Hyderabad, India (Unpublished).
- Singh, K.N., "Challenges of Extension Education in Eighties," *Indian Journal of Ext. Edn.* 1980. Division of Agril. Extension, I.A.R.I., New Delhi, India.
- Benor, and James Q. Harrison, "Agricultural Extension," & "The Training and Visit System." World Bank, Washington, U.S.A.
- Heque, S.M.S. *A Study on Communication of Agricultural Information and the Extent of Distortion Occuring from District to Village Level Workers in Selected IADP Districts.* A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Udaipur, 1979.
- Singh, K.N. et. al. *Report of the All India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 in Extension Education*, Division of Agril. Extension, I.A.R.I., New Delhi, 1980.
- Sadamate, V.V. *A Study of Tribal Farming System and Technological Gaps.* Unpublished Ph.D Thesis. Div. of Agril. Extension. IARI., New Delhi (1978).
- Shankariah Ch. *A Study of Differentiate Communication Pattern in a Progressive and Non-Progressive Village.* Unpublished Ph.D. Thesis, Divn. of Extn., IARI, New Delhi (1969).
- Singh, J.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Viewing Behaviour of Farmers towards Agricultural Programme. on Television in Delhi Villages.* Unpublished Ph.D. Thesis, Divis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IARI., New Delhi (1971).
- Singh, K.N. and S.N. Singh. *Effective Communication Media for Rural Audience an Experimental Study.* The Dharmasi Morarji Chemical Company Ltd., Bombay.
- Singh, K.N. "Farm Information Development and Transfer System."

Rur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Policies. IIMC, New Delhi (1980)

Sigh, S.N., K.N. Singh and M.P.Lokhande. "Relative Effectiveness of TV Aids in Disseminating Information of Improved Methods of Sugarcane." *Ind. J. of Extn. End.*, Vol. II, (1971).

6. 農村指導事業分野 討論

가. 討議그룹과 主題

○ 제1 그룹

- － 討議參席者 : Dr. K.N. Singh, Dr. R.N. Tripathy, Mr. C. Gamage, Mr. C.Y. Liu, Mr. A.J. Kiawu, Mr. B.N. De Los Reyes, Mr. A.R. Soyfoo, Mr. M. Mohamed, Dr. H. Dawood, 董烈模, 金正龍, 趙在衍, 崔洋夫
- － 討議主題 :
 - ・ 農村指導事業의 活動범위와 目標
 - ・ 農村指導員의 活動범위와 機能
 - ・ 農村指導 對象
 - ・ 非正規 團體의 役割
 - ・ 農村指導事業의 접근 방법

○ 제2 그룹

- － 討議參席者 : 王仁權
 - ・ Mr. B.B. Sharma Mr. I.R. Kiiru, Mr. D.R. Nunez
Dr. S.D. Tendulkar, Mr. J.K. Amoaku, Mr. S.O.L. Amadi-Nna, Mr. A.A. Qader, Mr. C. Pongsroyech, 최문희, 강봉순, 노건길, Mr. R.P.S. Malik

나. 討論內容

農村指導事業의 活動範圍와 目標

농촌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이며 諮問活動으로서 특히 지도사업의 對象인 농민들로 하여금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어 농민들의 바람직한 行動變化를 가져 오도록 하는 사업이다. 과학적인 技術과 知識을 통하여 농민들의 태도의 변화,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농촌지도요원들이 資材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식의 補助的인 機能을 수행하는 者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건의한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의 범주내에서 농민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資材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諮問해 주는 것은 일선 농촌지도요원들의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은 인정했다. 서비스와 자재공급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일들은 농촌지도사업과 병행하여 농협, 농민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해 줌으로써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一線機關에서는 농촌지도사업기관과 관련단체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급 단위로 농업관련기관이 한곳에 모여 농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농업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農村指導員의 活動範圍와 機能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농업은 각기 국가별로 相異한 發展段階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開發目標과 計劃도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지역 국가들의 농촌지도사업도 일률적인 樣相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이 발전한 국가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은 보다 專門化된 單一 機能을 갖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그

러하지 못한 국가에 있어서 농촌지도요원은 多目的 機能을 계속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보다 상위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들 일선지도원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 주어야 한다. 농촌지도사업의 성격과 지도원의 임무를 생각해 볼 때 농촌지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專門知識과 農村指導方法論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組織力 등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職務訓練이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원들은 자신들의 職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현상은 拂拭되어야만 한다. 또한 농촌지도원의 근무조건도 그들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므로 농촌지도요원용 宿舍, 交通手段, 保健醫療 및 子女教育手當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회의는 건의했다. 현재의 농촌지도원들의 봉급수준, 승진기회, 전문성함양 등 근무조건은 유능하고 성실한 요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만큼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및 昇進機會賦與 등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農村指導事業의 效果擴散을 위한 메카니즘

현대 기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술발전은 개도국의 가장 취약부문인 농업에 부적합하게 資本集約的이고 에너지 중심형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농업과 자원 및 발전단계에 알맞는 適正技術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農村指導對象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스 미디어의 지원하에 실시되는 현장 演示教育, 그룹토의, 個別接觸 등은 기술수용의 頻度を 높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의 貧農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계속된 무관심과 疎外속에서 그들은 농촌지도 기관에 대한 불신,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로부터 농촌지도기관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信賴回復이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빈농들에게 적합한 적정기술과 적정 지도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난하므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최신 농업기술을 수용할 수 없다.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들의 신속한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농촌지도원들을 위한 각종 訓練教育 過程의 계획과 이들 계획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農科大學과 研究機關 그리고 기타 훈련기관의 役割과 責任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부여되어야 한다.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한 부녀자와 청소년 훈련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으며 모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실천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다. 따라서 이들 부녀자들과 청소년들을 가정과 농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 훈련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農村靑少年들의 雇傭增大와 所得機會를 마련해 주기 위한 特別訓練計劃이 세워져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非定規團體의 役割

農村地方單位에서 새로운 기술수용을 위한 媒介體로 자신들 스스로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권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따라서 본 회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技術傳達를 하기 위한 적절한 農村指導 方法論을 개발하여 농촌지도원과 이들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農村指導事業의 接近方法

농촌지도사업을 專門化하여야 하느냐 또는 一般化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의 農業發展段階와 技術 및 管理方法에 달렸다고 판단된다. 하나 또는 둘 정도의 主作物을 대상으로 專門化된 指導事業을 전개하면서 점차全體地域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農村指導事業의 管理方法

농촌지도사업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開發目標에 관련된 기술의 필요성에
서 導出된 농촌개발기술의 관리문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아
프리카 국가들은 生産性增大, 農民所得增大, 雇傭增大 등을 그들의 기본적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기술은 이 목표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 새로 개발되는 많은 기술들은 農業部門의 농민들만
을 위하여 개발되는 印象이며, 非農業部門을 위한 것은 별로 없다. 농업이
우선권을 갖고 계속 성장하여야 하겠지만 모든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는 限界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 회의는 개발된 많은 새로운 기술
들이 농촌사람들의 필요에 不適當하고 그 結果는 不足한 자원의 낭비를 초
래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1) 住民들이 必要로 하는 技術을 파악하는 制度의 開發이 必要하다.
- 2) 研究는 주민들이 必要로 하는 기술분야에 집중되어져야 하며 非
農業分野에도 확대되어져야 한다.
- 3) 開發된 기술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농업지대에 따라 技
術의 妥當性과 經濟的 適用性 등을 검토하는 광범위한 시험을 거
쳐야 한다.
- 4) 實用性 있는 기술의 광범위한 適用을 위하여 폭넓은 教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農民들이 最大의 利益을 얻기 위하여 事後 奉仕制度를 철저히 실
시해야 한다.
- 6) 重要한 技術情報管理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研究機關·指導機關·農民, 그리고 相關기관과의 連繫性

일반적으로 연구기관과 지도기관 그리고 농민 등 相關기관의 연계성은
취약한 편이며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관과 농
민간의 효과적인 對話窓口가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농민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기관과 대화를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기관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傳播시키는 방법이다. 동시에 농업자재, 유통, 금융 등을 지원하는 관련기관도 함께 농촌지도사업의 협조하에 있어야 한다. 농민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연구사업단독으로 시행된 일들이 이러한 계획이 도입된 이후 수정되는 예를 볼 수 있다. 물론 계획은 부락주민의 수준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의 수준은 농민의 教育水準, 資源利用可能性, 住民의 必要性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일선지역에서 地域單位로 지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연구기관과 농민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주는 橋梁役割을 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기관들로 하여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成功的인 農村指導事業 모델

본 회의 참가국으로부터 여러가지 농촌지도사업 모델이 제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두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다. 즉 (1) Trickle down model 과 (2) Induced model 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의 일부요인들 즉 組織, 財源, 政府의 役割 등이 성공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느 것이 성공적인 모델이고 어느 요인이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회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비슷한 요인들이 구분되어지고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반되지 않는 한 어느 모델이 성공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모델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資源節約效果가 있으므로 앞으로 AARRO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 이용결과에 대한 情報를 蒐集하여 관심있는 여러 나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기를 건의했다.

效果的인 農村指導方法 및 公報媒體

본 회의는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 있어서는 라

디오나 T.V 등 公報媒體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大衆傳達媒體 시설이 빈약하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중전달매체가 효율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個別接觸수단이 효과적이다. 그밖에 개별접촉과 대중전달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시험결과를 볼 때 개별접촉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이러한 전달매체수단은 국가마다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느 하나의 전달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선 농촌지도원의 신속한 移動性和 傳達手段을 갖출 수 있다면 개별접촉의 효과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農村指導訓練

농촌지도원을 잘 훈련시키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훈련의 필요성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급 單位機關에 따라서 파악되어져야 한다. 部落單位 일선지도요원에게는 간단하면서도 실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이고 高位層에서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훈련내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단위로 作目別 專門指導員들에게는 細分化된 專門作目訓練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각급단위 일선 농촌지도원들에게 전달기술의 숙달은 중요한 훈련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職務訓練 이외에도 각급단위에 있어서 미래에 지도원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訓練要員을 위한 訓練計劃도 중요한 요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훈련분야도 국제협력의 領域이 되고 있다. 전문훈련을 위한 外國에서의 국제훈련이 마련될 수 있고 農村指導員들의 海外視察은 지도방법론 개선과 함께 그들의 指導事業觀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IV

開發途上國間の 國際協力増進 可能分野

1. 國家間 協力 可能分野

開發途上國間の 國際協力 増進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하여 본 회의 참가국들이 필요로 하는 協力分野와 方法 그리고 그들이 供與할 수 있는 協力分野 등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表 2는 討議過程에서 導出된 協力可能分野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分 野	細 部 內 容
1. 適正技術의 開發 및 移轉	○ 農業生産技術 (쌀, 양잠, 양계, 사탕수수, 차, 코코아 등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 비닐農業技術 ○ 食品加工 및 쌀도정기술 ○ 農機具改良 ○ 農村에너지節約(특히 메탄가스) ○ 농촌건축자재 생산
2. 土壤保全 및 用水開發	○ 地下水 開發 ○ 農地開發(개간) ○ 토양유실 방지
3. 農村小規模 工業開發	○ 농촌가내공업(식품가공, 생필품 분야)

分 野	細 部 內 容
4. 人力開發	○ 農業技術者, 地方公務員 및 農村指導者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관리능력향상) ○ 교육훈련기법 ○ 전문가의 파견 (농업생산기술 등)
5. 情報, 資料의 交換	○ 農業生産技術 및 適正技術에 대한 研究 結果의 교환 ○ 國家間 研究機關과의 協力增大 ○ 전문인력의 교환 ○ 공동연구의 추진
6. 管理 및 計劃 技法	○ 농촌행정조직 및 관리운영 ○ 農村開發事業의 관리법 ○ 農村地域單位의 미시적 계획기법 (농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7. 農村指導 및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 農民指導技法 ○ 農民團體의 조직과 육성기법 (협동조합 등)

國家別로 필요로 하는 協力分野와 供與가능분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아시아 自由中國	1. 行政管理 - 農산물 무역정보관리 - 시험연구정보 관리 2. 教育訓練 - 빈곤층 타개를 위한 훈련	1. 教育分野 - 농지개혁 훈련 - 농촌지도 훈련 - 작부체계 훈련 - 가족계획 훈련 2. 水産業 技術支援 3. 行政管理 - 기술정보 관리기술 4. 農村開發 - 장기개발계획 기법 5. 共同研究課題 支援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한 국	1. 情報資料 交換 - 농업 관련정보 교환 2. 共同研究 支援	1. 農業技術 - 농업경영 - 수도육종, 재배 - 대두재배 - 옥수수 육종 - 과수재배 - 토양조사 관리 - 작물보호 - 축산 (가축사양) - 조치 - 잠업 2. 農業土木, 機械化 - 농지개량 및 경지정리 3. 食品加工 및 流通 4. 農民團體 - 농협육성 (유통포함) - 축협 // - 수협 //
필 리 핀	1. 教育訓練 - 부녀자훈련 (지역개발 참여방안) 2. 農村開發 - 농촌개발을 위한 · 조직관리 · 인력훈련 · 평가방법 - 지방단위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촌공업개발	1. 教育訓練 (연구포함) - 수도작 분야 - 수산업분야 - 야자유 생산기술 - 설탕 생산기술 - 산지작물 재배 - 지역개발 - 농촌전화 - 수리관개사업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태 국	1. 農業技術 - 잠업개발 기술 - 코코넛 재배기술 2. 山林技術 3. 行政, 技術管理 - 농업행정 관리기술 - 유통과 금융관리 4. 農業土木 5. 教育訓練 - 농촌개발전문가 훈련	1. 農業技術 - 작물보호기술 - 수도 및 식량작물기술 - 채소재배 기술 - 종자기술 2. 水産技術 3. 農村指導
말 레 지 아	1. 農業技術 - 과수재배 기술 2. 農村指導 - 농촌방송기술 3. 農民組織 - 부녀자 조직운영 기술 - 기타 농민단체조직 운영 기술 4. 教育訓練 - 교관요원을 위한 훈련기술	1. 農業技術 - 코코넛 기술 - 고무나무 재배기술 - 작물보호 기술 2. 農業土木, 農機械 - 농지개혁 계획 3. 教育訓練 - 농촌지도 훈련 4. 農村開發 - 농촌종합개발계획 기법
인 도	1. 適正技發開發 2. 에너지節約 技術 3. 에너지再生技術	1. 農業技術 - 낙농 - 수의 2. 水産技術 - 악어사육 3. 農村指導 4. 農民組織 - 농협조직운영 5. 教育訓練 - 중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스리랑카	1. 教育訓練 - 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방법론	- 매스커뮤니케이션훈련 6. 行政技術 管理 - 농업행정관리 7. 農村開發 - 농촌개발 - 농촌공업개발 8. 共同研究 - 자원관리
요르단	1. 農業土木, 機械化 - 농지개발 계획 - 관 기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農業技術 - 설탕생산 및 가공기술 -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 종자기술 - 양계 사육 기술 2. 農業土木, 機械化 - 수리관개 기술 - 유역개발 3. 食品加工 - 미곡가공 기술	1. 農業技術 - 수의학기술 - 조림기술 2. 教育訓練 - 농촌개발에 관한 초중급 관리자 훈련
가나	1. 農村指導 2. 農村開發 - 지역단위 세부종합개발 계획 수립기법	1. 農業技術 - 코코넛 야자생산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케냐	- 가내공업 및 농촌공업 기술 3. 農業土木 機械化 - 주택개량자재생산(타일, 벽돌 등) 4. 適正技術 開發 1. 農業技術 - 야자재배기술 - 종자생산기술 - 건조지 영농기술 - 잠업기술 2. 農業土木, 機械化 - 소농기구 개량기술 - 에너지절약 기술 3. 行政技術 管理 - 유통관리 - 연구관리 4. 農村開發 - 농촌공업개발 - 부녀자 소득개발 5. 人力開發	1. 農業技術 - 커피재배기술 - 차 생산기술 - 낙농기술 2. 食品加工 - 커피품질 관리 3. 教育訓練 - 농촌지도 중간관리자 훈련 4. 農民組織 - 농업협동조합 육성
사에라레온	1. 農業技術 - 야자재배기술 - 코코넛 재배 기술 - 농업경영 기술 2. 食品加工 - 설탕제조 기술 3. 農業土木 機械化 - 단순농기구 개발 - 농지 및 수리개발	1. 農業技術 - 수도재배 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에 지 트	4. 教育訓練 - 작목별 전문훈련 5. 農村開發 - 농업 관련 공업개발 1. 教育訓練 2. 農業部門 研究 3. 情報 및 人力交換	1. 教育訓練 - 농업 기술 - 농업 연구 - 농촌 지도 - 토목 기술
라이베리아	1. 農業土木 機械化 - 농업기계 2. 農民組織 - 농협육성 3. 農村指導 4. 適正技術 開發	1. 農業技術 - 시험연구 기술 2. 農村開發
모 로 코	1. 農業技術 - 수도작 - 사탕수수 - 차(茶) - 전작물 재배 2. 農業土木, 機械化 - 지하수 탐사기술 - 토양 침식방지 기술 3. 農民團體 育成 4. 農村指導	1. 農業技術 - 오렌지류 재배기술 - 축산업 기술 - 산림기술 - 비닐하우스 기술 2. 水産業技術
모 리 셔 스	1. 農業技術 - 잠엽기술 - 담배재배 기술 - 차(茶)재배 기술 - 양파, 마늘 등 재배기술	1. 農業技術 - 설탕 재배 기술

國 別	要 請 分 野	供 與 可 能 分 野
	2. 農業土木, 機械化 - 메탄가스 기술 3. 農村開發 - 소규모 가내공업 - 농업 관련공업 개발 4. 教育訓練 - 농촌개발 전문가훈련	

2. 韓國에 協力을 要請하는 分野

이번 회의에서 얻은 성과 중의 하나로 아시아·아프리카 開發國들이 한국에 요청하는 經濟 및 技術協力 分野를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바라고 있는 農業/農村開發을 위한 協力分野는 (1) 農業技術開發 (2) 農村開發 및 行政, (3) 農村小規模工業開發 (4) 農民團體의 組織과 育成 (5) 農村經濟組織의 5개분야로 집약되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아프리카 開發國들이 우리 나라에 요청하는 協力分野를 정리한 것이다.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1. 農業技術開發 - 작물재배 (쌀, 잡곡 원예작물 등) - 토지 및 용수개발 - 농기계 개발 2. 農村小規模工業 開發 - 식품가공 (특히 쌀도정 등)	○ 우리 나라의 전문가 개도국 파견 (연구전문가 또는 교수 등) ○ 개도국 전문가의 한국내 훈련 (한국의 대학원과정 또는 관계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 개도국 지도자에 대한 단위 연수 방문

協 力 分 野	協 力 方 式
3. 農村開發 및 行政 - 農村開發事業 樹立 및 評價 - 農村計劃技法 - 農村下部構造 및 環境開發 (농촌도로, 농촌의료, 가족 계획 등) - 農村指導 및 農民教育 - 農村새마을 運動 - 農村指導者 教育 4. 農民團體組織 育成 - 協同組合育成 5. 農村經濟 組織 - 農產物市場組織 - 農村金融制度	○ 개도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 물자지원 (연구, 교육훈련, 농촌지도 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 지원)

본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아프리카 開發國들이 바라는 對韓 協力要請
내용을 국가별, 細分野別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아 시 아 태 국	1. 農業技術 2. 農業土木, 機械化 3. 行政管理	○ 잠업기술 - 연수생 파견 ○ 농업토목 - 전문가 파견 - 연수생 파견 ○ 농업행정관리 - 연수생 파견 ○ 유통 및 금융관리 - 연수생 파견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인 도	4. 教育訓練	- 전문가 시찰·교환 ○ 새마을운동 연수 - 연수생 파견 ○ 농민지도자 연수 - 연수생 파견
	1. 行政管理	○ 행정 및 재정관리 - 전문인력 교환
	2. 農村開發	○ 미시적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기법 - 기술교환 - 인력교환
	3. 教育訓練	○ 지역지도자 훈련 - 전문가 교환
스 리 랑 카	1. 教育訓練	○ 공무원 민간지도자의 정신교육 - 훈련요원의 상호교환
아프리카 모 로 코	1. 農業技術	○ 전작물 재배 - 재정적 원조 ○ 수도재배 - 기술원조 - 연구결과 교환
	2. 農業土木 機械化	○ 농업수리관개 - 재정적원조
	3. 農村指導	○ 지도요원교환 - 훈련생 파견
	4. 教育訓練	○ 농민지도자 훈련 - 훈련생 파견
	5. 農村工業	○ 농촌소규모 공업개발 - 재정적 원조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나이지리아	6. 農村開發 1. 農業技術 2. 農業土木, 機械化 3. 食品加工 4. 農民組織 5. 農村開發	- 기술원조 ○ 농촌하부구조 개선 - 재정적원조 - 기술원조 ○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 전문가 파견연수 ○ 단순농기구 개발 - 전문가 파견 연수 ○ 지하수 개발 - 전문가 파견연수 ○ 미곡가공 기술 - 전문가 파견 연수 ○ 농협조직 개발 - 전문가 파견 연수 ○ 개발계획기법 연수 - 전문가 파견 ○ 농촌개발을 위한 정신교육 - 훈련생 파견
라이베리아	1. 農業 土木, 機械化 2. 農民組織 3. 行政管理 4. 農村開發 5. 農村工業	○ 농업기계화 지원 ○ 농협조직 개발지원 - 농협을 통한 유통 ○ 지방행정관리 기법 - 전문가 훈련 ○ 지역개발 ○ 농촌종합개발 - 도로, 보건, 교육, 가족 계획 기법훈련 ○ 농촌공업개발 - 인력훈련, 개발

國 別	細 部 分 野	協 力 內 容
케 나	1. 農村技術 2. 農業 土木 3. 行政管理 4. 教育訓練	○ 잠업기술 - 전문가 파견훈련 - 기술이전 ○ 농지개발 - 토목기술자 연수교육(석사과정) - 기술이전 ○ 연구관리 방법 - 전문가 교환 ○ 농업시찰단 파견 - 대학교수, 농업관련단체, 지도자, 농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파견 연수
모 리 서 스	1. 農業 土木, 機械化 2. 農村指導 3. 農村工業	○ 농업관계 사업 - 기술이전 ○ 지도공무원 연수 - 연수생 파견 ○ 농촌공업 개발 - 전문가파견 연수
가 나	1. 農業開發 2. 農民組織 3. 農村開發	○ 옥수수, 수도재배 - 기술지원 - 재정적 지원 ○ 농협조직 육성 - 농협을 통한 농산물유통 기술 연수 ○ 지역단위 미세종합개발 수립 기법 - 인력훈련 - 기술지원

附錄 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or Rural
Agricultural Development among Developing
Countries

1.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by the two sub-groups in terms of (a) ways and means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b) constraints on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1.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in commodities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2. Development, transfer and adaptation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e including energy
3. Innovations in economic institutions for the wide spread dispersal of the benefits of productivity growth.
4. Area development programmes to correct ecological imbalances such as drought-proneness, desertification, soil erosion, etc.
5. Programmes directed towards the

target-group of the poor, These may cover the top-down government-initiated programmes such as asset-development or asset-transfer for self-employment-generation, public works programmes for wage-employment generation as well as the non-official voluntary organisations organising the poor.

6. Development of cost-effective technologies and delivery mechanisms for effective transmission of social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family planning, etc.
7. Experiences in bringing about desirable changes in the social institutions, structure and attitudes so as to realise the full growth potential of technological changes. These may cover changes in attitudes required for adoption of high productivity technology, changes in the social institutions for effective use of water resources,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so as to facilitate economic mobility, etc.

Issue No. 1 :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in commodities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view of trade restriction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facing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need for expanding international trade among the Afro-Asian countries is obvious and has been emphasized.

In this connection, the consensus was that the AARRO workshop was not the proper forum for scrutinizing in detail complex trade issues, which have for a long time been the concern of Afro-Asian experts in UNCTAD and its standing committees. The group emphasized the fact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rade among developing countries was not only possible but would also have positive impact on the acceleration of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The group, therefore, recommended that AARRO should call upon UNCTAD, the group of 77, the African group and the Asian group in UNCTAD to do everything possible so that the volume of trade among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increased.

Issue No. 2 : Development, transfer and adaptation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agricultu
and non-agriculture including energy

Productivity-raising technological change has been recognised to be at the core of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leading to the improvement in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opul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limited role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emphasized. This points towards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area.

The discussions in the group brought out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involving themselves in the processes of developing, transferring and adapting new technology related to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e including the field of energy. It was, however, noted that the encouraging findings of research and experiments conducted in these institutions were mostly unknown and inaccessible to member countries. It was, therefore, suggested that some arrangement could be made to coordinate the work of these institutions and make the findings accessible to member countries, and that this would definitely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group emphasized certain persistent constraints which stand in the way of this cooperation such as:

- (i) Lack of fund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could extend help to developing countries of Africa and Asia in the development, transfer and adaptation of technology which is recognised to be a costly endeavour.
- (ii) Developing countries cannot cope up with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by hindering their ambition to develop and making them completely dependent on importation of foreign

technology which in most cases do not suit their situations

- (iii) Communication barriers among member countries at the implementation level.

Finally the group recommended the creation of a special unit in AARRO for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adaptation so that the access of the member countries to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could be improved.

Group also recommended that AARRO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widening the bilateral arrangements leading to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 existing facilities in AARRO need to be optimally utilized.

Issue No. 3 : Innovations in economic institutions for the widespread dispersal of the benefits of productivity growth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certain common institutional innovations and programmes such as cooperatives, farmers' organisations, land reform etc. have been attempted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widespread diffusion of growth-oriented technologies and thereby ensuring widespread dispersal o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economic growth.

In this connection, the group emphasized that the ways and means of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in the

area of development, adaptation and transfer of technology.

The group underlined the fact that institutional innovations, by their very nature, would be specific to socio-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s and that there would not exist any model which could be applicable and replicable in all the countries and all the situations.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it would be fruitful to study the determinants of success of different innovations such as cooperatives, farmers' or organisations, etc.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how they interacted with the economic forces in producing the desirable end-results. This could provide pointers regarding the adaptation of such organisational forms in different situations and valuable lessons could be drawn from the exchange of experiences in this connection.

The group recommended that the exchange of experiences could start with the circulation of indepth case studies of successful experimen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situations. AARRO may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f these case studies in collaboration with its member countries.

Issue No. 4 : Area development programmes to correct ecological imbalances

Afro-Asian countries face the common problem of ecological imbalances in the form of desertification, increasing frequency of droughts and soil erosion, it was noted that this problem

was not only caused by natural forces but was also partly man-made arising from (a) the extension of cultivation to marginal lands (in the densely populated economies), (b) the shifting cultivation (in some of the land-abundant African economies) and (c) deforesta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problem needed to be attacked from the long and the short-term viewpoints. The long-term solution lay in the development of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wherever water resources could be found or in the shift of population away from agriculture-related activities. The short-term solution consisted of developing a crop-mix which would optimally utilise the available moisture without further damage to the soil.

The long-term solution required geological and meteorological surveys regarding the frequency of the droughts and surface and ground water resource exploration. The need for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agencies was noted in this connection.

As regards the short-term remedies, the development of the drought-resistant varieties and agronomic practices for moisture conservation was deemed to be necessary. In this connection, it was noted that the research results from the institutions in India could be of relevance to Afro-Asian countries. Specific mention was made regarding the research results emerging from the International Crop Research Institute for Semi-

Arid Tropics (ICRISAT), National Soil Salinity Centre and the Co-ordinated Project on Dry-land Agriculture in India.

The problem of inducing the farmers in these areas to change the crop-mix was highlighted. The role of subsidies and other government assistance to farmers was underlined. Indian experiment in social forestry was mentioned in this connection. This consisted of suggesting to the farmers certain shrubs and trees which minimised the moisture requirement and did not cause any damage to the crop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xchange of research results (in crop rotations and agronomic practices) and exchange of scientific personnel was recommended in this connection.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was beyond the resource capabiliti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and consequently, a regional cooperation was deemed necessary in this connection. The need to creat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the decision-makers was underlined.

Issue No. 5 : Programmes directed at the target group of the poor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general growth-oriented programm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innovations which were conceived to facilitate the widespread dispersal of growth,

have left certain economically and socially weaker sections outside the purview of its benefits. Consequently, it is recognised that economic growth, by itself, would not tackle the problem of abject poverty. This realisation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mes directed towards the target group of the poor.

The group discussed the 'top-down' or government-initiated programmes for 'reaching the poor'. These consisted of credit-linked programmes for the development of existing assets of new assets among the poor households or public works programmes for wage-employment generation. The general limitations of such programmes was recognised.

In this connection, the group also considered the non-official ground-level programmes where the social action groups had been mobilising the poor in an attempt to improve their lot through collective organised action. Saemaul Undong experience (Korea) was specifically mentioned in this connection. Similar attempts of special programmes for low-income and small farmers (Republic of China) and change-agent programmes (Sri Lanka) were also discussed.

The group emphasised the need for combining the 'top-down' programmes with the ground level mobilisation of the poor in order to maximise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grammes.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in-depth case studies of such programmes was recommended as the first stage in

cooperation. This could be extended in the second stage to the exchange of training programmes for leaders and conscientizers.

Issue No. 6 : Supply of public services for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opulation

The programmes under this category include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such as elementary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health, sanitation, drinking water, nutrition support etc.

Complementarity among these services is widely recognised. From this follows the need for developing both the cost-effective technologies and delivery mechanisms in each individual social service and the package of such services to maximise their effectiveness.

The group emphasized the need for coordination of these services at the local level and for the use of local resources and indigenous skills to ensure participation of beneficiaries both in the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services. The role of widespread road and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services was highlighted.

Exchange of experiences in health care and family planning was specifically discussed. Experiments and experiences with rural health volunteers (Sri Lanka), involvement of volunteers from Farmers' Association (Republic of China),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s (Korea and many other countries), 900 service centres within walking distances (Ghana) and training of local persons in basic diagnostic capabilities and in the elementary treatment of the locally prevalent disease patterns (India) and similar experiments in many other Afro-Asian countries were mentioned for the possible international exchange of experiences.

Issue No. 7 : Experiences in bringing about desirable changes in social institutions, structure and attitudes

Productivity-raising technological change is recognised to be basically a permissive force capable of generating potential development. Full realisation of this potential requires changes in social institutions, structure and attitudes. Hence, the need to study the processes underlying these changes so as to learn about the dynamic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consensus in this connection was that social attitudes and institutions had been observed to change in the face of economic compulsion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t was, However, observed that, besides economic forces, the processes of social change were also influenced b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chievement motivation, recognition factor, etc.

The group felt that the social engineering aspects involved in the mass mobilisation for

social change deserved in-depth study. In this connection, the role of religious bodies, educational institutions, political parties, government initiatives, and non-official voluntary efforts and field visits as change agents was emphasized.

The exchange of indepth case studies of the processes of social change was recommended as a preliminary step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a general level covering all the issues, the group discussed the constrain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inance was indentified as a common constraint in this connection and aid fro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was observed to be one of the major means of overcoming this constraint. Economic integration among the neighbouring countries was suggested to be another possibility in this connec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workshop recommendations, the group recommended that the delegates to the workshop should make back-to-office reports to the highest level summarising the action points emerging from the workshop. It was further suggested that if their action in this connection could be repor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AARRO, he could follow up.

2. On Models of Extension and Communication for Rural/Agricultural Development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by the two sub-groups.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kshop on the various issues raised are as follows.

1. Scope and objectives of extension.
2. Multi-purpose versus single-purpose extension worker and status on extension worker.
3. Mechanism for wide spread dispersal of benefits of extension.
4. change agent and mass media.
5. Role of informal groups in extension education.
6. Intensive and extensive approach to extension.
7. Management problems in extension.
8. Effective linkages between and within research, extension, farmers, and supporting agencies.
9. Conditions for replication of successful extension approach.
10. Effective extension methods and communication media.

11. Extension training-strategy and institutions for training.
12. Mechanism for monitoring and techniques for impact evaluation of extension programmes.

Issue No. 1 : Scope and objectives of extension

The various concepts on the scope and objectives of extension were considered and it was agreed that extension is an educational and advisory process and that its aim is to bring about desirable behavioural changes in the people, particularly the client groups, with a view to help them make rational decisions. These changes are related to those in attitude, knowledge and skills and adoption behaviour and are operationalised through the use of moder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know-how resulting in increased productivity,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s, contributing ultimately to the attainment of better life. This being an important area of work, the workshop recommended that the extension workers should not be made directly responsible for ancillary functions like supply of inputs and services. It was, however, observed that advising the client groups about the sources of these inputs and services and how to obtain them is within the legitimate sphere of function of the grassroot level extension workers. As regards service, supply and other ancillary functions, it was recommended

that appropriate agencies should be identified or created where they do not exist and responsibility assigned to them to synchronizw their activities with those of extension education in order to get the desired results. The selection of these agendies/organizations will depend upon the specific situations, programm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like cooperatives, farmers associations and such other agencies. To implement the above approach, there should be effective coordination between extension and other agencies at different levels, particularly at the village and farm levels. In this connection it was suggested that establishment of agro-service centre/agrarian service centre where all concerned agencies are located at one place would be useful.

Issue No. 2 : Multi-purpose versus single-purpose
and status of extension worker

On the issue of multi-purpose versus single-purpose extension functionaries at grassroots level, it was felt that the different Afro-Asian countries are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nd that objectives and goals of their development programmes also vary. Therefore, there could not be an uniform pattern for all situations in all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is regard. Keeping this in view, it was recommended that in the countries where agriculture has become more specialized in nature, the

single-purpose extension workers at the grassroots level will be more useful and effective. But where this stage has not been reached and where resources including technical manpower are scarce, the multi-purpose approach may continue. However, such workers should be given technical support by extension specialist at the higher level. Considering the nature of work and responsibility of extension personnel it was felt that they should possess good practical knowledge of subject matter as well as extension methods and organizing people into small groups for action. Arrangement for special in-service training for extension workers should be made. Regarding the status of the extension personnel, it was generally felt that they do not enjoy the status appropriate to their function. It was recommended that this situation should be remedied. The working conditions of extension personnel are not congenial to discharging their duties effectively. It was recommended that adequate facilities like residential accommodation transport, health and children's educational allowances etc.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m. The present service conditions including the salary structure, promotional opportunities and professional growth and advancement are not conducive to attract intelligent and dedicated workers. He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se inadequacies should be removed by creating better and attractive service conditions.

promotional opportunities and facility for higher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ofessional growth.

Issue No. 3 : Mechanism for widespread dispersal
of benefits of extension

The modern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agriculture are becoming highly capital intensive and energy-based which are beyond the means of weaker sections of the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appropriate technology be develop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s, level of development and resources of these sections and should be made available to them within their means.

Issue No. 4 : Change agent and mass media

Recent extens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es and experienc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convincingly proved that a combination of field demonstrations (both result and method) group discussion, individual contact duly supported by mass media have accelerated acceptance and rate of adoption of innovations. One of the basic problems in working with rural poor is that due to continuous negligence and apathy they have lost self-confidence as well as faith in the local extension agency and programme and the new technology. It is, therefore, necessary as a first step, to create

self-confidence and regain their faith in the extension agency and the programm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ppropriate technology and develop suitable extension strategy. As these sections of rural community are economically weak they can't make use of modern technology without adequate financial assistance.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is aspect sh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local conditions and the necessary remedial measures taken. (It is not suggested here to give heavy financial subsidy or inputs free of cost to them). In view of continuous generation and availability of new technology and the need for its quick dissemination it is imperative that extension functionaries are kept abreast of these developments and made professionally competent for which various training programmes-preservice, induction and inservice and refresher courses-will have to be designed, strengthened and revitalized. In this respect, the exact role and responsibility of agricultur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specific tasks assigned to them. The importance of training women and youth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annot be over emphasized. Although conceptually there is no difference of opinion and all programmes of rural development envisage activating these segments of population, yet it is felt that in programme implementation

their involvement is deficient. The group, therefore, recommended that special training centres should be established to draw them from their daily chores and equip them in skills pertaining to home and farm improvement. Similarly special training programme should be devised for training rural youth for generating employment and income opportunities.

Issue No. 5 : Role of informal groups in extension educati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working with the weaker sections of the community in a number of countries has established that organizing them into small informal functional groups facilitates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and provides an effective receiving mechanism at the local level. It wa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is approach should be tried.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poorer sections of the community particularly, women and youth, it would be helpful to give the representation to their opinion leaders in various formal/informal organizations such as the cooperatives, village councils, farmers associations and youth and women clubs. People belonging to the weaker sections of the community are, not only economically weaker but also illiterate with no or very little access to mass media. The workshop, therefore, felt that an

appropriate package of extension methods and communication media be developed and made available to extension works and the clientele groups for effective transfer of technology.

Issue No. 6 : Intensive and extensive approach to extension

Regarding the question whether the extension strategy should be intensive or extensive, the workshop felt that this will depend upon the stage of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available technology and management methods. An intensive approach starting with one or two major crops of the area and gradually expanding towards total farm as a unit, village or a group of villages and finally the area approach would be more effective.

Issue No. 7 : Management problems in extension

Management in extension would basically revolve around the management of technology for rural development which should emerge out of the need for technology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development. Most of the countries of Afro-Asian region have accepted the increase in production, household income and employment as their basic objectives. The technologies, therefore, have to be evolved to support these objectives. It was felt that a large number of new technologies

were being evolved and diffused to the rural people in agricultural sector, however, not much was being done to upgrade technologies in rural crafts, industries, handloom, agricultural processing etc. Whereas the agriculture shall continue to get high priority, its limitation in solving all the rural problems has to be realized. The workshop also felt that a large number of technologies were being developed which were not relevant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is results in waste of scarce resources. It would, therefore, be desirable that the following steps are taken to ensure maximization of effects.

- a) A system may be evolved to assess the felt needs of the people;
- b) The research work must be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felt needs of the people, and diversified into the non-farm sector;
- c) Extensive field trials and tests must be carried out in various socio-economic and agro climatic zones to establish the techn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viability of the new technology;
- d) Extensive training and education of users of new technologies be organized so as to ensure wide spread acceptance of the useful technologies;
- e) Back up services for supply of inputs and post harvest operations must be

organized so as to ensure maximization of profits to the farmers;

- f) Arrangements should be made for the management of important technical information.

Issue No. 8 : Effective linkages between and within research, extension, farmers, and supporting agencies

It was general observation that the present linkages between and within various organizations and agencies were poor and there was considerable scope for improvement. An effective syste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farmers and the research organization through extension organization has to be established. This communication has to be two way, i.e. on one side, it should communicate the needs of the farmers to the relevant research organizations and on the other the useful work done by the research organizations should be effectively transmitted to the users. Simultaneously the supporting,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supply of inputs, marketing, and production credit, etc. may be devised for coordination of extension work. It was observed that the situation of research organization working in isolation oblivious of the needs of the people, could be rectified if the system of local planning was introduced. Obviously the level of planning was to be above village level but the exact level of planning would depend upon number

of factors like level of education, resources available and the felt needs etc. It was agreed that a local planning units may be set up. This unit could provide effective linkage between the farmers and the research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would be able to control the supporting-agencies so as to ensure timely availability of inputs and also the post harvest services.

Issue No 9 : Conditions for replication of successful extension approach

Various models of extension adopted by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been brought out in details in the respective country papers. Generally the approach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viz; (i) trickle down model, and (ii) induced model. Whereas, certain factors like existence of organizational set up, availability of inputs and financial resources, commitment of government etc. For success of a particular model could generally be identified, it was felt that unless detailed studies are undertaken it would not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success of a model and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 The workshop was of the opinion that replication of a model should not be attempted unless through detailed studies, the similarity of factors in different situations is established. It was felt that the extension model should be

controlled by the farmers themselves like the models which have come into being in Taiwan and Japan. Such system may have government support, if necessary, but the management of the model should be in the hands of the farmers. It was, however, observed that availability of a successful model could result in lot of resource saving which would otherwise be used in trying out different models. It was, therefore, recommended that AARRO may collect information about various studies of successful models tried out in different countries. These studies could then be circulated to other interested countries for thier use.

Issue No.10 : Effective extension methods and communication media

The workshop observed that the use of mass media like radio & T.V. were most effective when literacy rate and general level of education was fairly high and there was widespread of radio and T.V. network. However, in countries where network spread was poor and/or the level of education low, the mass media cannot be effective. One limitation of mass media is in getting the feed back from the farmers which is available in personal contact system. In such conditions there appears to be no alternative to the personal contact system. Besides in many countries where both personal contact system and

mass media were employed for extension, th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ontact system has been most effective. The workshop,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system to be adopted would depend upon various socio-economic situations and resource constraints and it won't be possible to recommend any one system as most effective. It was, however, felt that the mobility of an extension worker and means of quick communication available at the field level would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ersonal contact system considerably.

Issue No.11: Extension training - strategy and institutions for training

The effective training of extension work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extension work. The workshop observed that the training needs will have to identified at different levels and regular institutionalized arrangements made to meet the training needs. Whereas the training for village level functionarie has to be simple and practical in contents, at the higher levels it may include various socio-economic aspects also. Specialized training has to be provi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s at various levels. The proficiency in delivery systems has to be an important aspect of training for all levels of field workers.

Besides the in-service training programmes,

the future needs of the extension workers at different levels have to be assessed and educational programmes initiated so as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qualified manpower for extension work. Training of trainers is another important aspect which has to be taken care of by making regular arrangements.

There is considerable scop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ining. Specialized training programmes can be arranged for the experts of one country by another having the necessary expertise. Visits of extension workers from one country to other would help in considerably improving their outlook and also the methodology of extension work.

Issue No.12: Mechanism for monitoring and techniques
for impact evaluation of extension
programmes

The group was of the opinion that the monitoring by now has become a regular feature of various programmes. However, generally the reporting was being done by the functionaries who were themselve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s and as such the reports tended to be biased in favour of the targets to be achieved. The reporting work, however, could not be entrusted to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s it would result in heavy financial burden but it was recommended that effective checks at various levels should be provided ensure correct

reporting.

As regards the impact evaluation the group observed that success of an extension model was dependent on a large number of factors like suitability of technology, availability of inputs and financial resources, acceptance of the programme by the people, government policy regarding price support etc. and as such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isolate the impact of extension from other factors. However, it may be possible to identify certain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an extension model in relation to the objectives of the program. Some of these indicators could be as under:

- a) Number of visits made by the extension workers to the field and number of farmers contacted;
- b) Improvement in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farmers;
- c) Spread of the desired technology; and
- d) Increase in production per unit.

附錄 2

1. 會議日程

- 10월 11일(화) : 외국참석자 도착 및 등록
- 10월 12일(수) :
- 10:30 ~ 11:40 개 회 식
- 사 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崔 洋 夫 首席研究員
- 개회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金 甫 炫 院長
- 환영사 :
- 축 사 : 농수산부장관겸 AARRO의장
朴 鍾 孜 長官
- 12:00 ~ 13:00 오 찬 (농수산부장관 주재)
- 14:00 ~ 15:20 Session I
- 주제 I (농촌지도사업 모델)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 사 회 : 요르단 (Mr. A Qader)
- 발표자 : 王 仁 權 博士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 Dr. K. N. Singh (인도 농업연구위원회
명예위원)
- 15:20 ~ 15:40 휴 식
- 15:40 ~ 17:00 Session II
- 주제 I에 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 사 회 : 시에라레온 (Mr. L. M. Feika)

발표자 : 자유중국 (Mr. Ching Yung Liu)
 인 도 (Mr. B.B.Sharma)
 태 국 (Mr. C.Pongsroypech)

10 월 13 일 (목)

09 : 00 ~ 10 : 20

Session III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자 유 중 국 (Mr. Ching Yung Liu)
 발표자 : 라이베리아 (Mr. A. J. Kiawu)
 가 나 (Mr. J. K. Amoaku)
 케 냐 (Mr. I. R. Kiiru)

10 : 20 ~ 10 : 40

휴 식

10 : 40 ~ 12 : 00

Session IV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가 나 (Mr. J. K. Amoaku)
 발표자 : 모 리 셔 스 (Mr. A. R. Soyfoo)
 한 국 (동 열 모)
 필 리 핀 (Mr. D. R. Nunez)

12 : 00 ~ 13 : 30

중 식

13 : 30 ~ 14 : 50

Session V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필 리 핀 (Dr. D. R. Nunez)
 발표자 : 시에라레온 (Mr. L. M. Feika)
 모 로 코 (Mr. M. Mohamed)

14 : 50 ~ 15 : 10

휴 식

15 : 10 ~ 17 : 00

Session VI

주제 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케 냐 (Mr. I. R. Kiiru)

10 월 16 일 (일)

09 : 00 ~ 10 : 00 워커 힐 - 민속촌
 10 : 00 ~ 14 : 00 민속촌 방문
 14 : 00 ~ 15 : 00 민속촌 - 서울
 15 : 00 ~ 자유시간

10 월 17 일 (일)

09 : 00 ~ 10 : 20 Session VII
 주제 II (농촌개발을 위한 개도국간의 국제협력)
 에 관한 초청논문 발표 및 토의
 사 회 : 모로코 (Mr. M . Mohamed)
 발표자 : 金東熙 博士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S.D.Tendulkar (인도 델리대학 교수)
 10 : 20 ~ 10 : 40 휴 식
 10 : 40 ~ 12 : 00 Session VIII
 주제 I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나이지리아 (Mr. S.O.L Amadi Nna)
 발표자 : 자 유 중 국 (Mr. Ching Yung Liu)
 필 리 핀 (Mr. D.R.Nunez)
 말 레 지 아 (Mr. A.R.Mohd Nor)
 12 : 00 ~ 13 : 30 중 식
 13 : 30 ~ 14 : 50 Session IX
 주제 II 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태 국 (Mr. C.Pongsroypech)
 발표자 : 시에라레온 (Mr. L.M.Feika)
 가 나 (Mr. J.K.Amoaku)
 케냐 (Mr. I.R.Kiiru)
 14 : 50 ~ 15 : 10 휴 식

15:10 ~ 17:00

Session X

주제 I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에 짚 트 (Dr. H. Dawood)

발표자 : 인 도 (Mr. B. B. Sharma)

한 국 (김 정 용)

태 국 (Mr. C. Pongsroyech)

18:30 ~

시내관광

10월 18일 (화)

09:00 ~ 10:20

Session XI

주제 I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말 레 지 아 (Mr. A. R. Mohd Nor)

발표자 : 스 리 랑 카 (Mr. C. Gamage)

라이베리아 (Mr. A. J. Kiawu)

모 로 코 (Mr. M. Mohamed)

에 짚 트 (Dr. H. Dawood)

10:20 ~ 10:40

휴 식

10:40 ~ 12:00

Session XII

주제 II에 관한 국별 사례발표 및 토의

사 회 : 한 국 (최 문 희)

발표자 : 나이제리아 (Mr. S. O. L. Amadi Nna)

모 리 셔 스 (Mr. A. R. Soyfoo)

요 르 단 (Mr. A. A. Qader)

12:00 ~ 13:00

중 식

13:30 ~ 15:00

Session XIII

아시아·아프리카지역 국가간에 필요한 국제협력

분야 및 협력형태 파악

사 회 : 인 도 (Dr. R. N. Tripathy)

15 : 00 ~ 15 : 30	휴 식
15 : 30 ~ 16 : 30	주제Ⅱ에 관한 그룹토의 주제설정
16 : 30 ~ 18 : 30	Session XIV
	주제Ⅰ에 대한 그룹토의결과 발표
	사 회 : 스리랑카 (Mr.C.Gamage)
19 : 30 ~ 22 : 00	만 찬 (AARRO극동지역사무소 대표 주재)
22 : 00 ~	주제Ⅱ에 관한 토의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한 기초 위원회 회의
10 월 19 일 (수)	
09 : 00 ~ 10 : 30	그룹토의 (그룹Ⅲ, 그룹Ⅳ)
10 : 30 ~ 11 : 00	휴 식
11 : 00 ~ 12 : 00	그룹토의 (계 속)
12 : 00 ~ 19 : 00	자유시간
19 : 00 ~ 21 : 00	만 찬 (AARRO 사무총장 주재)
10 월 20 일 (목)	
09 : 00 ~ 10 : 30	Session XV
	주제Ⅱ에 대한 그룹토의결과 발표
	사 회 : 모리셔스 (Mr.A.R.Soyfoo)
10 : 30 ~ 14 : 00	휴 식
14 : 00 ~ 15 : 30	Session XVI
	회의결과 및 건의문 채택
	사 회 : 라이베리아 (Mr.A.J.Kiawu)
15 : 30 ~ 16 : 00	휴 식

16 : 00 ~ 17 : 00

폐 회 식

－ 폐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영 진 부원장

AARRO 사무총장

Dr.B.S.Minhas

10 월 21 일 (금) : 출 국

附錄 2

2. 參加國 및 參加者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1. 국별 사례 발표자			
아시아			
한 국	金正龍	농수산부	국제협력 과장
	董烈模	농촌진흥청 영양개선연수원	훈련 과장
자유중국	Mr. Ching - Yung Liu	행정원 농업발전위원회	선임전문가 겸 대만대학교수
필 리 핀	Mr. D.R.Nunez	내무성 지방행정발전국	국장
말레시아	Mr. A.R.Mohd. Nor.	농업성	훈련 과장
태 국	Mr. C. Pongs - royech	농업성 농촌지도국	국제협력 담당관
인 도	Mr. B.B. Sharma	농촌개발성	국장
스리랑카	Mr. C. Gamage	내무성	차관
요 르 단	Mr. A.A.Qader	프린세스 라만개 발센터	부소장
아프리카 (8개국)			
에 집 트	Dr. H. Dawood	에집트 국제농업센터	농촌종합개발계획 담당
가 나	Mr. J.K. Amoaku	농촌개발성	차관
나이지리아	Mr. S.O.L. Amadi - Nna	농업성	과장
케냐	Mr. I.R.Kiiru	농림축산개발성	농업과장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라이베리아	Mr. A.J. Kiawu	내무성	선임연구원
모로코	Mr. M. Mohamed	농업 및 농지개혁 성 협동조합관리부	부 장
모리셔스	Mr. A.R. Soyfoo	경제개발계획성 농촌개발부	부락개발담당관
시에라레온	Mr. L.M. Feika	농림성	과 장
2. 토론참석자			
한 국	姜 奉 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崔 文 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구원
	趙 在 衍	농촌진흥청	열대농업관
	金 聖 洙	서울대학교농과대학	교 수
	盧 健 吉	농업진흥공사 해외부	기 사
인 도	Dr. R.N. Tripathy	인도 농촌개발연 구소	소 장
3. 초청강사			
한 국	金 東 熙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 수
	王 仁 權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 수
인 도	Dr. K.N. Singh	인도농업연구위원회 농촌지도부	명예위원
	Dr. S.D. Tendulkar	인도 텔리대학교 경제학부	교 수
4. 옵 저 버			
FAO	Mr. B.N. Reyes	FAO 아시아 태 평양지역사무소	농업경영담당관
AARRO	오 완 수	AARRO 극동지역 사무소	행정관

참 가 국	참 가 자	소 속	직 위
5 . AARRO	Mr . B.S.Minhas	AARRO	사무총장
	Mr . R.P.S. Malik	"	기술담당관
	Mr . B.K.Malho- tra	"	사무총장비서관
6 . KREI	金 甫 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 장
	金 榮 鎮	"	부원장
	崔 洋 夫	"	수석연구원
	李 壽 寧	"	연구기획실장
	琴 東 君	"	책임연구원
	鄭 起 煥	"	3 급관리원

빈

면

開發途上國間の
農村開發協力と 農村指導

1983年 12月 31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印刷處：(株) 文 苑 社

☎ 723-6068, 722-6053
